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關聯

雙方 主要發言 對比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本冊子是 1988 年 8 月 19 日부터 同年 12 月 29 日까지 進行된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第 1 次~第 7 次)에서 雙方間에 論議된
主要 發言內容을 會議錄에서 拔萃하여 對比한 것임.

〈 凡 例 〉

雙方 發言 아래 괄호내의 表記는 出處임.

(3 - 基調 - 100) : 第 3 次接觸 - 基調發言 - 會議錄 100 페이지

目 次

1 . 會談 意義 및 姿勢	3
2 . 本會談 議題	10
가. 議題 一般	10
나. 第 24 回 서울올림픽大會 問題	18
다. 南北人的・物的交流과 協力問題 (赤十字・經濟會談 再開問題)	41
라. 南北不可侵宣言問題	51
마. 南北頂上會談 開催問題	69
바. 「팀스피리트」合同軍事演習 中止問題	76
3 . 本會談 形式問題 (代表會談・連席會議・合同會議)	84
4 . 本會談 進行方式	121
가. 南北國會合同會議 (開・閉會 모임)	121
나. 議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談 (基本問題 討議를 위한 代表會議)	124
다. 執行部 (幹事會議)	134
라. 共同運營委員會	138
5 . 代表團 構成	142
6 . 會談運營節次	146
가. 合意方式 (合意制・多數決)	146
나. 合意書 (共同決議文・共同宣言文)	160
다. 共同議長制	161

라. 開・閉會 모임 演說	162
마. 會談開催 時期 및 場所(서울・平壤)	164
바. 其他 運營節次問題	166
附錄：雙方 提案 및 合意書(案)	169

1. 會談 意義 및 姿勢

우 리 側	北 側
<p>南北間의 40年 歷史속에 起伏이 많았음.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었는데 國會會談만은 中斷이 없이 하기바람. 싸움할 것이 있으면 싸움하고 또 만나고 이래 야지, 지난번 接觸들을 中斷하고 나니 서로 많 이 서글뻤음.</p>	<p>北南 사이에 상당기간 對話가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연결되고 보니까, 거기다가 우리 政治人들이 상봉하게 되고 이런데 대해서 우 리 겨레 전부가 대단히 希望을 가지고 오늘 우리相逢을 注視하고 있음.</p>
<p>(1 - 歡談 - 13)</p>	<p>(1 - 歡談 - 12)</p>
<p>우리 政治人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화기에애 한 霧團氣속에 對話를 갖게 된 것은 참으로 多幸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民族의 將來 를 위해서 매우 鼓舞的인 일임.</p>	<p>國會連席會議 準備를 위한 우리들의相逢 은 민족적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고 平和와 平 和統一의 진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아주 고무적 인 사태 발전임.</p>
<p>우리로서는 貴側의 主張內容에 몇가지 異 見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단 南北의 政治 人들이 만나서 對話를 始作하는것 그 자체가 지금 막혀있는 南北關係의 突破口를 여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p>	<p>겨레의 運命을 관가름하는 엄혹한 시각에 北과 南의 政治人들은 對決과 緊張과 무력충 돌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더이상 持續되는 것 을 막아야 하고 和解와 信賴, 平和와 統一을 위한 새출발을 해야 할 것임.</p>
<p>(1 - 基調 - 25)</p>	<p>(1 - 基調 - 17)</p>
<p>우리 政治人들은 새로 始作되는 南北國會 會談에서 民族의 當面 課題와 將來問題에 關 心을 갖고 이를 改善·解決해 나가는데 應分 의 役割을 해야 될 것임.</p>	<p>北南國會連席會議에서 不可侵에 관한 共同 宣言을 발표하게 되고 올림픽問題가 民族共同 의 利益에 맞게 해결되면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民族的 和解와 團合, 平和統一을 위한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되리라고 생각함.</p>

우 리 측	北 측
<p>우리 國會議員들은 무엇보다 雙方 住民의 意思를 收斂하고 代辯하는 立場에 서 있기 때문에 雙方 住民들의 意思를 最大限 尊重하고 이를 具現시키는 方向에서 南北國會會談에 임해야 할 것임.</p> <p>(1 - 基調 - 26)</p>	<p>北南國會連席會議가 열리어 懸案問題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면 北南關係는 민족공동의 利益과 통일 念願에 맞게 새로운 기초 위에 발전하게 될 것이며 北과 南사이의 폭넓은 人的, 物的 交流와 協力の 길도 열리게 됨.</p> <p>(1 - 基調 - 19)</p>
<p>雙方은 모두가 國會議員 또는 代議員이라고 하는 本分에 알맞도록 南北國會會談을 運營해 나아가야 할 것임.</p> <p>오늘 이 接觸에서는 南北國會會談의 形式, 代表團 構成, 議題, 會談運營, 會談日時 및 場所, 그리고 기타 實務節次問題를 協議·決定해야 하리라고 봄.</p> <p>(1 - 基調 - 26)</p>	<p>問題를 解決하는데 있어서 두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強調하여 얘기하고자 함.</p> <p>첫째 이 問題를 解決하는데서 느끼는 것이 여전히 우리가 낡은 觀念과 思考方式에 집착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임.</p> <p>이것은 姿勢와 立場問題이지 결코 뭐 實務問題 100名이나 200名이나, 무슨 10名이나 20名이나 하는 이 숫자에 관한 얘기가 아님.</p>
<p>우리는 같은 民族이라는 立場에 서서 相互 理解와 互讓의 精神을 發揮하여 우리에게 賦與된 責任과 使命을 다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p> <p>(1 - 基調 - 33)</p>	<p>지금 情勢가 훨씬 변했음. 統一念願이 올라가고 있으며, 北에서도 南에서도 統一에 直接 參與하겠다는 各界 各層 人民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음.</p> <p>또 하나 새로운 情勢는 北과 南이 다같이 우리 最高人民會議와 그쪽 國會가 새로 출범했다는 것임.</p>
<p>4千萬 전체 국민들이 統一을 念願하고 있고, 平和定着을 念願하고 있고, 交流하고 싶</p>	<p>周邊情勢도 그새 많이 달라졌음. 大國들</p>

우 리 側	北 側
<p>어하고, 不可侵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들이 불타고 있다는 이러한 基調위에서 이러한 基本 위에서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음.</p> <p style="text-align: center;">(1 - 討議 - 50)</p> <p>무엇보다도 接觸에 임하는 우리 雙方의 姿勢가 相互 尊重과 互讓의 精神에 立脚해야 한다고 믿고 있음.</p> <p>어느 一方의 생각과 主張만을 앞세우기 전에 民族共同의 意思와 利益을 尊重하는 方向에서 合理的이고 智慧로운 方法을 찾아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4 - 基調 - 15)</p> <p>우리 政治人들은 이제 우리 民族이 世界の 中心部로 浮上되어 가는 轉換期的 局面에서 南北國會會談을 準備하기 위한 姿勢에 있어서도 劃期的인 變化를 가져와야 되리라고 생각함.</p> <p>이제 南과 北은 斷絶과 對決이 아니라 協力과 和解만이 分斷의 苦痛에서 벗어나 民族의 眞正한 統一을 가져온다는 認識下에 民族共同體로서의 關係를 發展시켜 나아가야 하겠음.</p>	<p>사이에 또 어제까지 敵對關係에 있던 나라들도 이전 和解關係로 돌아서서 이제는 武裝을 解除하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核武器를 撤去하고 거기에다 휴양소를 建設하고 있음.</p> <p>이런 情勢의 變化를 보면서 우리가 國會가 뒤 機能이 어떻다, 複雜하다, 效率性이 어떻다 뭐 이러면서 過去 方式에서 脫皮하지 못하고 여전히 쪼물썩하게 北南關係를 이런 協商方式으로 다루자 한다면야 우리가 큰 問題를 解決해 나갈 수 없을 것임.</p> <p>둘째,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重要的건 民族主體的 立場에서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임.</p> <p>民族主體性을 살려서 이 問題도 해결해야 됨. 우리는 하나의 民族이면서 둘로 갈라졌으며 이런건 지구상의 다른나라에는 거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分裂을 終熄하고 統一을 해야 하는 이 특수한 民族問題를 안고 있음.</p> <p>이 문제를 解決하자면 남의 方式, 남의 어떤 機能, 남의 解決方途, 남의 原則, 이것이 아니라 우리 民族問題에 固有한 우리 民</p>

우 리 側	北 側
<p>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一方의 생각과 主張만을 絶對化하기 전에 民族共同의 意思와 利益을 尊重하고 서로간의 差異點을 줄이며 共通點을 찾는 方向에서 接觸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함.</p>	<p>民族感情에 맞는 이런 機能을 찾아야 되고 이런 原則을 찾아야 되고 이런 方途를 모색해야 됨.</p> <p style="text-align: right;">(3 - 討議 - 40~43)</p>
<p>自己 合理化나 相對方에 대한 責任轉嫁와 같은 옛날 습관에서 벗어나 좀더 대범하고 包容하는 姿勢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5 - 基調 - 27)</p>	<p>雙方 國會議員들의 板門店 相逢은 나라에 조성된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戰爭危險을 제거하며 시간적으로 緊迫하게 제기되고 있는 第24次올림픽競技大會問題를 民族共同의 利益과 統一念願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p> <p style="text-align: right;">(5 - 基調 - 15)</p>
<p>오늘날 우리 民族의 成長과 成熟度는 南과 北이 해묵은 不信과 對決의 構造를 清算하고 信賴와 和解의 地平을 온겨레와 世界앞에 펼쳐 보일 수 있는 時點에 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함.</p>	<p>우리 상봉의 진전을 위하여 몇가지 原則的 問題들에 대해서 먼저 言及하려고 함.</p>
<p>모처럼 마련된 이 南北政治人들의 接觸이 이같은 時代的 要請에 반드시 副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p>	<p>첫째로, 우리의 相逢을 成功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問題를 대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넓은 對決의 觀念이 아니라 民族的 和解와 團合의 立場을 견지해야 함.</p>
<p>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一方의 主張만을 絶對化하고 責任은 相對側에 轉嫁하려는 이른바 姿勢論爭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임. 무엇보다도 이 會談에 주어진 主題에 充實하고 이를 合理的이고 現實的으로 解決해 나가는 互讓과</p>	<p>民族의 統一綱領인 7.4 南北共同聲明에도 명백히 지적되어있는 바와같이 對話와 統一을 위하여서는 北과 南이 思想과 理念, 制度의 차이를 초월하여 民族大團結의 原則을 견지</p>

우 리 側	北 側
<p>相互 尊重의 精神을 發揮해야 할 것임.</p> <p>이제부터라도 雙方이 南과 北을 代表하는 責任있는 政治人들로서 그 使命에 충실한다면 이 接觸에서 提起된 問題들의 合意點을 찾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6 - 基調 - 14)</p> <p>理念과 體制를 달리 하는 다른 分斷國들도 交流와 協力을 活潑히 推進함으로써 緊張을 緩和하고 民族의 一體性을 回復해 나가고 있음.</p> <p>이러한 情勢變化와 關聯하여 民族의 和合과 統一에 대한 우리 겨레의 熱望과 期待가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가고 있음.</p> <p>그럼에도 불구하고 南北關係는 不信과 對決의 構造를 그대로 維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民族이 오랫동안 겪어온 分斷의 不便과 苦痛은 조금도 解消되지 못하고 있음.</p> <p>우리 政治人들은 이같은 民族의 不幸과 悲劇的 狀況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으며 이를 終熄시키는데 앞장서서 應分의 責任과 使命을 다해야 할 것임.</p> <p>나는 南北國會會談을 위한 準備接觸이 바로 이러한 精神에서 出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p>	<p>하여야 함.</p> <p>둘째로, 우리는 민족 앞에서 政治人으로서의 자기의 무거운 責任感과 使命感에 충실해야 한다고 인정함.</p> <p>셋째로, 우리는 높은 誠實性과 信義를 가지고 對話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p> <p>하루빨리 國會會談을 열고 올림픽問題를 해결하자고 하면서도 다음 상봉날짜를 정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은 누가보아도 상봉에 대한 誠實한 立場이라고 볼 수 없음.</p> <p>雙方國會가 北南關係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討議解決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인데도 이것저것 여러가지 議題를 提起하여 상봉 앞에 複雜性을 조성한 것도 대화에 대한 誠實한 자세라고 말할 수 없음.</p> <p>우리는 모든 問題를 우리 나라 現實的 條件에 맞게 民族主體的 立場에서 풀어나가는 姿勢와 立場을 가져야 한다고 인정함.</p> <p>우리 나라의 統一問題는 外勢에 의하여 分裂되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思想과 制度가 존재하며 나라의 절반땅에 外國軍隊가 駐屯하고 있는 특수한 環境과 條件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固有한 民族問題임.</p>

우 리 側	北 側
<p>또 앞으로도 이 精神을 잘 살려 나가야 되리 라고 믿고 있음.</p> <p>(7 - 基調 - 26)</p>	<p>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의 統一問題를 풀 어나가는데서 다른 나라의 經驗도 참작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主體的 立場에서 創 造的으로 해결해나가는 立場과 態度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음.</p> <p>우리는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 지 않는 것을 그대로 模倣해도 안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안될 것임.</p> <p>나라의 統一問題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것이 우리 겨레가 念願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것 이라면 남이 했건 안했건 상관없이 民族主體 性を 살려 創造的으로 풀어나가야 함.</p> <p>雙方이 다같이 이러한 姿勢와 立場에 선다면 우리는 相逢을 원활히 運營해 나갈 수 있을것 임.</p> <p>(5 - 基調 - 15~19)</p> <p>北南사이의 緊張과 대결은 더이상 지속되어 서는 안되며, 바로 이 民族內部的 비정상적인 事態를 끝장내야 할 중대한 課業이 雙方의 當 局者들과 함께 우리 政治人들에게 지워져 있 음.</p>

우 리 側	北 側
	<p>우리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民族共同의 努力으로 緩和를 指向하는 世界的 趨勢에 맞게 北南사이의 對決을 끝장내고 和解와 團合과 平和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할 것임.</p> <p>(6 - 基調 - 25~26)</p> <p>우리들이 對話를 시작한 이후 지난 4個月 동안은 北과 南의 政治人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覺醒하여 本然의 使命에 충실할것을 요구한 매우 重要的 時期였다고 말할 수 있음.</p> <p>民族分斷史에 마흔세번째의 年輪이 새겨지는 올해에 北과 南, 海外의 모든 朝鮮同胞들속에서는 나라의 平和와 平和統一에 대한 熱望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음.</p> <p>이러한 內外情勢와 民族의 念願에 副應하여 우리 政治人들이 北南사이에 걸려있는 當面한 重大問題들을 解決하기 위하여 對話의 舞臺를 마련한것은 겨레에게 새로운 希望을 안겨주는 鼓舞的인 事態發展이 아닐 수 없었음.</p> <p>(7 - 基調 - 16)</p>

2. 本會談 議題

가. 議題一般

우 리 측	北 側
<p>南北國會會談의 議題는 다음의 다섯가지로함.</p> <p>① 北側 選手들의 第24回 서울올림픽大會 參加 問題</p> <p>② 南北間의 人的·物的 交流와 協力을 促進하는 問題</p> <p>③ 南北當局間의 不可侵協定締結을 勸告하는 問題</p> <p>④ 南北赤十字會談·南北經濟會談 再開를 促求하는 問題</p> <p>⑤ 南北頂上會談의 開催를 勸告하는 問題</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27)</p>	<p>連席會議 議題는 「北南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發表하는 問題」, 「第24次 올림픽競技大會問題」로 하며 그밖에 나라의 緊張狀態를 완화하고 平和를 보장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南側이 提起하는 問題」도 議題로 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21)</p>
<p>우리는 統一을 위해서 진지하게 多角的으로 論議해야 함. 經濟會談을 열어야 하고, 國會議員들도 만나야 하고, 學生體育會談도 해야 하고, 끊어진 鐵道도 연결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多角的으로 綜合的으로 이루어 가야 함.</p> <p>지금 中核的인 問題는 여러분과 交流를 하는 것, 對話를 하는 것, 信賴를 回復하는 것, 緊張을 緩和하는 일, 이것이 中核的인 問題임.</p> <p>또 올림픽문제 다급한 問題임. 빨리 解決해야함.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議題로</p>	<p>이렇게 議題問題를 제기하는 데에는 몇가지 根據가 있음.</p> <p>첫째, 우리가 考慮한 점은 國會連席會議에서 北南關係問題, 統一問題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임.</p> <p>둘째, 우리가 考慮한 점은 北南關係, 統一問題를 해결하는 데서 突破口로 될 수 있는 그런 中心問題, 그런 中心問題, 그런 걸 當面議題로 설정해 본 것이며, 이것은 위의 문제와 인관됨.</p>

우 리 側	北 側
<p>올린 것임.</p> <p>(1 - 討議 - 69)</p> <p>오늘 우리들의 準備接觸이 어떻게 해서든지 有終의 美를 거두어 歴史的인 南北國會會談이 早速히 實現되도록 하기 위한 一念에서 議題에 관해 다음과 같이 調整案을 提議함.</p> <p>① 第 24 回 올림픽 競技大會 問題</p> <p>② 南北間 人的·物的의 交流와 協力 問題</p> <p>③ 南北不可侵 問題</p> <p>④ 南北赤十字會談·南北經濟會談 再開問題</p> <p>⑤ 南北頂上會談 開催 問題</p> <p>우리側의 이같은 새로운 議題案은 우리側 主張 뿐만 아니라 貴側 意見도 充分히 反映한 것으로서 매우 公明正大하고 妥當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음.</p> <p>(2 - 基調 - 16)</p>	<p>나 해결할 수 없다, 그 많은 중에서 北南關係 전반과 통일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協議·解決하는데서 突破口로서 될 수 있는 그런 中核的인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를 당면한 아주 緊要한 議題로 설정하고 그것을 우리國會 連席會議에서 협의·해결하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고, 그런 의도임.</p> <p>(1 - 討議 - 64~65)</p> <p>어제 貴側에서 여러가지 議題를 내놓았음. 이것은 基本問題 討議, 當面한 議題問題,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복잡성과 난관과 障礙를 조성하는것임. 우리가 지금 제안한 두가지 문제는 어디까지나 현 단계에서 北과 南의國會가 모여앉아서 절박하게 해결해야할 焦眉의 문제들이고 北南關係와 統一問題를 해결하는데서 스킨고 지날 수 없는 긴박한 문제들임. 中核的인 문제들이 것임. 이러한 두가지 문제가 풀리면 어제 그쪽에서 제기한 爾餘의 문제들은 스스로 풀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것임.</p> <p>(2 - 基調 - 31)</p>

우 리 측	北 측
<p>豫備接觸에서의 議題問題는 그렇게 重要問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함.</p> <p>本會談에 가서 議題를 놓고 진지하게 심도 있게 깊이 自由스럽게 討論하는 것은 重要하지만 議題의 選擇과 議題의 名稱을 가지고 曰可曰否한다는 것은 非生産的이고 無意味함.</p> <p>왜 그러나 하면 우리들이 南北國會會談을 갖고자 하는 基本的인 立場과 基調라는 것은 統一의 基盤을 우리가 어떻게 造成할 것이냐, 緊張되어 있는 南北關係를 어떻게 緩和시킬 것이냐, 또 民族의 同質性을 어떻게 回復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큰 命題 밑에서 南北間의 接觸과 會談을 갖고자 하는 皮차간의 뜻이 있기때 문임.</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34)</p> <p>우리가 내 놓은 修正案은 여러분의 意見을 많이 收斂했음. 또 우리가 讓步할 것은 讓步했음.</p> <p>貴側에서도 우리가 제시한 修正案을 가지고 檢討해야지 이미 써온 文句를 그대로 계속 읽으면 會談이 안됨.</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41)</p>	<p>議題問題가 重要하지 않다면 貴側에서 우리側 議題를 받아 들이면 간단한건데, 貴側에서 議題問題를 讓步안하는 것도 그 自體가 議題問題라는게 相當히 尖銳한 問題라는걸 意味하는 것임. 그야말로 會議의 性格과 關聯된 問題라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38)</p> <p>議題問題도 그 쪽에서 研究하신건 事實임. 그런데 一部 不合理한 點도 있다고 생각함. 議題問題에 대해 어떻게 오늘 妥結해 보자는 입장에서 새로운 案을 提起함.</p> <p>첫째, 北南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發表하는 問題, 둘째, 第24次 올림픽 競技大會에 貴側이 우리側을 招請한 問題와 第24次 올림픽 競技大會를 北과 南이 共同으로 主催하는 문제, 셋째, 北南사이 多方面的 協力과 交流를 實現하는 問題로 함.</p> <p>우리가 討議할 내용을 명백히 설명하기 위해 本會談에 가서 勸告고 뭐고 이러기 보다는 지금 우리가 討議한 議題대로 하는 것이 國會가 자기들의 使命을 다하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54~55)</p>

우 리 측	北 측
<p>議題名稱을 이 자리에서 꼭 確認하고 넘어 가야 된다면, 이 會談의 性格이 자칫 잘못하다간 本會談의 性格과 비슷한 會談이 되고말 것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形態로 됐든 國會會談 本會議의 마당에서 그런 문제를 包括적으로 議論하자 이런 것을 의미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側の 議題問題에 대해서 伸縮性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봄.</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45)</p>	<p>다만 여기에서 提起하고 싶은 것은 「協力과 交流 實現에 관한 問題」는 위의 첫번째, 두번째 問題를 우리가 提案한대로 同意하는 條件에서 세번째 問題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임.</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56)</p>
<p>우리는 南北國會會談이 이달안에 열려서 첫째로 第 24 回 서울올림픽競技大會 問題 이것을 討議하고, 둘째는 南北赤十字會談・南北經濟會談 再開를 包含한 南北間의 人的・物的 交流와 協力問題, 세째로 南北不可侵問題, 네째로 南北頂上會談 開催問題, 이런 네가지로 壓縮해서 相互 中立的인 立場에서 會談을 열어 거기서 實質的인 問題를 討議하자는 이러한 提案을 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貴側の 呼應을 期待함.</p> <p style="text-align: right;">(3 - 基調 - 26)</p>	<p>第 2 次 相逢에서 우리는 討議議題를 복잡하게 여러개로 하지말고 세가지로 하기로 同意를 보았음.</p> <p>다시말해서 우리側이 貴側意見을 받아들여서 北南사이의 多方面的 協力과 交流問題를 追加했고, 貴側이 네번째 議題로 提起했던 既存對話 再開問題를 우리側이 새롭게 提議한 北과 南사이의 多方面的인 合作과 交流問題안에 包含시키겠다고 해서 取消했고, 다섯번째 의제로 제기했던 頂上會談 促求問題를 保留하겠다고 해서 取消함으로써 討議議題를 세개로 하는데 同意를 보았음.</p> <p>그 가운데서 첫번째의 議題, 不可侵에 관한</p>

우 리 側	北 側
	<p>問題에 대해서만 內容的으로 완전한 合意에 도달하지 못하고 나머지 두번째와 세번째 議題는 內容的으로도 완전한 合意에 도달했음.</p> <p style="text-align: center;">(3 - 基調 - 14)</p> <p>오늘 그쪽에서 議題問題에 대해서 提起한 것은 대단히 복잡성을 造成하고 그에게 合意된 것을 뒤집어 엮는 것으로 되어있고 훨씬 後退한 것으로 되어 있음.</p> <p>그러니까 내 意見은 이미 合意된건 그대로 누르고 지나자 하는 意見임. 그런 의미에서 올림픽 문제는 여전히 이미 合意된 대로 「우리측을 24次 올림픽에 招請하는 問題하고 共同主催問題」 이렇게 定한대로 누르자는 것임.</p> <p>그다음 「北과 南사이의 多方面的인 協力과 交流를 實現할데 대한 問題」는 이미 합의된 것이니까 그대로 누르자는 것임. 다시 복잡하게 할 必要가 없음.</p> <p>不可侵 問題는 우리가 그에게 제기한대로 그쪽에서 제기한 그 어떤 不可侵 協定에 대한 勸告問題는 不合理하며, 거기에 대한 內容은 우리측의 共同宣言 發表問題에 다 포함되어</p>

우 리 측	北 側
	<p>있고 受容되어 있으니까 철회하고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發表問題」, 이렇게 하여 3 가지로 정립하자는 意見을 提起함.</p> <p style="text-align: right;">(3 - 討議 - 72)</p> <p>貴側은 처음부터 議題에 이것도 저것도 다 包含시키는 式으로 여러 가지 問題들을 議題로 提起함으로써 問題討議에 새로운 複雜性和 混亂을 造成하고 時間을 遲延시켜 왔음.</p> <p>北南사이에 解決해야 할 問題는 한 두 가지가 아니며 貴側이 主張한 다섯가지를 討議한다고 해서 다 풀리는 問題도 아닌것임.</p> <p>사실상 北南사이에 解決해야 할 問題들 가운데는 貴側이 提議한 問題들 보다 더 重要하고 本質적인 것들이 數多히 있음.</p> <p>그렇지만 北南國會가 지금 당장 그것들을 다 말아 解決할 수 없는 것임. 그런데도 貴側이 當面한 北南國會間에 討議한 議題를 다섯가지씩이나 提起한 것은 議題를 合意하는데서 時間을 끌려는 態度라고 밖에는 달리 볼수가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4 - 基調 - 25~26)</p>

우 리 側	北 側
<p>우리側은 會談議題를 다음과 같이 修正提議함.</p> <p>① 南北赤十字會談・南北經濟會談再開 問題를 包含한 南北間의 人的・物的 交流와 協力 問題</p> <p>② 南北不可侵宣言 問題</p>	<p>北南國會合同會議에서는 다음과 같은 議題를 討議함.</p> <p>1) 北南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發表問題</p> <p>② 第24次 올림픽競技大會를 北과 南이 共同으로 主催하는 問題와 第24次 올림픽 競技大會에 北側 選手團을 招請하는 問題</p> <p>③ 北南사이에 多方面的 協力과 交流를 實現할데 대한 問題</p> <p>(4 - 基調 - 28)</p> <p>議題問題는 올림픽問題가 자동적으로 脫落된 조건에서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發表할데 대한 問題와 北南사이의 多方面的인 協力과 交流를 실시할데 대한 問題, 이 두가지로 하자는 것을 주장함.</p> <p>(5 - 基調 - 21)</p>

우 리 측	北 側
<p>③ 南北頂上會談 開催 問題로 할 것을 提議함 .</p> <p>議題問題에 대한 우리側의 立場을 좀더 말하겠음 .</p> <p>議題問題에 있어서는 雙方間에 共通點도 있지만 아직도 상당한 見解差異가 있다고 생각됨 . 그러나 그 根本原則은 雙方이 하고 싶은 問題 , 懸案問題는 누구나 自由스럽게 이야기 하자는 것이 우리의 原則이었고 貴側의 8月의 書翰에도 나타나 있었음 .</p> <p style="text-align: center;">(6 - 基調 - 18)</p> <p>南北國會會談의 議題는 다음의 3 個項으로 함 .</p> <p>① 南北 赤十字會談 · 南北經濟會談의 再開 問題를 包含한 南北間의 多角的인 交流 · 協力 問題</p> <p>② 南北不可侵宣言 問題</p> <p>③ 南北頂上會談開催 問題</p> <p style="text-align: center;">(7 - 基調 - 34)</p>	

나. 第 24 回 서울올림픽大會問題

우 리 側	北 側
<p>우리側이 貴側選手들의 올림픽大會 參加 問題를 最優先 議題로 提案한 것은 지난 7月 9日 우리側 國會에서 決議한 바와 같 이 서울올림픽大會가 民族的 和解와 協力的 일대 契機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認識에 서 始作된 것임.</p>	<p>눈앞에 다가온 올림픽 競技問題도 分裂된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스포츠문제가 아니 라 統一의 전도와 관련되는 심각한 政治問 題로서 시급히 民族共同의 利益과 統一의 念願에 맞게 해결되어야 함.</p>
<p>(1 - 基調 - 29)</p>	<p>실로 不可侵問題나 올림픽問題는 통일도 상에 나서는 焦眉의 民族重大事이며 일순의 유예도 허용치 않는 긴절한 과제임.</p>
<p>祖國의 分斷現實이란 아픔에 시달리는 우 리 民族이 올림픽마저 서울과 平壤으로 나 누어 버린다면 얼마나 딱한 일인가?</p>	<p>(1 - 基調 - 18)</p>
<p>우리는 이 機會에 南北이 서울에 모여 함께 올림픽을 統一로 向한 民族의 祭典으 로 만들기를 苦待하고 있는 것임.</p>	<p>이 相逢에서 올림픽에 參加하는 問題를 勸告하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直接 參 加하는데 대해서 어떠한 決定을 하자는 것 인가, 이것을 명백히 해야 함.</p>
<p>南北選手들이 開閉會式 入場時 五輪旗를 앞세우고 各其 自己側 國旗를 들고 함께 隊 列을 이루면서 行進하게 된다면 그 自體만 으로도 民族의 一體性을 萬邦에 誇示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음.</p>	<p>(1 - 討議 - 37)</p> <p>北에서도 南에서도 全民族이 관심하는 것 이 바로 올림픽 문제임.</p>
<p>우리側은 올림픽 開幕直前까지 貴側에 올림픽參加의 門戶를 開放해 놓을 것이며, 貴側이 參加意思를 밝혀올 경우 同胞愛로 따뜻하게 歡迎하고 大會 全期間을 통해 最</p>	<p>우리 전민족이 이것을 어떻게 合理的으로 民族共同의 利益에 맞게, 統一理念에 맞게, 어떻게 유익하게 해결할 것을 바라고 있음.</p> <p>(1 - 討議 - 66)</p>

우 리 측	北 측
<p>大限의 安全과 便宜를 保障할 것임.</p> <p>(1 - 基調 - 30)</p> <p>이미 우리측은 貴側 選手團의 올림픽參加에 對備하여 選手團 入場 및 施賞時에 必要한 貴側의 國旗와 國歌는 물론 貴側選手團 및 記者들을 위한 宿所를 選手村, 記者村 및 호텔 등에 確保해 놓는 등 모든 準備를 다해 놓고 있음.</p> <p>(1 - 基調 - 30)</p> <p>올림픽參加問題는 우리 國會가 결정을 못함. 그러나 우리 希望은 體育會도 있고 政府當局이 있으니까 國會議員들이 우리 共同決意로 參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임.</p> <p>(1 - 討議 - 38)</p> <p>「올림픽問題」는 다른 議題와는 달리 時急히 解決해야 될 焦眉의 問題임.</p> <p>時期的으로 볼 때 서울올림픽大會의 最終엔트리 마감의 9月2日로 迫頭해 왔고 文化올림픽이 이미 始作되었으며 各國 選手</p>	<p>開幕을 앞둔 第24次 올림픽 경기대회문제를 民族共同의 利益과 統一念願에 맞게 해결하는 것은 北과 南의 政治人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제임.</p> <p>朝鮮에서 올림픽과 같은 世界的인 體育</p>

우 리 側	北 側
<p>들이 속속 들어와 準備까지 하고 있는 實情임.</p>	<p>祝祭를 치루자면 분열이 아니고, 통일에 도움이 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이바</p>
<p>(2 - 基調 - 16)</p>	<p>지하는 것으로 되게 해야하고, 그러자면 24 次 올림픽 경기대회를 北과 南이 하나의 民族</p>
<p>우리 雙方은 그 時期를 놓침으로써 内外의 關心과 期待를 저버리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될 것임.</p>	<p>으로서 共同으로 主催해야 함.</p> <p>(2 - 基調 - 30)</p>
<p>이러한 점에서 나는 무엇보다도 올림픽 問題의 解決을 위해서도 이달안에 南北國會會談이 반드시 開催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強調하면서 本 準備接觸이 早速히 妥結될 것을 眞心으로 念願하고 있음.</p> <p>(2 - 基調 - 17)</p>	<p>올림픽 문제와 관련해서는 貴側에서 우리가 제의한대로 「第 24 次 올림픽 경기대회 문제」로 수정해서 나온것은 아뭏든 다행한 일로 생각함.</p> <p>內容上으로 南北主催를 받아들였다면 더욱 좋겠는데, 그점에서는 見解上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p>
<p>올림픽대회문제는 1世紀만에 혹은 半世紀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엄청난 祭典임.</p>	<p>(2 - 基調 - 31)</p>
<p>國民들의 代議機關인 雙方의 國會議員들이 무릎을 맞대고 마지막 한번 虛心坦懷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라고 하면 올림픽 共同開催를 前提로 한다든가, 分散開催를 前提로 한다든가, 서울로 오너라 하는 서울參席을 前提로 한다든가 이런 問題가 아니고, 包括적으로 올림픽 問題 한번</p>	

우 리 側	北 側
<p>각의없이 마음의 門을 열어놓고 議論한번 합시다, 政治싸이드에서 한번 합시다, 이렇게 議題를 包括적으로 定하는 것이 누가 보든지간에 너무너무 당당하고 合理的인 議題 選擇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34)</p> <p>올림픽 共同主權問題는 「로잔느」會談이 시작될 때 부터 올림픽大會의 主管者인 IOC의 憲章上으로나 지금까지 올림픽을 開催해온 慣例上으로나 이걸 안된다는게 일반적으로, 國際적으로 알려진 問題임. 지금와서 이 올림픽 共同主權問題를 南北 우리 國會議員들이나 또 南北間에 어떤 協議를 통해서 解決할 수 있는 問題도 아니고 이제 올림픽開幕式도 20餘日 밖에 안남은 현 시점에서 共同主權을 論議해 봐야 現實적으로 實現可能性이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懷疑를 가지게 됨.</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58)</p> <p>이번 올림픽 競技大會를 民族的 大和解속에서 成功的으로 치른다고 하면 이것은 21</p>	

우 리 측	北 側
<p>世紀의 世界歷史를 우리가 주도하는 主役 國家로서 세계무대속에 진출하는 그런 契機 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당초 우리 國會書翰에서의 意志를 담아 北韓選 手들이 參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임.</p> <p>(2 - 討議 - 60)</p>	
<p>共同으로 하는것이 越等 유리하다고 봄. 서울이 올림픽을 81年 「바덴바덴」總會 에서 誘致했음. 그때부터 共同하자 하면 얼마든지 되었는데, 절대 서울개최는 안된 다고 國際會議때 마다 깬는데, 지금와서 뒤 늦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시간이 없 음.</p> <p>(2 - 討議 - 63)</p>	<p>도대체 單獨올림픽을 하는것과 共同主催 를 하는것과 民族의 和解와 團合, 統一을 위해서 어느쪽이 더 有益한가? 대답하여 주기 바람.</p> <p>(2 - 討議 - 63)</p>
	<p>共同主催가 월등하다면 우리가 직후에 제기 했더라도 우리가 解決할 수 있는 여유가 얼마든지 있었음. 어째서 이제와서 時間이 없다고 하는가?</p> <p>(2 - 討議 - 63)</p> <p>共同主催가 越等하다는 것은 인정한 셈 임. 分裂된 北과 南의 現 狀況을 고려해 서 北과 南 사이에 共同主催에 合意하면 IOC는 反對 못할 것임.</p>

우 리 側	北 側
<p>올림픽問題는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焦眉의 問題고, 全民族의 關心事로서 時急히 民族共同의 利益과 統一의 念願에 맞게 解決되어야 함. 이것에 대해선 아마 認識을 같이 하는 것 같음.</p> <p>다른 問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 論議가 繼續되고 있지만, 이 올림픽問題 하나만을 다루기 위해서 이달안으로 國</p>	<p>(2 - 討議 - 65)</p> <p>時間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없음. 우리가 준비가 다되어 있는 條件에서 예하면 이제 그쪽에서 『서울에 오기만하면 된다』 이렇게 되지 않는가? 간단함. 共同主權에 合意하면 마찬가지로 그만큼 簡單함.</p> <p>(2 - 討議 - 66)</p> <p>어느 한 部分이 이런 祝祭를 하면 이것은 對決에 服務하고 分裂에 服務하는 것임. 다 이 共同으로 하는 것은 그런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提起한 것임.</p> <p>(2 - 討議 - 67)</p> <p>우리가 제기한 第1次 北南國會 連席會議를 8月6日 平壤에서 開催하자는데 합의하면 됨. 올림픽문제가 緊急問題라는 것은 우리도 더 잘알고 있으며 또 여기에 날자를 늦추고 招請問題만 討論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一方的임.</p> <p>(2 - 討議 - 85)</p>

우 리 측	北 측
<p>會 本會談을 한번 하는게 좋겠음. 그 會談에서는「24回 올림픽競技大會問題」이렇게 議題를 해가지고 우리가 提起한 올림픽에 北韓選手를 招請하는 問題와 그밖에 貴側이 主張하는 그러한 案에 대해서 지금 時點에서 可能한 方法이 있는지, 모든 點을 다함께 한번 檢討하는, 또 論議하는 그러한 國會 本會談을 이달 29日 平壤에서 한번, 올림픽問題만을 따로 다루는 本會談을 29日 平壤에서 하자 하는걸 正式으로 提議함.</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81)</p> <p>8月 29日 平壤에서 각기 10名 내지 15名 程度의 代表들이 모여서 緊急議題로 올림픽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으로, 회담형식은 물론 代表會談임.</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82)</p> <p>南北緊張緩和나 交流問題는 지금 40年間 問題가 되어 왔으니까, 그것도 緊急하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討議를 해도 좋으나 焦眉의 根本은 올림픽의 大祭典에 160餘個國이</p>	<p>어제 討議한 過程에 올림픽問題와 關聯해서 貴側에서 提起한 案하고 第24次 올림픽大會에 우리 北側選手를 招請하는 問題하고 우리가 提議한 案 올림픽共同主催問題,</p>

우 리 側	北 側
<p>다 參席하고 東·西를 超越해서 모두가 모이는데 北韓팀이 같이 못 온다는 것이 속이 섭섭해서 우리 民族的 意志를 담아 가지고 여러분에게 몇번 호소했음. 호소를 했는데, 이 호소를 안 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다른 政治的인 問題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됨.</p> <p>(3 - 討議 - 21)</p>	<p>이 두개를 병렬해서 하나의 議題로 만들자 하는데 合意된 건데, 오늘 다시 原點으로 돌아갔음.</p> <p>(3 - 討議 - 33)</p> <p>원래 修正이라는 것은 그걸 둘로 합치거나 가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림픽問題 같은데서도 이거 왔다갔다 하기만 함.</p> <p>제일 처음 貴側에서 올림픽問題 提案에 어떻게 내놓았느냐 하면 우리 案 모두 배제하고 一方的으로 우리 選手들의 서울올림픽 參加問題, 이 하나를 올림픽 議程으로 했음. 대단히 一方的이었음.</p> <p>어제 이른바 修正했다고 하면서 말하자면 「올림픽競技問題」 이렇게 했는데 그內容上 자기것을 원래 취소해야 됨. 철회해야 되는데 철회는 하지 않다 보니까 이걸 이대로 修正이 아님.</p> <p>원래 옹당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마치 양보한 것처럼만 하지 양보한 것도 없고 修正도 아님.</p> <p>(3 - 討議 - 34)</p>

우 리 側	北 側
<p>우리의 緊急議題로서 第 24 回 서울올림픽 問題만이라도 時急히 協議・解決하기 위해 서 南北國會會談을 8月 29日 平壤에서 開催하자고 提議한 것은 불과 며칠 後로 다 가온 第 24 回 올림픽競技大會에 南北이 함께 參加함으로써 民族和合의 一大轉機를 마련하는데 그 참뜻이 있음. 올림픽問題는 다른 議題와는 달리 時急을 요하는 焦眉의 課題이며, 이달을 넘기게 되면 더 이상의 討議가 無意味하게 될 것임. 그것이 現實임.</p>	<p>貴側이 2次相逢에서 올림픽競技大會 問題만을 討議하기 위해서 오는 8月 29日 平壤에서 南北國會會談을 開催하자고 提議한 問題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금번相逢의 根本趣旨에 심히 背馳되는 不當한 主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p>
<p>(3 - 基調 - 26)</p>	<p>(3 - 討議 - 19)</p>
<p>올림픽問題를 우선 協議・解決하기 위한 南北國會會談을 開催하고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올림픽問題에 관한 討議가 끝난 후에 時間을 가지고 심도있게 協議를 進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p>	
<p>(3 - 基調 - 28)</p>	
<p>올림픽問題 協議를 위해서 오는 29日 平壤에서 開催될 南北國會會談에 雙方에서 각각 20 名의 代表가 參加하고 40 名의 支援</p>	

우 리 측	北 측
<p>人員과 50 名의 取材記者를 同行시키며, 滯留期間은 3 泊 4 日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함.</p> <p>代表團의 南北往來節次問題, 身邊安全問題, 板門店 通過節次, 便宜提供 등 其他 諸般實務問題의 時急한 解決을 바라는 內外의 期待에 副應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다시 한번 貴側의 肯定的인 呼應을 期待함.</p> <p style="text-align: center;">(3 - 基調 - 28)</p> <p>우리 남쪽에서 얘기하는 共同主催라는 그러한 語彙의 使用은 貴側에서 말하는 共同主催라는 뜻이 아님. 함께 우리 民族이 어울려서 올림픽을 하자는 것임.</p> <p>그것이 아니랄 말로 지금 서울로 되었습니 다만 서울이 되었든 平壤이 되었든 간에 우리 民族이 한군데에서 모여서 하자는 이야기지, 貴側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서울에 서울올림픽組織委員會를 두고, 평양에 따로 두자는 것이 아님. 民族內部의 問題를 論議하면서 이 韓半島 內에 올림픽을 두군데에나 갈라 놓을 수 없음.</p> <p>나는 IOC 憲章이나 IOC에서나 그렇게</p>	<p>올림픽問題를 우리가 두개 나라가 두개 깃발을 들고, 共和國은 共和國 깃발을 들고, 남쪽은 남쪽깃발을 들고 그대로 一列로 서서 하자는게 도대체 民族의 良心이 있는 소린가, 이게 疑心스러움.</p> <p style="text-align: right;">(3 - 討議 - 67)</p>

우 리 측	北 側
<p>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양쪽側에서는 우리 그거 反對다, 어디선가 한군데서 해야된다 하고 나오는 것이 이게 民族問題를 解決하 는 本質이라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3 - 討議 - 65)</p> <p>이번 올림픽大會問題는 貴側에서도 認識 을 같이 하는 바와 같이 焦眉의 課題임.</p> <p>24回 서울올림픽競技大會는 앞으로 26日 이 지나면 開幕式을 갖게 되어 있으며 더 우기 9月2日은 올림픽 參加選手들의 組 編成 調整을 마감하는 時限으로서 불과 열 흘밤에 남지 않았음.</p> <p>따라서 올림픽問題야말로 이 國會會談에 서 다루어야 할 가장 時急한 課題가 되고 있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議題로 되어 있는 不可侵問題를 위시한 다른 중요한 懸 案問題들을 다루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취 지가 아니라 그것은 올림픽問題를 먼저 解 決한 이후 또는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豫 備接觸을 통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문 제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같이해 주 시길 바람.</p>	<p>29日에 따로 이 問題를 위해서 連席會 議를 열자고 하는 것은 後退임.</p> <p>이것은 議題를, 議題內容을 分散시키는 것이요, 問題解決을 더욱 後退시키고 延長 시키는 것임.</p> <p>그리고 本質에서 우리가 疑心하는 것은, 우리가 26日 國會連席會議를 가지자는 우 리 提案을 霧散시키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疑問을 가짐.</p> <p>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代案을 우리 討議의 速度를 높여서 「26日 平壤에서 國 會連席會議를 가지는 問題」로 合意를 누르 면 되는 것이지, 무엇 또 다른 것을 誕生 시키는 것은 대단히 複雜한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3 - 討議 - 73)</p>

우 리 側	北 側
<p>우리는 이미 本會談 開催日字에 대해서 貴側이 8月 26日을 원한다면 기기에 동의 할 수도 있다는 立場을 밝힌 바가 있음.</p>	
<p>(3 - 討議 - 70)</p>	
<p>우리측의 緊急提議는 올림픽 開幕을 불과 20여일 앞둔 현 시점에서 會談形式과 議題問題를 놓고 相互 意見 接近없이 準備 接觸으로 시간을 끌고 있을수만은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임.</p>	
<p>民族的 大事인 올림픽 문제를 南北의 政治人들이 앞장서서 協議・解決한다면 不可侵이나 交流・協力등의 다른 문제들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土臺가 마련되리라고 期待함.</p>	
<p>(3 - 討議 - 71)</p>	
<p>우리는 共同開催라 할 것 같으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임.</p>	
<p>(3 - 討議 - 74)</p>	<p>原來的으로 말하자면, 論理的으로 말하면 그저께 協議에서 朴浚圭先生께서 共同主催案 하고 서울에서 一方的으로 올림픽 하는 問題하고 이것이 民族의 和解와 團結을 위하고 統一을 하는데서 어느 것이 더 優越한가 한데 대해서 오직 共同主催가 훨씬</p>

우 리 側	北 側
<p>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임.</p> <p>(3 - 討議 - 75)</p>	<p>優越하다고 했음.</p> <p>(3 - 討議 - 74)</p> <p>그쪽에서 이제 論理展開가, 서울하고 뽕平壤에서 따로따로 組織委員會 構成하자는 것은 어떤 分裂된 것이다 했는데, 그 論理展開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음.</p> <p>서울하고 平壤이라는 곳이 異國이나 異民族이 아님.</p> <p>한 나라 안에서 한 民族안에 두 뿌리, 두 組織 가지자는 뜻이지 두 나라안에 두 組織 가지자는 뜻은 아님. 그러니까 理解를 그렇게 해야 함.</p> <p>(3 - 討議 - 75)</p> <p>共同主催를 하면 北과 南사이에 開放이 되고, 數萬이 왔다갔다 하게 됨. 그리고 共同主催라는 이 自體만 해도 民族의 和解와 團合에 寄與하는 것이고, 統一에 寄與하는 것임.</p> <p>그쪽에서 하는 一方的인 強行, 一方的인 올림픽 그것은 分明히 對決에 服務하는것임.</p> <p>(3 - 討議 - 75 ~ 76)</p>

우 리 측	北 側
<p>올림픽問題에 관해서는 貴側도 「焦眉의 民族 重大事」 또는 「한시도 미룰 수 없다」는 말로써 그 時急性을 認定하고 있음.</p> <p>그럼에도 불구하고 貴側이 本會談을 열어야 한다고 한 8月 26日 바로 오늘까지도 이 問題를 解決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음.</p> <p>우리는 올림픽問題 討議를 더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時期的 切迫性을 고려하여 오늘 會議에서는 이 問題를 우선 어떤 일이 있더라도 協議・解決하기 위한 우리側の 8月 29日 平壤會談 開催 여부를 中心으로 討議가 進行되기를 希望함.</p> <p>(4 - 基調 - 17)</p>	<p>連席會議를 빨리 열고 올림픽問題를 緊急議題로 먼저 討議하는 모든 일이 順次대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貴側이 올림픽問題만을 따로 다루는 代表會談을 하자고 하는 것은 새로운 論爭點을 자꾸 만들어서 焦點을 分散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서 連席會議 第1次會議 自體를 霧散시키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理解할 수가 없음.</p> <p>(4 - 基調 - 25)</p> <p>北南國會合同會議 第1次 會議 開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第1次 會議에서는 第24次 올림픽競技大會問題를 緊急議題로 討議함.</p> <p>(4 - 基調 - 28)</p>
<p>지금까지 貴側에서 말한 것을 綜合해서 들으면 올림픽問題 하나만을 다루는 8月 29日에 하자고 한 우리측의 緊急提議에 대해서는 應할 수 없다고 일단 그렇게 우리는 받아 整理할 수 밖에 없음.</p> <p>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지금도 또 確實히 말했지만 會談形式이 北側에서 提議한대로 그런 內容의 合同會議가 빨리</p>	<p>올림픽問題 하나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서울 초청문제 하나만 토의하자고 아주 不正하게 일반적으로 제기했는가 하면, 후에는 그것이 論駁당하니까 그것을 一般化 했는데, 그것도 다시 複合議題로 했고, 다시 또 修正해서 올림픽문제만 단독으로 하자고 했고, 이제와선 또 올림픽 單一議題로</p>

우 리 側	北 側
<p>열리면 거기에서 第1次 會議에서 緊急議 題로 올림픽을 討議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議題하고 함께 다루는 第1次 會議에서 같이 다루자고 하는 말로 理解 할 수 밖에 없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4 - 討議 - 77 ~ 78)</p>	<p>하자고 하고 대단히 번잡하게 했음.</p> <p style="text-align: right;">(4 - 討議 - 61)</p>
<p>會議形式에 대해서 合意를 못보면, 그 會 議가 안열리면 올림픽問題는 討議를 못한다 이 말로 解釋됨.</p> <p style="text-align: right;">(4 - 討議 - 84)</p>	<p>올림픽問題가 급하니까 빨리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도 同感임. 빨리하자는 것임. 그런데 그쪽에서는 바로 이것을 國會代 表會談에서 하는 것이요, 우리는 國會連席 會議에서 하자고 主張해 왔음.</p>
	<p>이 問題 이제 合意되지 않았음. 이것이 또 우리 상봉에서 쫓점이며 核으로 되는 것임. 이것이 定立되지 않고 分離시켜서 한 다는 것은 우리 상봉 討議와 앞으로 國會連 席會議앞에 混亂을 造成하자는 것임.</p> <p>이것 決定안하고 어떤 特定한 問題를 分 離시켜서 또 어느날에 한다 그러면 남들 이 보기에 國會連席會議는 날라가는게 아 닌가, 이렇게 우리에게 質問해도 對答할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4 - 討議 - 82)</p>

우 리 側	北 側
<p>우리가 자꾸 緊迫한 問題를 먼저 짚고 넘어가자, 이런 말을 하는 過程에서 結局은 會談形式이 貴側에서 提議한 實質的인 意味에 있어서는 連席會議的 性格을 갖는 그런 合同會議가 아니면 안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結局은 그렇지 않다고 함. 이렇게 자꾸 서로간에 말이 엇갈려 가지고, 속된 얘기로 서로 우겨대는 것과 같은 이런 對話가 왔다 갔다 하면 안됨.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올림픽問題는 時急한 問題이고, 또 올림픽問題야말로 兩側에서 선뜻 合意만 하면 빨리 解決될 수도 있는 問題임.</p> <p>(4 - 討議 - 87 ~ 88)</p>	<p>合同會議를 열고 거기 參加對象은 이렇게 하고 이런것은 배제하고 保留하고 이렇게 하자 했으니까 여기에 合意하면 내인도 좋고 모레도 좋고 合同會議를 열고 거기에서 올림픽問題를 第1次 議程으로 하자, 第1次 議程으로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別途로 하자는 것과 本質에서 같음. 先次的으로 討議하자는 것과 같음.</p> <p>(4 - 討議 - 83)</p> <p>올림픽問題는 우리가 오늘 合同會議에 관한 問題를 提起했으니까, 그쪽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빨리 召集하고 그날 제일 첫 議程으로서 올림픽問題를 討議하자는 것임.</p> <p>(4 - 討議 - 89)</p>

우 리 측	北 측
<p>이 問題만이라도 20名이면 20名, 代表가 모여서 貴側에서 정말 會談準備가 될수 있는 그 時日을 擇하되, 우리가 「엔트리」마감이 9月2日이니까 그 이전에 한번 雙方 代表間에 相逢을 해서 이 問題를 窺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 에 대해서는 뭔가 意見을 提示해주고 얘기를 하겠다고 해야지, 말로만 團長先生님이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 자꾸 뒤로 넘기면 우리側에서 會議進行의 가닥을 整理할 수가 없음. 그렇게 좀 理解를 해서 그 問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바람.</p>	<p>그쪽에서 政黨・團體問題에 대해서 論駁을 했으므로 이것도 우리가 充分히 考慮했고, 名稱問題 이것도 그쪽에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考慮한거고, 그래서 우리들이 大幅 讓步하는 案을 提案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오늘 적어도 妥結되지 않겠는가 하는 期待를 가지고 나왔으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아무런 進展 없음.</p> <p>이것이 解決됐다면 올림픽問題도 우리가 며칠사이에 緊急議題로 上程하고 능히 그것도 妥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왔음.</p>
<p>(4 - 討議 - 88)</p>	<p>(4 - 討議 - 92)</p>
<p>9月2日까지, 「엔트리」마감까지 어떻게 民族共同體로서의 올림픽에 參與하게 되었으면 하는 希望에서 이렇게 會談해 왔음.</p> <p>그렇다고 해서 貴側이 내놓는 問題를 討議 안할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타이밍」은 우리가 時間的으로 좀 덜 급하고, 9月2日까지 올림픽은 急하다 해서 허겁지겁 이렇게 달려 들었는데 아무리 날짜를 빨리 받는다고 하더라도 客觀的으로</p>	

우 리 側	北 側
<p>이야기 할 때 상당히 어려움. 9月2日까지 本會議을 마치기는, 올림픽問題 이것을 가지고는 이 焦眉의 急務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會談形式에 同意시킨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4 - 討議 - 90)</p> <p>내가 提案을 하겠음. 9月2日 안이라도 올림픽에 관해서 무슨 案이 있으면 언제라도 電話해주면 올거고, 안그러면 좀 連絡을 해서 10月에는 꼭 相逢을 하기바람.</p> <p>그러니까 내가 衷情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그저 이 門이라도 열어 놓아야 되지 않겠나?</p> <p>그래서 날짜에 관해서 만일 9月2日前이라도 이번에 貴側에서 부를 차례니까 혹시 올림픽問題가 급히 되겠다 이런 展望이 보이면 連絡하면 언제든지 달려오고 좀 기다리겠음. 기다리고, 그외에는 우리 事情으로 10月에 들어 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길게 始作되면 宣傳戰으로 오고 감.</p> <p style="text-align: center;">(4 - 討議 - 98 ~ 99)</p>	<p>出路는 지금 열리게 되어 있는데, 解決策은 지금 있는데 오늘 貴側에서는 아무런 양보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종래의 立場을 堅持하면서 다음 會議날짜, 相逢날짜를 10月로 넘기자고 함.</p> <p>다음 相逢날짜를 10月로 넘긴다는 것은 결국 올림픽問題는 날려 보내겠다는 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留意하고 嚴重視하지 않을 수 없음.</p> <p>이걸 위해서 우리가 네번 接觸해서 싸웠는데 이제 와서는 올림픽問題를 버리고 10月로 이 相逢을 넘기자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嚴重視함.</p> <p style="text-align: center;">(4 - 討議 - 105 ~ 106)</p>

우 리 측	北 側
<p>貴側の 合同會議 「아이디어」를 못받아들이니까 10月로 넘기자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4 - 討議 - 108)</p> <p>올림픽問題는 지난번에 제가 무차례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北側이 主張하고 있는 共同主催案이나 또 소위 IOC가 調整案으로 내놓은 分散開催問題들이 이제 物理적으로 時間적으로 다 不可能한 그러한 時點에 와 있기 때문에 民族大和合의 次元에서 北側選手들이 서울올림픽에 參加해 주십사 하는 것이 當初 우리 國會가 北側 最高人民會議에 보낸 書翰에 담겨져 있는 뜻임.</p> <p>그런데 이제 그 便紙를 보낸 이후 벌써 상당한 時日이 걸려서 내일이면 濟州島에 帑에서 떠난 聖火가 到着을 함.</p> <p>그리고 이제 9月 17일까지 불과 20日 前後 남은 이 時點에서 共同主催나 分散開催는 不可能하다는 것이 이제는 누구나 常識적으로 알만한 그러한 狀況에 있다고 보여짐.</p> <p>따라서 最終 選手調整하는 마감일이 9月 2日이라고 하니 그때까지 北側에서 選手</p>	<p>올림픽問題는 대단히 아주 緊迫한 問題로 上程되어 있음.</p> <p>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連席會議와 관련된 形式問題에서 大篇幅양보하면서 會議를 成事시켜서, 國會合同會議라는 이런 形式으로 빨리 成事시켜서 올림픽問題를 첫 議程으로, 緊急議題로 上程시켜서 協議・解決하자고 했음.</p> <p>이제 그쪽에서 올림픽問題는 서울에 오면 된다고 하는데 앞서 對話에서, 앞서 相逢에서 그쪽에서 認定한 것처럼 民族의 利益을 위하고 民族共同의 利益, 和解와 團合을 위해서는 一方的 招請이 좋으나 하는데 대해서 共同으로 하는 것이 훨씬 優越하다는데 대해서 認定을 했음.</p> <p>이 論理대로 한다면 이제는 一方的으로 내놓은 招請이라는 것은 撤回하고 共同主催問題만을 놓고 討論하는 것이 옳음.</p> <p>그러면 解決策도 있고, 國際올림픽委員會</p>

우 리 側	北 側
<p>들을 參加시키고, 지난 사마란치의 最終 仲 裁案대로 入場도 마지막에 主催國의 立場에 서 같이 入場을 하고 이런 모습을 한번 보 여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임.</p>	<p>는 北과 南사이라는 民族이 分裂된 朝鮮의 特殊性을 認定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合意 點을 모색하면 憲章에 관계없이 自己는 응 하겠다고 約束한 바 있으므로 걸리는게 하 나도 없음. 우리는 準備 다 되어 있음.</p>
(4 - 討議 - 104)	(4 - 討議 - 105 ~ 106)
<p>貴側에서, 國際社會를 너무 모름. 올림픽 委員會라는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님. 167 個國, 쿠바도 들고 다 들어 가 있음. 우리 民族이 수십억 人口를 마음 대로 못함. 사마란치가 우리 民族 마음대 로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무리 뒤져 보아도 없음.</p>	<p>이 問題 決定權은 國際올림픽 委員會도 아 니고 다른 어떤 民族委員會도 아닌 우리 朝 鮮民族이 決定權을 가지고 있음. 우리가 合 意하면 다 되는 것임.</p>
<p>그리고 나라가 하는게 아니며 民族이 하 는게 아니고 서울市가 함. 올림픽이라는 것 은 都市가 하는 것이지 民族하고 國家가 하는 것이 아님.</p>	(4 - 討議 - 106)
(4 - 討議 - 106 ~ 107)	
<p>지금 그쪽에서 讓步를 하면 되는데 양보 할 可能性도 없고, 일이 40年 解決 안된 문제가 上程이 되었으니까, 10月에 나시</p>	<p>어째서 올림픽問題 重大하고 緊急한 問題 라고 자꾸 말하면서, 이제와서 그걸 南朝鮮 內部事情이 복잡하고 바쁘기 때문에 10月</p>

우 리 側	北 側
<p>웃고 만나고 올림픽問題에 무슨 具體性이 있으면 오늘 午後도 좋다 이런 立場임.</p> <p>(4 - 討議 - 109)</p> <p>現實的으로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데, 안 되는줄 뻔히 알면서도 來日하자 29日하자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고 봄.</p> <p>서로 研究하고 또 自省하고 그래서 10月에 또 만나자는 것임.</p> <p>우리는 올림픽을 치러야 됴. 다 뻔한 얘기 가지고 자꾸 그러지 않는게 좋겠음.</p> <p>(4 - 討議 - 110)</p>	<p>로 넘기자 이렇게 나오는가?</p> <p>(4 - 討議 - 109)</p>
<p>準備接觸 다섯사람 만나서도 議題採擇, 會談形式, 實務節次도 合意를 못하는 이 國인데 이 올림픽을 가지고, 지금 貴側에서 얘기하는 근 千名에 가까운 國會議員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意見을 收斂해가지고 決定하는 그러한 節次로 한다하는 것은 사실상 不可能함.</p> <p>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픽問題가 妥結될 可能性이 없다고 이렇게 본다면 會談形式이라든지 여러가지 方式으로 봐서, 그렇다</p>	<p>첫째는 오늘 4次 接觸으로서 올림픽問題 解決하기 위한 努力에서 물러나자고 하는걸로 우리 認定해도 좋은가 이것 하나 하고, 둘째는 貴側에서 오늘 接觸으로 이것을 中止하고 10月로 넘기자고 하는 이것은 外國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外國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民族 共同의 重大事를 뒤로 미루자, 이렇게 理解해도 좋은가 두가지 좀 對答해 주기 바람.</p>

우 리 側	北 側
<p>며는 나름대로 우리한테 이 民族祭典의 하나인 이 올림픽을 盛大하게 또 그리고 外國에서 온 손님들을 정말 정중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時間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10月달로 넘겨서 그동안 또 우리가 統一問題라든가 不可侵問題 眞摯하게 4黨이 또 協議를 하는 그런 時間的 餘裕도 갖고, 해가지고 새로운 姿勢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提議를 한것임.</p>	<p>(4 - 討議 - 113)</p>
<p>(4 - 討議 - 112 ~ 113)</p>	
<p>분명하게 우리 首席代表께서 「올림픽」을 現實적으로 주어진 與件을 勘案을 하면서 成事시킬 수 있는 進一步된 方案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內容을 가지고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來日도 좋고 심지어 오늘 午後에라도 討議를 하자 언제든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p>	<p>다음 5次 接觸을 우리들이 8月中에 하자고 繼續 말했는데도 그쪽에서는 이러저러한 事情으로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디 다른 方法이 없음. 그러나 어쨌든 「올림픽」은 重大한 問題, 緊要한 問題임.</p>
<p>또 그리고 우리側 立場에서 볼것 같으면 代表先生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月2日이 「엔트리」마감임. 그 以前에 만나야 됴.</p>	<p>지금도 이 問題는 解決되야 된다는 것 強調함. 그러나 이것으로 해서 5次 相逢이 늦어지는 것으로 해서 올림픽을 난려 보낸 問題에 대해서는 아마 貴側이 責任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함. 이걸 明白히 밝힘.</p>
<p>그러나 이것이 成事が 안될 그러한 立場에서 우리가 論爭만 하고 여기에서 合意點</p>	<p>(4 - 討議 - 115)</p>

우 리 側	北 側
<p>을 發見 못할 것이 뻔하다면 9月2日 以前에 만나도 效果가 없다, 그런 이야기임.</p> <p style="text-align: center;">(4 - 討議 - 114)</p> <p>우리 民族의 統一問題라든지 不可侵問題 이런 重大한 問題가 정말 外國손님을 맞이 해가지고서 「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한 그 問題보다는 가벼운 問題냐, 이런 말인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일이 없음.</p> <p>다 여러가지가 전부 重要함. 民族問題 더욱 重要하다는 것 잘 알고 있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40餘年 동안 이 問題를 다루어 왔음.</p> <p>團長先生께서도 엇그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內部도 많이 달라졌고 國會도 달라졌고 周邊情勢도 달라졌음.</p> <p>이런 것을 收斂해서 또 한달쯤 서로간 兩側 意見을 좀 더 整理를 해가지고 10월에 만나서, 重要한 問題이기 때문에 더욱 더 眞摯하게 討論을 하기 위해서 時間을 갖자는건 큰 잘못이 아님.</p> <p style="text-align: center;">(4 - 討議 - 114 ~ 115)</p>	

다. 南北 人的・物的交流과 協力問題 (赤十字・經濟會談 再開問題)

우 리 측	北 측
<p>南北國會會談에서 南北間의 人的・物的 交流과 協力을 促進하는 問題를 다루는 것 은 民族同質性 回復과 共同繁榮의 次元에 서는 물론 南北間의 緊張의 根源이 되고 있 는 不信을 解消하기 위해서도 切實한 것임.</p> <p>지금과 같이 南北 사이에 뿌리깊은 不信 과 誤解가 있고 緊張이 持續되고 있는 狀 況下에서는 우리 民族이 平和롭게 살 수 없 으며 平和統一의 길을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p> <p>南北間의 人的・物的 交流과 協力は 相 互間의 信賴를 回復시키고 緊張을 解消하 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社會・文化・經濟分 野에서 共同體를 形成, 民族的 紐帶感을 強化함으로써 統一의 기틀을 굳건히 다시 게 될 것임.</p> <p>이를 위해 南北間에 政治人, 經濟人, 言 論人, 宗敎人, 文化・藝術人, 體育人, 學者 및 學生들의 交流가 積極 推進되어야 하며, 海外同胞들의 南北 自由往來를 위한 門戶가 開放되어야 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30 ~ 31)</p>	<p>交流問題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전부터 제기했습니까? 歷史적으로 270餘회를 제 기했음.</p> <p>北南會談, 赤十字會談・經濟會談 이것들 이 어떻게 決裂되었습니까? 바로 對決의 產物으로써 그렇게 되었음. 對決의 犧牲物로 써 그렇게 되었음.</p> <p>우리 이제 다시 國會會談을 열어서 어떻 게 하나 緩和의 길에서 이것이 열리면 赤 十字會談이나 經濟會談도 자연히 열리게 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1 - 討議 - 66)</p>

우 리 側	北 側
<p>世界的 規模로 벌어지고 있는 發展競爭 속에서 우리 民族이 先進民族으로서의 面貌를 갖추고 南北 모든 同胞의 福祉와 삶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南北間의 交易과 經濟協力을 통해 相扶相助하면서 統一로 나아가는 길을 開拓해야 할 것임.</p> <p>變化와 發展을 거듭하고 있는 世界的인 趨勢에 맞추어 南과 北도 서울·平壤에 貿易代表部를 設置하고 民族內部的 經濟協力 時代를 열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 國會가 政府當局에 권고를 해야함.</p> <p>이를 위해서 우리 國會議員들이 중단된 南北經濟會談의 再開에 應당 관심을 돌려야 하리라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1 - 基調 - 31)</p> <p>우리 國會議員들이 中斷된 赤十字會談의 再開를 促求하는데도 힘을 쏟아야 함.</p> <p>血肉相逢의 날을 손꼽아 헤아리던 年老한 離散家族들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피맺힌 恨을 풀지 못하고 幽明을 달리해가고 있는 現實을 直視할 때 南北離散家族問題 解決은 한시도 國會議員으로서 遲滯할</p>	

우 리 側	北 側
<p>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p> <p>理念과 體制가 다른 나라사이에도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유독 우리 同胞만이 分斷의 障壁을 理由로 끊어진 血脈을 잇지 못하고 相互間에 안부편지 한장 주고 받을 수 없는 오늘의 이 悲劇的인 狀況은 시급히 우리 손으로 克服되어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1 - 基調 - 31)</p> <p>人的・物的交流問題도 역시 「促進하는 問題」임.</p> <p>우리가 政府當局에 그러한 交流를 빨리 하도록 促進해야 되는 데 우리로서는 우리 政府에 대해서 平壤과 서울에 相互 經濟協力을 도모하는, 이러한 代表部, 이름은 뭐든지 좋음.</p> <p>南北間에 人的・物的交流와 協力을 促求하는 問題,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經濟會談의 再開를 促求하는 問題, 그리고 南北頂上會談의 開催를 勸告하는 問題, 우리가 大統領한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음. 우리가 勸告하는 問題임.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1 - 討議 - 39)</p>	<p>人的・物的交流問題, 이게 勸告를 하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人的・物的交流와 관련되어서 우리 國會連席會議나 國會代表會談이 그 어떤 決定, 規定的인, 規制的인 이러한 決定을 採擇하자는 것인가?</p> <p style="text-align: center;">(1 - 討議 - 37)</p>

우 리 측	北 側
<p>우리 民族이 40여년동안 너무 오랫동안 分斷돼온 과정에서 주어졌던 同質性의 喪失 憂慮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意識의 次元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양쪽이 同感인 것 같음.</p> <p>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再生시키고 또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不可侵宣言을 한번 하는 것 보다는 더욱 더 중요한 것이 交流問題인데 이것은 統一國家를 만들어야 한다는 民族的 念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p> <p style="text-align: center;">(1 - 討議 - 77)</p> <p>人的・物的交流 이거야 말로 서로간에 있었던 많은 誤解, 누적된 誤解를 씻고 그리고 平和統一로 가는 길에 있어서 焦眉의 課題일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貴側에서 쓰시는 中核的인 그런 問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問題를 議題로 다루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릴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46)</p>	<p>交流問題라든지, 再開問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우리가 제기한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이 발표되고, 올림픽과 같은 문제가 民族共同의 利益에 맞게 풀려진다면, 아수 스스로 자연히 풀릴 수 있는 문제들임.</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31)</p> <p>그쪽에서 人的・物的 交流問題를 提起했는데, 조금 거기에 不合理的한 點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人的・物的이라고 하기 보다는 各方面에서 다 念頭に 두어서, 南北 사이의 多方面的인 協力과 交流를 實現하는 問題, 이렇게 하면 좀더 幅이 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함.</p> <p>經濟만이 아니라 文化도 念頭に 두는 것이고 나아가서 政治도 念頭に 두는 것이고 人士交流도 念頭に 두는 것이고, 이 點에 있어서 저희들이 세번째 協力問題는 그 쪽에서 提起한 問題를 考慮해 넣은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55 ~ 56)</p>

우 리 側	北 側
<p>수백 만의 離散家族들이 지금 울고 있음. 수많은 學生들이 지금도 서로 交流할 것을, 질서정연하게 交流할 것을 원하고 있음. 宗敎人도 그렇고, 體育人도 그렇고, 이런 것을 다른 問題하고 걸부시켜서 條件附로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상호간의 立場을 한번더 깊이 생각해야 됨.</p> <p>(3 - 基調 - 27)</p>	<p>合作・交流問題도 어제 그쪽에서 최종 애기된 것은 南北사이에 多方面的인 協力과 交流問題안에 既存對話 再開問題도 包含된 걸로 하고 여기에 合意한 걸로 이렇게 애기된 건데, 오늘 또다시 人的交流, 南北赤十字會談과 經濟會談 再開를 包含한 人的・物的 交流問題, 協力問題 이렇게 對答 하나까 대단히 더 번잡해졌음.</p> <p>(3 - 討議 - 33)</p> <p>離散家族問題 아주 귀중함. 그것을 풀어야 됨.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不可侵問題와 같은 緊張緩和問題와 분리시켜서 이것이 解決되기 전에 離散家族問題 풀자 이걸 안 됨.</p> <p>(3 - 討議 - 35)</p> <p>人的・物的 交流問題, 이것은 雙方이 多方面的 協力과 交流問題로 合意해놓고 다시 또 後退해 가지고 人的・物的 交流 問題로 하자고 하지 않았는가?</p> <p>會談再開問題도 人的・物的 交流問題와 함께 多方面的 協力과 交流안에 포함시키</p>

우 리 側	北 側
<p>우리 政治人들이 南北關係 改善에 寄與하고 奉仕하기 위해서는 當面한 懸案問題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임.</p> <p>그것은 지난 43년동안 南北間에 쌓이고 쌓인 두꺼운 不信의 障壁을 허물고 信賴를 回復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既存對話의 再開 問題를 包含하여 南北間에 人的・物的 交流와 協力이 하루속히 實現되어야 함.</p> <p>東西가 문을 열고 交流・協力하면서 和解를 圖謀하고 있고 잘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사이에서도 協力を 활발히 展開하고 있는 歷史的 趨勢속에서, 우리 民族만이 斷絶의 壁을 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p> <p>우리는 南北離散家族을 包含한 겨레의 懇切한 所望과 期待가 담겨진 이 交流・協力</p>	<p>자고 양해도 하고 우리하고 合意도 해놓고, 3次에 와서는 赤十字會談과 經濟會談을 비롯한 人的・物的 交流 協力問題라고 다시 또 들고 나왔음.</p> <p>(4 - 討議 - 62)</p> <p>赤十字會談, 經濟會談 再開問題는 이미 兩側이 南北사이의 多方面的 協力과 交流를 실시할데 대한 問題안에 包含되어 있는 것으로 양해한 조건에서 구태여 既存會談 再開問題를 明文化하지 않고 다만 南北사이의 多方面的 協力과 交流를 實施할데 대한 問題로 정립하면 되리라고 인정함.</p> <p>(5 - 基調 - 22)</p>

우 리 측	北 측
<p>問題를 그리고 世界 사람들도 바라는 이 緊要한 問題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함.</p>	
<p>(5 - 基調 - 31 ~ 32)</p>	
<p>貴側도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經濟會談의 再開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으며 議題속에 『內的으로 包含되어 있는 것으로 諒解』한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분명히 밝히자는 우리側의 主張에 대해서 反對할 理由가 없다고 생각함.</p>	<p>北南사이에 多方面的 協力과 交流를 실시할데 대한 問題를 議題로 定立하면 貴側에서 주장하고 있는 既存對話 再開問題, 人的・物的 交流問題 등을 다 包括적으로 解決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合意할 수 있음.</p>
<p>(6 - 基調 - 31 ~ 32)</p>	<p>(6 - 基調 - 31 ~ 32)</p>
<p>이것은 또한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이 進行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經濟會談이 再開되지 못하고 있는 狀況에서 南北의 1千萬 離散家族들과 南北間의 物資交流와 經濟協力을 渴望하는 民族의 輿望에 副應하기 위해서도 必要하다고 봄. 여러가지 會談을 자꾸 새로하고 새로하기 보다는 있는 會談이라도 結實을 맺도록 努力해야 될 줄로 생각함.</p>	<p>人的・物的交流와 再開問題를 하나로 한다는 것 그것도 잘 定立되지 않은건데, 왜냐하면 人的・物的이라는게 그것이 科學的이 못됨.</p> <p>우리 政治會談에서 하나의 議題로 設定하는건데 그게 잘 政治化되지 않고 學者가 科學理論 論文에 쓴 것 같은 그런 人的・物的交流라는게 표현이 우선 맞지 않고, 人的・物的交流다 하면 그 制限性이 있음.</p>
<p>(6 - 基調 - 18)</p>	
	<p>北과 南사이에 多方面的인 交流・協력이 라는 것은 政治나 經濟나 軍事나 文化나 外</p>

우 리 側	北 側
<p>우리側에서 내놓은 議題로서는 첫번째 議題이고 貴側에서 내놓은 것은 둘째번 의제인데, 말씀하신 多方面的 交流 그 問題, 그</p>	<p> 交나 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교류한다는 뜻임. 그걸 그쪽에서 人的·物的 交流라고 했는데 例하면 우리 第3國에 나가서 國際舞臺라든가 어떤 第3國에 나가서 北과 南이 어떤 會議에 나가서 共同步調를 맞추자, 그런 문제 가지고 協力한다 할때 그럴 때 그걸 人的 交流라고 하겠는가? 物的 交流라고 하겠는가? (6 - 討議 - 87 ~ 88) 例를 들면 北과 南사이에 巧藝團 交流한다, 우리 巧藝團이 서울에 간다 할때 巧藝團이란 「內容」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人的 交流라고 하겠는가? 具體的으로 보면 그게 藝術交流지, 그게 人的 交流는 아님. 그래서 우리가 包括的으로 多方面的 協力·交流하면 그것이 다 包括된다는 것임. (6 - 討議 - 88) 多方面的 協力과 交流라는 그 안에 있다는 것은 호상이 인정했으니까 서로 그 제안에 中斷된 赤十字와 經濟會談 再開問 </p>

우 리 측	北 측
<p>앞에 우리들이 내놓기는 南北赤十字問題하고 經濟會談問題, 既存會談再開임.</p>	<p>題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記錄에 처리하도록 함. 우리 담보함.</p>
<p>이것을 말하자면 議題에나 明示를 해주는 것이 그 문제가 일단 中斷된 것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냈은 것임.</p> <p>(6 - 討議 - 92)</p>	<p>(6 - 討議 - 93)</p>
<p>우리측은 貴側의 意思를 反映하여 議題 ①項을 「南北赤十字會談・南北經濟會談의 再開問題를 포함한 南北間의 多角的인 交流・協力問題」로 할 것을 修正 提議하는 바임.</p>	<p>赤十字會談과 經濟會談再開問題를 議題안에 明記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問題와 關係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놓은 「北南사이의 多方面的 協力和 交流를 實施할데 대한 問題」에 包含되어 있는 것이고 貴側도 이 사실에 留意하고 이미 2次相逢때 撤回하였던 問題이며 지난번 第6次相逢때에는 우리측이 내놓은 議題案에 그러한 內容이 包含되어 있다는 것을 記錄으로 남기는 方法으로 處理하자고 한데 대하여 貴側도 基本上 諒解를 表示한 문제이므로 우리 案대로 確定하면 되리라고 생각함.</p>
<p>오늘날 南北關係에서 가장 切迫하고 重要한 課業은 相互 信賴를 回復하는데 있으며 그것은 多角的인 交流・協力を 통해 손쉽게 實現될 수 있는 것임.</p>	<p>(7 - 基調 - 21)</p>
<p>더우기 1千萬 南北離散家族의 再會를 위한 南北赤十字會談과 物資交流 및 經濟協力を 위한 南北經濟會談의 再開는 그 自體가 信賴回復의 重要한 徵表임.</p>	<p>(7 - 基調 - 21)</p>
<p>그러기 때문에 國會會談 議題에 이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南北間 信賴回復에 대</p>	

우 리 側	北 側
<p>한 雙方 國會議員들의 強力한 決意를 共同으로 闡明하고 그 길을 터주자는 것으로서, 우리의 接觸을 지켜보는 온 겨레의 輿望에도 全的으로 符合되는 일인 것임.</p> <p>(7 - 基調 - 32)</p>	

라. 南北不可侵 宣言問題

우 리 측	北 측
<p>우리가 南北國會會談 議題로서 南北當局 間的 不可侵協定締結을 勸告하는 問題를 提案한 것은 南北間的 交流와 協力을 통한 信賴造成과 함께 緊張緩和와 戰爭再發 防止를 위한 實效性있는 裝置를 하루빨리 마련 하자는데 根本趣旨가 있음. 宣言보다는 協定이 더 법적구속력이 強함. 協定이 더 안심될 수 있는 裝置임.</p>	<p>平和에 대하여 말들은 많이 되고 있으나 北과 南은 의연히 軍事分界線을 사이에 두고 방대한 무력이 팽팽하게 맞서 있으며 매우 불안정한 오늘의 정세는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戰爭의 불집이 터질수 있는 극히 위험한 界線에 이르고 있음.</p>
<p>(1 - 基調 - 32)</p>	<p>戰爭은 北과 南의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음. 누가 누구를 먹을수도 없고 먹히울수 없는 戰爭에서 다같이 참담한 피해자로 되지 않기 위하여, 民族을 파멸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의 方途를 모색하여야 함.</p>
<p>우리는 南北國會會談에서 南北不可侵에 관한 必要성과 意義를 確認하고, 眞摯한 討議를 거쳐 具體的이고 實質的인 問題들을 雙方 當局에 맡겨 協定을 締結토록 促求하는 것이 우리 國會議員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함.</p>	<p>실로 不可侵問題는 통일도상에 나서는 焦眉의 民族重大事이며 일순의 유예도 허용치 않는 긴절한 과제임.</p>
<p>이것은 貴側의 意向에도 맞고 雙方 國會의 權能과도 符合되는 것이라고 생각함.</p>	<p>(1 - 基調 - 18)</p>
<p>(1 - 基調 - 33)</p>	<p>不可侵問題는 戰爭이나 平和나 하는 아주 重要한 問題고 이것이 民族의 運命과 關聯되고 全民族의 死活的 관심사가 됨.</p>
<p>굳이 不可侵宣言이다, 不可侵勸告다, 勸誘다, 建議다 이런 名稱가지고 오랜 時間을 끌 必要가 없음.</p>	

우 리 측	北 側
<p>統一의 基盤造成, 緊張緩和,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하기 위해서는 피차에 不可侵을 해야되겠다, 서로 총부리를 마주대는 대치 상태는 이제는 끝장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不可侵의 이런 問題들을 어떻게 우리가 종결지을 것이냐 하는 不可侵問題, 包括的으로 그러면 이 議題 自體는 너무너무 훌륭한 議題라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討議 - 34)</p>	<p style="text-align: right;">(1 - 討議 - 44)</p> <p>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發表 問題는 北南關係 全盤, 統一問題, 統一途上에 나선 모든 문제해결 하는데 아주 中核的인 것임. 突破口를 열어나가는 그런 문제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것은 일단 뒤로 미루자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1 - 討議 - 66)</p>
<p>南北間에 不信이 그대로 있고 여러분의 표현처럼 對決狀態가 그대로 있으면서 不可侵宣言했다고 해서 統一이 내일 모레 온다고 생각하는가?</p> <p>政治人들이 모여서 宣言하는 것이 곧 統一과 직결된다는 생각은 合理的인 생각이 아니라고 봄.</p> <p style="text-align: right;">(1 - 討議 - 69)</p>	
<p>不可侵, 대단히 重要的 問題임. 빨리 이 문제 解決해야 함.</p> <p>우리는 戰爭의 참화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더욱 더 이 不可侵問題에 대해서는 關心이</p>	<p>그쪽에서 提起한 문제중에서 不可侵에 관한 勸告다, 이런 表現을 쓰셨는데 그것은 불가침에 대한 것을 인정하신 셈임. 그러나 國會가 勸告하나만 해서는 안될 것</p>

우 리 측	北 측
<p>높음.</p> <p>그러나 우리는 1974 年度에 이 不可侵條約을 체결하자는 案을 내놓은 이후 수십번 이 不可侵協定 체결하라고 促求해왔고 기회 있을 때마다 要求해 왔음.</p> <p>특히 지난 6月 10日 UN軍縮特別總會에서 또 한번 우리 外務部長官이 제시한 바 있음.</p> <p>이와같은 절차를 통해서 責任있는 當局 쪽끼리 이 問題를 解決해 나가야 할 생각은 안하고, 國會쪽에서 이 問題를 계속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85 年度의 예비접촉 때와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움.</p> <p style="text-align: center;">(1 - 討議 - 69~70)</p> <p>不可侵問題라는 것은 말로써 하는 宣言이라는 것은 별로 重要하지 않음.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協定이나 條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그것이 보다 實質的이고 重要한 問題임.</p> <p>對決과 不信이 있다고 하면 더욱더 法的拘束力이 있는 制度的 方法을 택해야 할 것 아니냐, 우리는 戰爭防止를 위해서 다시</p>	<p>같음.</p> <p>議題는 勸告라고 하기 보다는 폭을 넓혀서 國會가 마땅히 자기 權限을 行使해서 全人民들에게 全體 우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不可侵의 共同宣言을 하나 만들어 發表하도록 의제를 定립하자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1 - 討議 - 67)</p>

우 리 側	北 側
<p>再侵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장치가 必要함.</p> <p>우리 政治人들이 모여서 責任있고 具體的 方案을 가지고 있는 政府當局에 勸告함으로써 조속한 時日內에 協定을 맺어 이땅에 平和를 정착시키자는 것임. 「勸告를 하는 問題」를 우리 政治人들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議題로 삼자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1 - 討議 - 70)</p>	
<p>不可侵과 關聯하여 宣言이나 勸告 등의 말을 빼고 「南北不可侵 問題」로 하자는 것은 雙方의 立場을 공히 反映하면서 雙方 國會에서 할 수 있는 일을 最大限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側의 調整案에 貴側도 同意를 表示하리라고 믿음.</p> <p style="text-align: center;">(2 - 基調 - 16)</p>	<p>의제 세번째 「不可侵 問題」라 이렇게 요약한 것은 권고를 撤回하고 우리가 提起한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發表問題를 기본적으로 토론하자고 염두에 둔 것인가?</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23)</p>
<p>그 問題 자체를 國會 本會談에서 토론하는 것임.</p> <p>우리 國會가 歷史上 宣言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적이 없음. 우리 國會 歷史에는 慣例도 없고 우리 憲法에도 그것이 없</p>	<p>나라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平和를 保障하는 것은 全民族의 死活的 利益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서 응당 國會連席會議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중대한 문제임.</p> <p>우리가 北南 國會連席會議에서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발표하는 문제를 討議·解</p>

우 리 側	北 側
<p>으니까 우리가 合意文으로 한다, 남북국회 간에 이러한 合意를 하였는데 우리 國會에 서 萬場一致로 처리하자, 그런 形態로 하자 는 것임. 올림픽 參加냐, 共同主催냐, 이 문제도 本會談에서 하듯이 不可侵問題도 國會 本會談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것임.</p> <p>(2 - 討議 - 23)</p>	<p>決할데 대해서 제의한 것은 우리 人民의 念願으로 보나, 우리 國會의 使命과 機能 으로 보나 전적으로 아주 正當한 것임.</p> <p>國民의 의사를 代表하고 있는 立法機關 인 國會에서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발 표하게 되면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北과 南 사이의 不信과 對決을 끝장내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平和統一의 새 로운 劃期的 局面을 열어놓게 될것임.</p> <p>(2 - 基調 - 29)</p>
<p>우리는 1974 年度 부터 꾸준히 南北韓不 可侵協定에 대해서 必要性을 力說해 왔음.</p> <p>貴側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主張들을 現實化시키자 하면 지금도 만나서 南北韓不 可侵問題에 關해서 共同으로 討議를 해 보 자는 것임. 옛날 이야기만 할것이 아니라 새로운 代案을 찾자고 모인 것임. 새로운 말씀을 해주기 바람.</p> <p>(2 - 討議 - 78)</p>	<p>議題를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發 表하는 問題』로 設定한 것은 本會談에 가 서 討議해야 할 內容을 明白히, 鮮明하게 하기 위한 것임.</p> <p>本會談에 가서는 勸告요 뭐요 이르기 보 다는 分明히 우리가 提案한 대로 「不可侵 에 관한 共同宣言을 發表하는 問題」는 豫 備接觸에서 確定하자는 것임.</p>
<p>不可侵協定締結도 우리들이 問題提起를 했을 경우 이것이 내일 모레 本會談 한다 고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님. 두고두고 오래 갈것임. 그래서 타협이 필요한 것임. 우리 들이 協定締結의 草案이 되었는지 基礎가</p>	<p>國會가 이만한 정도는 해야 자기들 使命 을 다하는 것임.</p> <p>(2 - 討議 - 55)</p>

우 리 側	北 側
<p>되었는지 앞으로 提案을 할것임. 앞으로 그러면 그것 놓고 여러분이 研究를 해가지고 이견 되겠다, 안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討論이 되고 協議가 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議題를 두가지 問題로 하자, 不可侵宣言問題하고 不可侵協定締結問題하고 이렇게 하자는 말임.</p> <p>(2 - 討議 - 78~79)</p>	<p>우리는 지난 73년 3월 15일 조전위인회 2차회의에서 軍備競争 終熄하자, 그리고 軍備를 縮小하자, 可能하면 10萬以下까지 하자, 그리고 外國軍隊 撤去시키자, 그리고 外部로부터 武器를 運입하지 말자, 이런걸 內容으로해서 平和協定을 맺자, 이런 5個項目을 提案을 한바 있으나 그쪽에서 이걸 不信이 있어가지고 못하겠다면서 기절했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案에 對處해서 나온게 바로 不可侵條約인데, 그때는 벌써 事實上 對話가 결렬되었을때 우리에게 正式으로 提起한게 아니고 不可侵協定이란 그쪽에서 空中에 대고 提起한 것임. 內容인 즉 報道를 통해서 나온걸 보면 다른게 아니고 그저 호상 무력공격하지 않는다, 이게 거의 全部인것 같음.</p> <p>그후에 조금 더 補充해 나왔다는게 停戰協定을 遵守한다든가 非武裝地帶의 非武裝化라든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程度로 우리들은 알고 있음.</p> <p>(2 - 討議 - 76~77)</p> <p>貴側이 지난번相逢때 이른바 修正案이</p>

우 리 側	北 側
	<p>라는 것을 내 놓으면서 不可侵에 대한 議題를 南北當局에 不可侵協定締結을 勸告하는 問題와 우리側이 제기한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發表問題를 다같이 議題로 하자고 한데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論點을 議題에 包含시키자고 하는 것으로서 問題討議에 難關이나 造成하는 結果를 가져온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3 - 基調 - 17)</p> <p>권위있는 雙方 國會가 不可侵에 관한 問題를 論議하면서 그지 當局에 不可侵協定을 締結하라고 勸告만 하고 그와 關聯한 自己立場과 主張을 밝히지 않는 것은 나라의 平和保障問題에 대한 國會의 重大한 責任을 回避하는 것으로 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3 - 基調 - 17~18)</p> <p>貴側 當局이 지난 時期에 提起하였던 不可侵協定에 대해서 말한다면, 실지로 平和를 擔보할 수 없는 眞말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協定이나 條約이라는 表現自體가 우리 民族 内部에서는 타당치 않는 것임.</p>

우 리 側	北 側
	<p style="text-align: right;">(3 - 基調 - 18)</p> <p>貴側이 不可侵問題와 관련된 議題에 包 숨시키자고 하는 勸告問題는 우리側이 내 놓은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發表問題를 議題로 採擇하면, 저절로 解決되는 問題임.</p> <p>貴側도 잘 알고 있는 바와같이 지난 7月 21日字 우리側 便紙에 同封해 보낸 北南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草案에는 일곱개 項으로 된 基本內容과 함께 그것을 具體化 해서 不可侵宣言을 採擇할 것을 當局에 委 任한다는 것이 明白히 밝혀져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3 - 基調 - 18)</p> <p>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發表問題를 討 議議題로 하면 貴側이 主張하는 雙方當局 의 不可侵協定締結을 勸告하는 問題가 自然 히 解決되게 될 것임. 그러므로 우리는 不可侵宣言을 採擇할데 대한 問題가 응당 議題로 定立되어야 한다고 認定함.</p> <p style="text-align: right;">(3 - 基調 - 19)</p> <p>不可侵問題도 修正한 것이 없음. 어제</p>

우 리 側	北 側
	<p>그저께 충분히 이야기된 바와같이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不可侵協定에 관한 어떤 勸告라든지 하는 것은 內容上 妥當하지 못하므로 議程으로 設定하지 말아야 함. 그걸 撤回해야 修正이지 包括적인 議程안에 包含시킨다든가 또 分離시킨다든가 이런 方式으로는 修正이 아님.</p> <p style="text-align: right;">(3 - 討議 - 34)</p> <p>不可侵問題야 올림픽問題와 또 성격이 다름. 올림픽문제는 그쪽에서 애당초 서울 초청문제를 제기했으니까, 議程을 제기할 수 있고 우리도 協議할 수 있음.</p> <p>그러나 不可侵問題야, 그것을 꼭 對立시켜서 우리가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發表問題를 提起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꼭 대치시켜서 하나를 내올 必要는 없다는 것임.</p> <p>그런데 굳이 거기서 不可侵協定을 권고하는 문제를 討論하자고 대치시킨 것은 難關造成임.</p> <p>왜냐하면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草案을 우리가 보낸 걸 研究했으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貴側이 不可侵協定締結을 勸告하자</p>

우 리 側	北 側
<p>그쪽에서 알고 있는 協定하고 우리 協定하고 같은것 아닌지도 모르지 않습니까?</p> <p>우리는 草案도 만나왔다고 하는데 왜 미리 짐작을 하는지 알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4 - 討議 - 81)</p> <p>貴側이 「南北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發表 問題」와 關聯하여 이것이 지난 7月 20日附로 우리側에 보내온 바 있는 共同宣言</p>	<p>는 내용이 그 안에 다 있음.</p> <p>그래서 구태여 둘을 竝立시킬 必要도 없는데 굳이 병립시키고, 그걸 또 論駁당하니까 不可侵 問題를 一般化하자고 하고, 이렇게 되었음.</p> <p style="text-align: center;">(4 - 討議 - 61~62)</p> <p>不可侵條約締結이요 뭐 勸告요 하는 것은 그만두고 그저 不可侵共同宣言 發表問題로 이렇게 하나로 하는 것이 좋겠음.</p> <p>不可侵共同發表라는것이 이것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共同의 것임.</p> <p>그 案에 貴側에서 말하는 不可侵, 이른바 協定에 包含된다고 하는 내용이 다 있음.</p> <p>그쪽에서 염두에 둔다는것, 不可侵協定 草案이 무엇인가? 제가 質問하니까 對答을 못하는데 過去에 내놓았던 不可侵締結은 그만둘 것을 提起함.</p> <p style="text-align: center;">(4 - 討議 - 80~81)</p> <p>緩和와 平和가 온겨레의 念願이고 시대의 요청인데 인민들의 의사와 시대의 요청을 國政에 반영해야 할 國會가 不可侵問題에</p>

우 리 側	北 側
<p>草案을 協議・解決할 것을 前提로 한 概念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準備接觸이 갖는 任務의 領域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함.</p> <p>우리는 不可侵問題에 관해서 內容 討議는 本會談에서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봄.</p> <p>따라서 準備接觸에서 不可侵의 內容과 性格까지 一方的으로 規制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p> <p>(5 - 基調 - 28)</p>	<p>대해 자기의 責任에서 회피하여 단순히 당국에 勸告나 하는 것으로 使命을 다하려는 것은 너무나 無責任한 일이 아닐 수 없음.</p> <p>(5 - 討議 - 17~18)</p> <p>문제가 民族의 運命과 관련된 중대한 問題로 되며 따라서 國會와 같은 權威있는 政治機關들이 응당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原則的 立場으로부터 出發한 것임.</p>
<p>우리가 議題 ②項으로서 提示한 南北不可侵問題는 그동안의 雙方 主張을 모두 包括한 妥協的인 案임.</p> <p>이땅의 緊張緩和와 戰爭防止 그리고 平和定着을 바라는 우리 國會議員들이 南北間 不可侵의 必要性和 決意를 内外에 闡明하고 雙方 當局에게 不可侵에 관한 具體的 合意와 徹底한 履行을 勸告하는 것은 重要한 責務의 하나라고 생각함.</p> <p>(5 - 基調 - 32)</p>	<p>우리가 내놓은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發表問題에는 不可侵宣言採擇建議問題가 包含되어 있으므로 不可侵 勸告問題를 따로 獨立議題로 설정할 必要가 없을 것임.</p> <p>(5 - 討議 - 22)</p> <p>우리가 여기서 採擇하자는 것은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國會 合同會議에서 發表하자는 건데, 不可侵에 관한 하나의 必要性和 意義를 우리가 定立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行政當局 이라든가 저쪽에서 採擇하게 될 不可侵의 하나의 原則이라고 할지, 그 方向이라고 할지, 그 정도를 宣言에 우</p>

우 리 側	北 側
<p>우리가 지금 豫備會談을 하고 있는데 이 豫備接觸의 性格을 分明히 알고 그 範疇 안에서 우리는 論議를 해야 됨. 우리가 委任된 部分이 있지 않는가.</p> <p>그런 大前提 밑에서 먼저 不可侵에 관한 問題를 말했는데 不可侵問題 우리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取扱하지 말자는 主張은 아님.</p> <p>問題는 우리가 그동안에 늘 主張해온 이야기를 한번 想起시키면 사실 不可侵問題는 누가 協定하느냐? 누가 約束하느냐? 또 어떤 方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內容이 달라질 수 있음.</p> <p>그래서 우리 國會會談에서는 國會權能과 國會機能에 맞는 南北不可侵問題를 取扱하자, 늘 우리 이렇게 主張을 해왔음. 전단장 말씀이 우리 이야기하고 다른 바가 하나도 없음.</p> <p>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냐? 南北韓 國會代表者들이 모여 가지고</p>	<p>리가 反映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임. (5 - 討議 - 24)</p> <p>議題問題에서 아까 發言한 것 보면 가령 不可侵問題에서 不可侵問題 內容이야 뭐 얘기 하겠냐 하는 얘기가 있음.</p> <p>不可侵問題는 다른 問題와 달리 예를 들어 人的・物的的交流다, 多方面的인 協力과 交流다, 이 問題는 明白함. 그래서 구태여 그것 뭐 確認할 필요도 없고. 頂上會談이다, 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明白함. 그래서 구태여 그 內容이 어떤 것이냐 무슨 確認할 필요는 없음.</p> <p>그러나 不可侵問題는 여기 세가지 問題가 있음. 첫째는 「不可侵」이라는 그 形式을, 表現形式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性格이 달라짐. 가령 예를 들면 그쪽에서 「不可侵協定締結이다」 이런 式으로 表現되면 그것은 벌써 性質이 달라진다. 根本은 民族國家들 사이에서 하는 그런 냄새가 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表現形式에서 달리하자라는 것임.</p> <p>두번째는 누가 不可侵하는데 우리 國會</p>

우 리 側	北 側
<p>不可侵問題를 어떤 方法으로 할 것이냐? 「宣言」으로 할 것인가 「協定」으로 할 것인가, 또는 政府當局에 勸告를 할 것인가. 이런 問題를 論議하기 위해서 本會議를 열자고 하는 것임.</p> <p>그러니까 不可侵問題라고 해서 여러분이 提起하신 共同宣言問題, 우리가 提起한 여러가지 問題를 통털어서 不可侵問題라고 해서 우리가 本會議를 열어서 거기에서 論議해 보자는 것임. 그런데 豫備會談에서 미리 不可侵問題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內容까지 다 決定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本 準備接觸의 任務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함.</p> <p>그리고 가짜냐 진짜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論議할 性質의 것이 아님. 우리가 眞摯한 姿勢로 民族의 問題를 議論을 해야지 미리 가짜를 豫想하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잘못임.</p> <p>(5 - 討議 - 71 ~ 73)</p>	<p>가 어느 정도 寄與하느냐, 國會가 어느 정도 參與해서 어느 정도 얼마만한 몫을 擔當해서 하겠느냐, 그것을 나 不可侵問題는 行政當局에 勸告하는 式으로 하겠느냐 아니면 國會는 國會로서 할 몫이 있느냐, 말할 몫이 있느냐 이것을 確定하는 問題가 있음.</p> <p>세번째는 그 不可侵內容이 무엇이나 하는 問題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1次會談 때 얘기 되었음. 不可侵問題야 世界的으로 있었음. 그러나 그 性格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不可侵은 같은 不可侵協定이라 하지만 戰爭을 防止하고 平和를 保障하는데 寄與 못한게 있음. 말하자면 「가짜 不可侵」이 있고 「진짜 不可侵」이 있다는 것임.</p> <p>그래서 우리가 公開한 것임. 公開해서 全民族的 討議에 붙여야 좋음. 대체 不可侵問題를 國會에서 討議하는 이런 테두리안에서 하는게 좋겠다고 우리 그저 發表한 것임. 왜냐하면 그 性格에 따라서 內容이 다르기 때문임.</p> <p>잘못하면 우리가 不可侵問題다 이렇게</p>

우 리 側	北 側
<p>南北不可侵問題는 本會談에서 雙方이 각</p>	<p>모호하게 해놓고 本會議에 가서 옛날에 人類를 欺瞞하고 愚弄했던 그런 式의 「가짜 不可侵」問題를 登場시켜 놓고 더더욱한 다면야 이게 되나? 이것 웃음거리가 될단 말임.</p> <p>豫備會談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런 不明確한 議程을, 性格을 確定하고 그렇게 해서 本會議에 넘기자 해서 豫備會談 하는 것임.</p> <p>집을 짓는데 人民들은 「아파트」要求하지 單層을 要求하지 않는데 그저 집을 짓자, 이렇게 合意해 놓으면 되는가?</p> <p>그래서 이 問題는 그렇게 論理展開하면 안된다, 明白히 分明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發表問題」라고 했지만 이것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文件의 性格도 明白하고 그 內容도 明白하고 國會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責任져야 하는가 하는 것까지 明白히 밝힌 것임.</p> <p>(5 - 討議 - 67 ~ 69)</p>

우 리 側	北 側
<p>기 提示하는 意見을 함께 놓고 合意點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側의 一貫된 立場이며 지금도 不可侵問題를 包括적으로 協議・解決하자는 立場에는 變함이 없음.</p> <p>우리側이 不可侵問題에 관한 議題에 「宣言」을 追加한 것은 相互不可侵・不干涉・紛爭의 平和的 解決 등 南北當局間에 採擇할 不可侵宣言의 基本方向에 대한 南北政治人들의 意志를 共同으로 決議하고 南北當局間에 조속히 不可侵宣言을 採擇하도록 勸告하자는 것임.</p> <p>南北間에 緊張을 緩和하고 戰爭을 防止하며 平和를 制度的으로 保障하기 위해 南北當局이 相互不可侵을 宣言하고 이를 履行토록 하자는 데에는 雙方間에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雙方 當局者들도 이미 그같은 意思를 國內外에 밝히고 있음.</p> <p>따라서 南北 雙方이 代表會談에서 이같은 議題를 놓고 雙方이 各其의 意見을 충분히 자유스럽게 提示하여 合意點을 찾아 南北國會의 共同決議文에 함께 反映하면 우리의 使命은 일응 達成될수 있다고 생각함.</p> <p>(6 - 基調 - 19)</p>	

우 리 側	北 側
<p>우리側이 不可侵問題에 관한 議題에 「宣言」을 追加한 것은 相互不可侵・不干涉・紛爭의 平和的 解決 등 南北當局間에 採擇할 不可侵宣言의 基本方向에 대한 南北政治人들의 意思를, 意志를 共同으로 決議하고 南北當局間에 早速히 不可侵宣言을 採擇하도록 勸告하자는 것임. 委任이라 해도 좋음. 勸告란 말을 빼고 委任하자고 해도 좋음.</p> <p>그래서 우리로서는 國會議員들이 서로 不可侵에 關係되는 基本原則을 確認하고 또 基本方向을 最高責任者들끼리 採擇하도록 이렇게 勸告하자 이런 뜻임.</p> <p>그리고 具體的인 內容은 어지간하면 本會談을 열어 거기서 이야기 하면 될 것이며 우리가 豫備會談에서 이야기 하기에는 委任事項 밖이고 豫備會談 自體에서는 議題하고 形式만 정해가지고 날짜하고 規模만 정하기로 하였으니까, 여기서 討論하는 것이 性質上 안맞음.</p> <p style="text-align: right;">(6 - 討議 - 21)</p> <p>우리 國會가 國會의 權能이 있는 것이고</p>	<p>不干涉이라는 것, 이것은 事實은 軍事問題는 아닌 것이고 여기에서 꼭 安置해야할 問題도 아니고 또 우리 民族內部에서 相互不干涉이다 하는 이 말도 좀 맞지 않음..</p> <p style="text-align: right;">(6 - 討議 - 34)</p> <p>政府間에 하는 內容이 따로 있고 國會에서 수행하는 分野가 따로 있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만 무엇인가, 그 方向이라고 하는, 基本方向이라고 하는 그 內容이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不可侵을 擔保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平和를 保障하는 그런 內容과 方向으로 돼 있지 않다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6 - 討議 - 89)</p>

우 리 측	北 側
<p>또 政治人들이 얘기하는 包括的인 基本方向을 提示해서 이것을 相互間에 確認을 하고 決議를 한다.</p> <p>그렇게 하고 貴側에서 이야기했듯이 細部的인 事項이라든지 그밖에 具體的인 事項 이러한 問題는 政府가 더 發展을 시켜가고서 採擇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國會의 權能이라든지 位相의 次元이 적어도 行政府와 對等한 立場에서 三權分立의 原則에 서있기 때문에 큰 基本方向을 政治人으로서 共同確認할 수 있는 範圍內에서 基本方針을 提示를 하고 當局에 委任한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6 - 討議 - 24)</p>	
<p>우리側이 不可侵問題에 관한 議題에 「宣言」을 追加한 것은 相互 不可侵・不干涉・紛爭의 平和的 解決 등 不可侵宣言의 基本方向에 대한 南北政治人들의 意志를 모아 이를 決議하고 南北當局間에 早速히 不可侵宣言을 採擇하도록 勸告하자는 意味와 함께 貴側의 要求를 考慮한 것임.</p> <p>貴側도 이와 같은 우리側 議題를 「前進</p>	<p>우선 重要議題인 不可侵問題와 관련해서 는 貴側이 지난번 相逢때에 不可侵宣言發表問題로 하는데 同意한 條件에서 거기에 軍縮과 外國軍隊의 段階的 撤收問題를 더 包 含시켜서 議題를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發表問題」로 合意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7 - 基調 - 20)</p>

우 리 側	北 側
<p>的」이라고 評價한 만큼 그대로 合意를 하고 그 具體的 內容에 관해서는 당연히「代表會談」에서 論議해야 할 것임.</p> <p>(7 - 基調 - 32)</p>	

마. 南北頂上會談 開催問題

우 리 측	北 측
<p>不可侵協定締結 問題를 包含하여 政治的 決斷을 必要로 하는 重要한 懸案問題들을 效果的으로 解決하기 위해서는 南北頂上會談이 早速히 開催되어야 할 것임.</p> <p>南北의 頂上이 아무런 前提나 條件없이 서로 만나 懸案問題와 民族의 將來問題를 虛心坦懷하게 論議한다면 南北關係改善과 平和統一의 決定的인 轉機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임.</p> <p>南北의 頂上은, 南北 두 最高當局者는 民族의 和合과 統一을 위하여 빠른 時日內에 會談을 開催해야 할 民族的인 義務를 民族 앞에 지고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1 - 基調 - 33)</p> <p>양측의 最高 頂上께서 만나서 무릎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오늘 和氣靄靄하게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를 나누면 解決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고 봄.</p> <p>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交流問題와 더불어 頂上間에 만나는 問題를 國會次元에서 勸告를 하자는 議題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의제들은 貴側에서 내놓은 의제 못</p>	

우 리 측	北 側
<p>지않게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임.</p> <p>(1 - 討議 - 77~78)</p> <p>貴側에서 國會가 頂上會談에 관해서 勸告 與否를 論議해야 한다는 것은 國會의 使命 이나 分數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양쪽이 頂上에 대한 禮遇가 여러가지 로 다른 그러한 뜻이 있음. 그러나 政治人 으로서 여러 代表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政 治人이 무슨 일을 못하느냐 또 國會가 굉장 히 많은, 民意를 代表하는 많은 權能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南北의 頂上이 만나도록 勸告말씀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임.</p>	<p>貴側이 北南 頂上會談 개최를 勸告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한데 대해서 말한다 하 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아무런 현실성도 없 는 것임.</p> <p>우리는 그 무슨 勸告가 없이도 이미 前 에 最高位級會談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음. 그러나 北南高 位級會談이 열리고 그것이 성과적으로 실현 하게 하자면, 北南最高位級會談이 열리고 그것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하자면, 그렇 게 할 수 있는 基礎가 마련돼야 되고 환경 이 마련돼야 되는 것임.</p>
<p>(2 - 討議 - 46)</p> <p>南北領袖會談 促求問題 勸告問題인데, 아 까 團長께서 國會의 權限 밖이고 분수에 넘 는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南韓에서는 國 會가 大統領한테 建議함.</p> <p>북쪽 人民會議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大統領에 대해서 무슨 소리가든 다</p>	<p>더욱이 우리로서는 貴側이 國會에서 南 北頂上會談 개최를 勸告하는 문제를 토의 하자고 하는것은 國會의 使命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분수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인 정함.</p> <p>(2 - 基調 - 31~32)</p>

우 리 측	北 측
<p>함.</p> <p>특히 野黨이 더 험한 소리하는데 그래도 다 수용되어 가는데 우리가 그 點을 생각 못했음. 最高人民會議 權限에서 國家主席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안된다 그러면 그 點은 우리가 諒解함. 이것이 體制差異라고 생각함.</p> <p>이 모든 問題가 率直히 말씀드리면 南北 首腦가 모이면, 指導者가 모여 하면 解決될 問題임.</p> <p>한번 만날 機會를 만들면 좋은데, 貴側에서는 이것이 國會에서 하는게 『우리 분수에 넘는다』 이러니까 남쪽에서는 보통 大統領한테 建議하지마는 이 問題는 保留해도 좋음.</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73)</p> <p>南北頂上會談 開催問題에 대해서는 貴側이 말씀하시기를 國會의 使命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대로 引用함. 『분수에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이렇게 主張하였는데, 우리는 雙方國會의 機能으로 보아서, 또 事案의 重要性으로 보아서, 不可侵</p>	<p>最高位級會談問題도 어제 朴浚圭先生이 분명히 保留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오늘 어저께 말한 것을 뒤집어서 더 後退한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3 - 討議 - 32)</p>

우 리 側	北 側
<p>問題나 交流問題나 南北國會會談에서 충분히 協議될 수 있는 問題라고 생각함.</p> <p>(3 - 基調 - 26)</p> <p>國會가, 最高人民會議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最高責任者, 最高當局者, 政府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음.</p> <p>우리가 原則的인 얘기는 論議를 해야 되겠지만 많은 문제는 最高責任者가 해야 됨.</p> <p>美·蘇間이 서로 原子彈을 가지고, 銃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도 和解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양쪽 領袖會談에서 이룩된 것임.</p> <p>또 東·西獨이 25萬의 美軍이 西獨에 駐屯하고 있고, 原子彈이 수없이 있는데도 서로 和解하고 平和에 이바지 하고 있는 것은 兩獨 首腦들이 만나서 問題를 解決한 까닭임.</p> <p>(3 - 基調 - 29)</p> <p>우리가 이렇게 서로 國會와 最高人民會議가 國民의 기대에 어긋나는 生産的인 討</p>	<p>頂上會談問題도 論理的으로 말하면, 우리 일이 잘되면 자연스럽게 준비되고 성숙해나가는 길로 되는데도 이걸 굳이 提起했음. 중도에서 그걸 그쪽에서 『좋다, 이걸 保留한다』고 했는데 왜 4次에 와서는 다시 또 내놓는지를 알 수 없음.</p> <p>(4 - 討議 - 62)</p>

우 리 側	北 側
<p>論을 못할 바에야 最高領袖會談이, 最高指導者가 만나서 우리 民族問題를 한번 解決하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南韓國會의 念願임. 나는 이런데 대해서 北韓의 最高人民會議도 기꺼이 呼應해 주기를 바랍.</p> <p>(3 - 基調 - 29)</p> <p>그건 우리가 可能하다고 보고 이거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위의 세가지 보다는 實質적으로 더 問題가 되는 것은 領袖會談이다 해가지고 議題로 再確認한 것인데, 왜 못하겠다 하는지 우리가 알아듣게 說明해주었으면 좋겠음.</p> <p>(3 - 討議 - 32)</p>	
<p>南北關係改善과 平和統一의 突破口를 여는데 차지하는 重要性和 比重을 勘案하여 특히 内外의 지대한 關心과 期待가 여기에 쏠리고 있는 事實을 考慮하여 國民들의 意思를 代辯하는 우리 國會議員들이 그 實現을 돕는 것이 民族의 將來를 위해서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함.</p> <p>貴側도 아는 바와 같이 雙方 最高當局者</p>	<p>頂上會談問題는 議程에서 빼자고 合意된 것임.</p> <p>이 問題를 놓고 말하면야 우리가 이미 이 問題를 提起한게 언제입니까? 1972年 부터 일관하게 提起해온 問題임. 72年, 85年, 86年 正初, 금년 9월에 또 提起했음. 상세히 提起했음. 이 問題에 대한 우리의 立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權威</p>

우 리 측	北 側
<p>들이 이미 頂上會談의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고 頂上會談의 議題에 대해서 까지 言及하고 있는 만큼 南北國會는 頂上會談이 早速히 成事되어 民族和合과 統一實現에 一大轉機가 될 수 있도록 關心을 表明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5 - 基調 - 32)</p> <p>南北頂上會談은 이땅에 平和를 制度化하고 하나의 民族共同體를 創出하기 위한 一大轉機를 마련하는 길이며 이미 雙方 最高當局者들도 누차에 걸쳐 그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고 또 頂上會談의 議題에 대해서까지 言及하고 있음.</p>	<p>있는 會談임. 民族問題 적어도 이거 모여 앉으면 이 會談은 民族問題를 解決하는데 그래도 決定的인 契機를 分明히 열어 놓아야지 모여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잘되지 않거나 하면 이걸 民族앞에서 對答못함.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이 必要하느냐? 準備가 必要하고 成熟시켜야 되고 條件이 必要하고 氛圍氣가 必要한 것임.</p> <p>그래서 우리 偉大한 首領님께서 이번에 이 問題에 대해서는 明白히 闡明하셨음. 이 問題는 우리 하는데는 이렇게 이런 問題를 討議하려면 오고, 이런 條件을 成熟시켜야 된다는 것임. 그래야 진짜 그것이 統一을 위한 權威있는 會談으로 되지 막연하게 그저 와서 모여 앉는다, 이게 안됨.</p> <p style="text-align: right;">(5 - 討議 - 69~70)</p>

우 리 側	北 側
<p>따라서 南北國會가 그 權能과 性格에 맞게 頂上會談의 早速한 成事를 위해 努力하고 雰圍氣를 조성하는 것은 南北關係 改善을 바라는 우리 政治人들의 義務라고 할수 있음.</p> <p>(6 - 基調 - 19)</p> <p>南北頂上會談은 雙方 最高當局者들에 의해 그 必要性이 認定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成事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現實임.</p> <p>더우기 南北사이에 不可侵宣言 採擇과 함께 頂上會談이 開催된다면 信賴回復과 緊張緩和 등 南北關係 改善에 劃期的 轉機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南北의 國會議員들이 이에 關心을 갖고 早速한 實現을 勸告하는 등 雰圍氣를 造成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봄.</p> <p>(7 - 基調 - 32~33)</p>	<p>우리는 雙方이 다같이 最高位級會談의 重要性和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고 또 그 實現을 위하여 여러모로 努力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는 最高位級會談의 前提를 마련하게 될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이 열리게 되어있는 現時點에서 구태여 그것을 議題로 定立할 必要가 없다고 인정함.</p> <p>(7 - 基調 - 21)</p>

바. 「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 中止問題

우 리 側	北 側
	<p>우리는 이제 여러갈래로 열리게 될 北南對話들이 우여곡절을 겪지 않도록 共同의 努力을 기울여야 함.</p> <p>이와 관련하여 現時點에서 北南對話를, 특히는 北南國會合同會議 開幕會議를 개최하는데 커다란 障礙要因으로 될 수 있는 것은 貴當局이 美國과 함께 매해 年初에 벌리는 「 팀스피리트 」 合同軍事演習임.</p> <p>80年代를 보내고 89年으로 90年代에 들어서려고 하는 이 時期에 모처럼 열리게 되어있는 여러갈래의 北南對話들이 南朝鮮에서 「 팀스피리트 」 合同軍事演習이 強行됨으로써 또다시 우여곡절을 겪거나 애당초 열리지 못하게 된다면 統一問題解決은 그만큼 遲延되게 될 것이며 北南關係는 지금보다도 더 惡化될 것임.</p> <p>北과 南의 責任있는 政治人들인 우리 最高人民會議 代議員들과 貴 國會議員들은 應當對話와 北南關係改善의 前途를 左右하는 이러한 問題에 대하여 결코 外面하지 말아야 함.</p> <p>이러한 見地에서 우리는 北南國會代表會議에서 「 팀스피리트 」 合同軍事演習中止問</p>

우 리 측	北 側
<p>國會會談이 成事되고 不可侵宣言問題, 交流問題, 頂上會談問題들이 成功的으로만 된다면 「팀스피리트」 이런 문제는 枝葉的인 문제임. 그런데 이 國會本會談을 열자하는, 그동안 不可侵問題, 交流問題, 頂上會談 또 會議形式問題, 6個月동안 걸려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거의 마무리지을 단계에 와서 느닷없이 「팀스피리트」문제를 議題第1號로 삼아야 된다는 이런 基礎的인 發言提起는 굉장히 우려가 됨.</p> <p>(7 - 討議 - 59~60)</p> <p>「팀스피리트」같은 문제는 앞으로 外交・政治・軍事問題에서도 지금 우리가 다루기로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 얼마든지 있고 그것이 열릴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노</p>	<p>題를 중요한 問題로 上程하고 討議解決하는 것이 應當하다고 認定하면서 「팀스피리트」合同軍事演習의 中止問題를 北南國會代表會議 첫번째 議題로 定立하자는 것을 提議함.</p> <p>(7 - 基調 - 22~24)</p> <p>「팀스피리트」문제를 이제 와서 提起하는 理由에 대해서는 다음 세가지 側面에서 말하겠음.</p> <p>첫째, 우리가 지난 7월 21일부로 北南國會會談을 제기한 것은 不可侵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음.</p> <p>그때 까지 貴側에서는 國會會談에서, 不可侵問題 討議를 拒否해 왔는데 이번에는 呼應해 나섰음.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서 무슨 어느 정도 立場上에 差異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봤음. 지어는 貴側이 3次相逢 發言에서 北南關係를 對決方式에서 벗어나서 民族大和合의 方式, 民族共同體의 關係로 轉換시켜야 한다고 提起했고 貴側 當局은 軍事分界線上에서 和解의 畚을 가져오자고 提案했음. 또 國際舞臺에 나가서도 軍</p>

우 리 側	北 側
<p>닷없이 7次接觸에 와서 이것을 꺼내 놓으려 하는 것은 우리 會談을 먹칠하고, 어렵게 만들려는 意圖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p> <p>(7 - 討議 - 62 ~ 63)</p> <p>「팀스피리트」訓練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事前通報를 했고 또 參觀招請도 했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戰爭을 抑制하자, 우리가 民族의 피를 흘리는 戰爭을 경험했기 때문에 戰爭은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막아야 되겠다 하는 戰爭 抑止機能의 일부분임.</p>	<p>縮, 不可侵宣言問題 같은 것도 協議해 妥結 하겠다고 말했음. 그래서 이런 論理대로 한다면 對話가 始作된 이 마당에 와서는 「팀스피리트」는 中止할 것으로 이렇게 期待했음.</p> <p>그런데 우리 對話가 막 거의 成熟되어가는 이 마당에까지도 「팀스피리트」를 하겠다고 公式宣言하고 있고, 來年에 가서 또 역시 「팀스피리트」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음.</p> <p>이것은 民族間에 和解도 아니고 民族共同體 關係도 아니고, 여전히 對決을 追求한 것임. 이것은 對話의 運命, 國會會談의 運命을 左右하는 問題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서라도 이 問題를 解決하자고 해서, 國會會談 구원하기 위해서 이 問題를 提起하는 것임.</p>
<p>(7 - 討議 - 68)</p> <p>우리는 88年 6月에 UN軍縮特別總會에서 우리 外務部長官이 UN總會 特別委員會에서 밝힌게 있는데 그것은 3段階 軍縮方案임. 첫째는 우리가 뭐니뭐니 해도 信賴를 回復하고, 對話를 통한 信賴를 回復하는 段階의 바탕이 만들어져야 됨.</p> <p>그 다음에 不可侵宣言問題는 事實은 行政府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가 貴側의 主張에 의해서 不可侵宣言을 하기로 했음. 그래서</p>	<p>둘째, 우리가 會談을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情勢變化가 있음.</p> <p>벌써 우리가 提起한 體育會談問題도 지금 成熟돼 가고 있고, 學生會談問題도 지금 成熟돼 가고 있고, 또 3者會談問題도 지금 提起돼 있고, 高位級 政治·軍事會談問題도</p>

우 리 側	北 側
<p>그것을 行政府에서, 當局에서 不可侵條約을 締結하고, 그 다음에 軍縮協商으로 이룩되는 過程에서 이런 問題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우리側의 原則이 UN總會에서도 천명된 바가 있음.</p> <p>이 「팀스피리트」問題는 지금 指摘해 주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다루어야 할 會議가 會談이 곧 이루어 지리라고 지금 보고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7 - 討議 - 81~82)</p> <p>「팀스피리트」問題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第1順位 議題로서 採擇을 해야 된다는 것을 基本的인 演說에서 明確하게 말씀을 했음.</p> <p>정말로 좋은 事項임. 여러분들이 「팀스피리트」 中止하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負擔가고, 이 「팀스피리트」 中斷시켜야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임.</p> <p>그렇지만 이런것들을 中斷시킬려고 하면 이 國會會談이 빨리 成事가 되어야 됨. 그 래 가지고 不可侵宣言하고, 休戰協定 狀態의 對峙狀態에서 平和協定으로 바꾸어 주</p>	<p>지금 成熟돼 가고 있음. 여러 갈래의 對話가 來年쯤 가면 열려 진다는 것이 지금 대체로 公認된 事實임.</p> <p>그런데 「팀스피리트」 이것은 對話의 前進를 障礙하는 癌的 存在임. 이것은 우리 國會會談의 運命만을 左右하는 問題가 아니라 北南關係 全般, 여러갈래의 對話의 全部를 흐리게 하는 그런 障礙要因임. 그래서 이것도 救援하자면 이제라도 「팀스피리트」 문제를 提起해야 되겠다 해서 提起하게 된 것임.</p> <p>셋째, 國會議員들이 國會가 응당히 열 問題를 앞에 놓고 自己責務를 自己責任을 다 해야 되겠다 해서 提起하는 것임.</p> <p>人民들은 戰爭 反對함. 人民들은 「팀스피리트」 大規模 訓練할 때마다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 解決할 것을 要求함. 이러한 客觀的 要求와 人民들의 意思를 反映해서 國政에 反映하고 政治方向을 規制하는 것이 國會임. 그것을 責任지는 것이 國會議員임. 이런 重大한 問題를 놓고 아까 先生 말씀이 『이것은 다른데서 한 일이다』 했는데 왜 國會가 그것을 해야되지 다른데</p>

우 리 側	北 側
<p>못 쓰겠다는 그런 강한 意志를 確認하자는 것이 「팀스피리트」軍事訓練임.</p> <p style="text-align: center;">(7 - 討議 - 87~88)</p> <p>우리가 지금 論議하는 會談의 性格은 國會本會談을 成事시키기 위한 準備會談임.</p> <p>그런데 갑작스럽게 오늘 「팀스피리트」의 軍事問題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南北間에 高位政治軍事會談도 열려고 하고 있고 學生會談도 그쪽에서 이야기를 해왔고, 또 이 國會는 國會대로 이렇게 役割을 하고, 이렇게 서로 權能과 機能에 알맞는 그런 議題를 가지고 會議을 하기 위해서 지금 國會本會談을 成事시키기 위한 準備接觸을 지금 하고 있음.</p> <p>가령 지금 一步를 讓步해서 우리가 南北間의 不可侵共同宣言問題를 우리 代表會談에서 論議하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음.</p> <p>그런데 會談을 成事시키기 위해서 지금 準備節次를 갖추는 이 마당에서 장황하게 이 軍事問題를 先置해 가지고 이것이 꼭 第1의 議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準</p>	<p>力해 왔음.</p> <p>가까운 實例만 보더라도 우리는 86年 6月 軍事當局者會談, 同年 12月 31日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 88年 1月 北南連席會議를 제기하면서 「팀스피리트」를 비롯한 大規模 軍事訓練을 中止할데 대한 問題를 協議·解決하자고 했음.</p> <p>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의 緊張狀態를 격화시키고 戰爭의 危險을 몰아오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一方的으로 해당하는 措置까지 취했음.</p> <p>예를 들면 86年 1月에는 對話가 進行되는 全期間에 大小規模의 모든 訓練을 一方的으로 中止할 것을 결정했고, 또 86年 9月에는 15萬名의 人民軍隊를 平和的 建設에 돌렸음.</p> <p>그뿐만 아니라 작년 7月에는 우리가 多國的 軍縮會談을 提起하면서 7月부터 昨年 末까지 10萬軍隊를 一方的으로 縮小했음.</p> <p>이것은 世界가 다 公認하고 있음.</p> <p>자, 이런데 여기다 무슨 誤判이요, 「팀스피리트」하는 原因을 우리에게 다 대고 이야기할 條件이 되는가?</p>

우 리 側	北 側
<p>備接觸의 範圍에도 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貴側이 정말로 이 會議을 과연 成事시켜 가지고 明年 初에 本會談을 할려고 하는건지 의문임.</p> <p>(7 - 討議 - 99~100)</p>	<p>(7 - 討議 - 94 ~ 96)</p> <p>貴側에서 이것은 다른데서 討論할 問題다 하는데, 다른데서 討論한다는게 무슨 말인가?</p> <p>우리 國會가 옹당히 平和와 戰爭問題를 자기 事案 첫째 자리에 놓고 다루어야 함. 우리가 北南國會에서 本會議에 이 「팀스피리트」를 中止할데 대한 問題를 議程 첫째로 놓고 어떤 결의를 採擇하면 「팀스피리트」 中止할데 대한 우리 民族의 意志를 보여줄 것임. 이것은 아마 美國에도 강한 壓力이 될 것임.</p> <p>(7 - 討議 - 96)</p> <p>지금 對話歷史가 어떻게 되었는가? 잘 되다가도 이것 때문에 決裂되었음. 우리가 對話를 하는데 對話對方을 反對하고 攻擊하기 위한 이런 危險한 戰爭訓練을 하는데 우리도 尊嚴있음. 이런 狀況에서 우리 머 리숙이고 들어와서 對話를 할 수 없음.</p> <p>이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變化가 있는가 무슨 미련 갖지 말기 바람. 그래서 우리가</p>

우 리 側	北 側
	<p>提起한다는 것임.</p> <p>우리 國會對話 이제 成熟되어가는 段階에서, 여러 갈래의 對話가 지금 成熟되어가는 段階에서, 이 對話를 成功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걱정스러워서 提起하는 것임.</p> <p>(7 - 討議 - 97~98)</p>

3. 本會談 形式問題 (代表會談 · 連席會議 · 合同會議)

우 리 측	北 측
<p>南北國會會談의 形式에 關係 우리로서는 代表會談이 合理的이고 適合한 會談方式이라고 생각함.</p> <p>代表會談은 우선 會談運營의 能率性과 効率性을 保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5 年의 國會會談 豫備接觸時에 雙方間에 이미 合意를 보았던 會談形式이며 또한 그동안 南北間에 있었던 모든 會談들도 雙務會談으로 進行되어온 先例와도 符合되는 것임.</p> <p>南北國會會談은 이미 雙方이 合意한 事項을 많은 人員이 모여 確認하는 節次가 아니라, 올림픽 參加를 비롯하여 南北間에 存在하는 數多한 問題解決에 焦點을 맞추어 兩側이 眞摯한 態度로 協議 · 妥協하는 모임이며, 이를 위하여 代表會談의 形式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1 - 基調 - 28)</p>	<p>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는 지난 7月 20日에 北南國會連席會議를 열데 대한 중대한 發起를 하였는바 貴側이 우리의 提議에 대해 理解를 표시하고 國會連席會議 召集에 동의한 것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1 - 基調 - 19)</p> <p>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와 大韓民國 國會는 北과 南 사이의 緊張狀態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民族的 團結을 도모하고 나라의 統一을 촉진하려는 念願으로 부터 출발하여 北南國會連席會議 (이하 連席會議로 함)를 召集하는데 견해를 같이했음.</p> <p style="text-align: center;">(1 - 基調 - 20)</p>
<p>우리가 그동안 北側에 보낸 몇 차례의 書翰 어디를 보아도 北側에서 제의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國會會談 形式을 連席會議로 하는 것에 合意했거나 그것을 受諾한 意思表示는 어느 구석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함.</p>	<p>우리는 이미 주고 받은 便紙들과 政黨들의 政策發表를 통해서 北南國會會談이 形式동에 대하여 原則上 相通한 立場과 見解의 일치를 보았다고 인정함.</p> <p>7月 20日附 우리 提案의 本質은 어디까지</p>

우 리 측	北 측
<p>오히려 8月 12日字 우리側 書翰에서도 우리 國會議員과 北側 代議員間的 會談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은 政黨이나 社會團體 代表들이 國會議員會議에 參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意思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理解해 주시기 바람.</p> <p>따라서 會談의 形態나 議題를 既定事實化한 토대위에서 會談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本會談을 제대로 成事시키기 위한 議題나 會談形態부터 段階的으로 아주 진지하게 討議하는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함.</p> <p>(1 - 討議 - 37)</p>	<p>나 國會들 사이에서 會談을 할 必要性을 論證한 기초위에서 北南國會連席會議를 하자고 제안한 것임.</p> <p>(1 - 討議 - 41~42)</p>
<p>貴側에서, 첫번째 問題提起를 했던 代表會談에서는 民意를 直接 反映을 할 수 없고 集大成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論理를 말씀하셨는데 이 國會라는 것은 住民들이 共通的인 意思를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 意思들을 國政에 또는 다른 分野에 代身해서 傳達하는 명실공히 代議機關으로서 國會議員 個人的으로는 獨立된 憲法機關임.</p> <p>貴側에서 『 보도에 의하면 連席會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 이렇게 말했는데 各黨</p>	<p>貴側의 報道內容을 보면 대체로 國會連席會議 開催에 同意하는거로 意見을 모으는, 이렇게 報道가 되어 있음.</p> <p>最近까지만 해도 그쪽 政黨들이 政策을 表明한 것을 보면 이 問題와 關聯해서 連席會議가 좋다는 이런 評들이 적지 않았음. 그런 것을 念頭に 둔 것임.</p> <p>(1 - 討議 - 42)</p> <p>統一問題와 關聯된 問題를 가장 効果的으로</p>

우 리 側	北 側
<p>이 비슷합니다만 平民黨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문제에 대해 第1案, 第2案, 第3案을 만들어 가지고 政策委員會에서 討議하고 이를 다시 黨務會議을 거쳐 會議形式은 連席會議 보다는 國會代表會談이 좋겠다 이렇게 우리 黨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確定시켰음.</p> <p>그동안에 報道되었던 狀況들은 정당 뿐만 아니라 國民 各界各層, 學界에서, 言論에서各自 나름대로 생각들을 自由롭게 討論하고 밝힐 수 있는 그런 契機였지마는 最終적으로 우리 黨 뿐만 아니라 國會를 代表한 우리들은 이걸 代表會談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것으로 結論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1 - 討議 - 47)</p>	<p>解決하자면 그러한 民族의 意思를 最大限 集大成할 수 있는 그런 協商마당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런 協商形式을 選擇하는 것이 最上의 것임.</p> <p>國會會談에는 形式도 많은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代表會談 形式도 있고, 連席會議 形態도 있는데, 그 중에서야 連席會議 形式이 民意를 수렴하는데서, 人民들의 意思를 集大成하는데서 그래도 最上의 것이 아니냐 이걸 考慮했음.</p> <p style="text-align: center;">(1 - 討議 - 43)</p> <p>全民族의 死活的 運命과 關聯되고 全民族의 利益과 關聯된 重大한 關心事인 만치 이런 問題를 해결하는 協商마당도, 協商舞臺도 民族의 관심사를 最大限 수렴하는 形態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連席會議 形態이지 國會代表會談은 아닌 것임.</p> <p>우리 最高人民會議 代議員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그쪽 國會議員도 마찬가지로 생각함.</p> <p>民族의 運命과 關聯된 問題, 이런 問題에 直接 參與하고 싶지 代表 몇사람만 보내서 뒤 앉아서 自己意思를 間接적으로 傳達하는 것</p>

우 리 側	北 側
<p>代表會議의 경우에는 民意를 直接 反映 할 수가 없고, 또 輿論을 國民 個個人한테서 集大成할 수가 없다, 各界各層에서 다 모여야 된다, 그런 論理를 펴는데 貴側의 代議員 655名, 우리側 299名임. 합치면 근 千名이 됨.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自由스럽게 討論하고 또 自己 論理를 展開하는 것은 不可能한 일임. 어디까지나 하나의 集會와 行事와 이런 것으로서 그쳐지게 되는 것임.</p> <p>(1 - 討議 - 48)</p> <p>現實적으로 體制와 理念이 다른 南北關係를 考慮할때 1,000名이나 모여가지고 이번 우리들이 論하고 싶고 最大公約數를 導出하고 싶어하는 議題들, 懸案들은 民族의 生存하고 統一하고, 平和하고 直結된 엄청나게 큰 課題들을 진짜 深度있게 效率적으로 生産적으로 討議하고 討論할 수 있겠는가? 안 됨.</p> <p>(1 - 討議 - 48)</p>	<p>보다야 直接 對話에 參與하는 것을 要求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自明한 理致임.</p> <p>(1 - 討議 - 44)</p> <p>最近에 들어서 우리 北에서도 南에서도 統一問題에 대한 關心이 어느 때 보다 높아가고 있음.</p> <p>南에서만 하여도 最近에 民衆이 主體가 되어서 統一을 해야 된다는 이런 論議가 대단히 높아가고 있고, 對話와 統一問題 解決에 直接 主人으로서 參與하는데 關心이 대단히 높아가고 있음.</p> <p>貴側 當局에서도 統一問題의 自由化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統一問題 解決을 위해서 광범한 民意를 수렴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考慮했음.</p> <p>사실 統一이야 6,000萬 겨레를 말동해서 統一하자는건데, 아 몇 百名이 모여 앉아서 論하는 이것 조차 못한다면야 언제 우리가 統一로 나가겠는가 이런 생각도 듬.</p> <p>이런 취지에서 대체 이런 몇가지를 考慮해 協商形式은 連席會議로 하자, 이렇게 한 것임.</p> <p>(1 - 討議 - 44~45)</p>

우 리 側	北 側
<p>會談形式은 代表들을 뽑아가지고 당당하게 以北서도 좋고 서울서도 좋고 이렇게 深度있게 生産的으로 討議를 해봤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임.</p> <p>(1 - 討議 - 50)</p>	<p>南北國會議員들이 全體가 모여서 共同으로 討論하자는 이 自體가 統一로 나가는데 맨앞에 나가는 것 아닌가?</p> <p>우리나라 南北間의 不信狀況, 統一을 빨리 하기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狀況을 볼때도 이걸 대단히 합리적인 會議形式이라고 생각함.</p> <p>(1 - 討議 - 51)</p> <p>南北 國會議員들이 역사적으로 誤解와 不信을 다 제끼고 다같이 우리가 마주 앉아서 어떤 宣言을 하나 내놓는다든가, 이것이야말로 저는 커다란 우리 民族 全體成員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생각함.</p> <p>(1 - 討議 - 51)</p> <p>이 國會를 連席하고 各異한 政黨 團體 사람들이 連席해서 討論하는 과정 그 자체가 벌써 좋음. 자기만 내세우면 통일이 안됨. 이렇게 우리의 실정으로 볼 때, 政界狀況으로 볼 때, 全體 人民大衆의 統一念願으로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우리 地位로 볼때 대담하게 생각하고 양측이 다 私心없이 한번 大擔한 것을 생산해</p>

우 리 側	北 側
<p>効率性 問題다, 그것보다도 原則的인 問題가 더 중요하다, 原則的인 문제 는 全體意思를 收斂하는 것이다, 그런 論理인 것 같은데 우리가 原則的인 문제를 보다 알차게 끌어내려고 하면 끌어내는 方式이 대단히 効率的이어야 함.</p> <p>六千萬 民族 다 모아놓고, 어디다 모아놓고 떠들면 그것이 가장 原則的인 문제인가?</p> <p>어떻게 하면 원칙적인 문제를 國民多數가 가지고 있는 多數의 意思를 어떻게 効率的</p>	<p>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함.</p> <p>문제가 크면 할수록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풀면 잘 풀리는 문제인데, 왜 자꾸 구태여 南北間에 國會會談을 하자고 하면서도 特定한 몇몇人員을 선발해서 하자고 하는 것인가?</p> <p>우리가 歴史的으로 보면 여러 차례 會談을 했음. 南北의 民意를 代表하는 國會議員全體가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토론하며는 반드시 人民들이 念願하는 이런 문제들이 풀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討議 - 52)</p> <p>서로 體制와 思想이 다른 1,000 명이 모여서 어떻게 意思合意를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自體 무슨 말씀인가 하면 對決의 姿勢와 이데올로기, 이 制度優先論에 기초한 思考方式이라는건, 아 우리야 民族問題를 해결하고 統一問題를 해결하는데 체제에 執着해서 문제를 考察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돼요. 우리야 어떤 입장에 서야 되는가? 어디까지나 체제와 思想과 制度와 어느 一方의 法律, 이런걸 초월해서 民族이라는것,</p>

우 리 側	北 側
<p>으로 끌어내느냐, 구체화시키느냐 그게 중요한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1 - 討議 - 61)</p> <p>連席會談 千名이 아니라 萬名, 몇십萬名이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음. 앞으로 우리 만나야 함.</p> <p>그것보다는 우리가 現實的인 問題, 民族의 問題, 平和와 統一의 問題를 論議하기 위해서 보다 效果的으로 共通分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적당한 수가 만나서 머리 맞대고 얘기하자는 것임.</p> <p>85年度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에서도 雙方의 차이가 있는데, 그 方法은 어느 것이 보다 效果的이나, 効率的이나, 原則에 違背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그걸 찾아야함.</p> <p style="text-align: center;">(1 - 討議 - 61 ~ 62)</p>	<p>하나의 民族으로 살아야 한다는것, 統一을 이룩해야 된다는것, 民族을 最優先的으로 놓고 考察 해야함. 6,000 萬의 意思를 集大成해서 協商마당을 마련하는데 몇백명이 參加하는 連席會議 형태조차 이거 복잡하다 어쩐다 하면서 이거 선택 못한다면야 우리가 언제 6,000 萬이 和合해서 民族團합을 해서 統一을 하느냐 실망스러움. 문제는 效率性 보다도 더 중요한 姿勢나 원칙 문제임.</p> <p>우리가 이 原則에만 선다면 다른 문제는 다 效率性이라든가, 方法・技術的인 문제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1 - 討議 - 55 ~ 57)</p>
<p>우리側은 南北國會會談을 代表會談으로 하는 것이 會談의 效率性和 代議政治라고 하는 側面에서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음.</p> <p>南北間에 存在하는 數多하고 複雜한 問題를 진지한 態度로 充分的 協議를 거쳐 妥協</p>	<p>우리가 主張하는 連席會議가 民族의 重大事를 해결하는 協商形式에서 최소한의 形式이라는데 대해서는 反論할 여지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貴側은 複雜하기 때문에 效率性을 높일수 없다고 하면서 무작정 反對하는 입장</p>

우 리 측	北 측
<p>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適正 數의 人員으로서 會談을 進行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國民들 뿐만 아니라 온세계 사람들도 생각을 같이 할 것입니다.</p> <p>貴側은 南北連席會議가 마치 民意收斂의 最上의 方法인 듯이 主張하고 있으나 民意를 幅 넓고 正確히 集大成하기 위해서는 多衆의 參席보다 代表性的 原理를 잘 活用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p> <p>다시말해 雙方代表들이 各其 內部的으로 充分한 討論을 거쳐 濾過된 最大公約數를 會談場에 가지고 나와 反映시키면 되는 것입니다.</p> <p>民主主義는 基本的으로 國民의 意思를 바탕으로 한 代議政治制度를 維持・發展시키는 것을 그 特徵의 하나로 삼고 있음.</p> <p>이같은 점에서 南北國會會談을 代表會談으로 推進하는 것이 民主主義가 가지고 있는 代議政治의 性格에도 符合되는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 - 基調 - 14)</p> <p>우리側의 國會와 貴側 最高人民會議間의 會談이 代表會談의 性格만 維持된다면 南北</p>	<p>을 취했음.</p> <p>國會議員 全員이 참가하는 連席會議를 인다고 해서 複雜하다는 것은 貴側의 國會議員들이 對話를 否定하는 理由로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마는 對話形式을 否定하는 根據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p> <p>실사 連席會議가 複雜하다고 그렇게 假想한다 하더라도 民族의 運命과 死活的인 利益과 관련된 重大事를 解決하는 데서 國會議員들이 그것을 複雜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政治人으로서의 使命과 責務를 回避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볼 수 없는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 - 基調 - 26)</p> <p>貴側이 주장하는 代表會談이라는 것은 人民을 代表하는 代表들속에서 또 代表들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人民의 意思를 폭넓게 정확히 收斂할 수 없는 이러한 부족점을 가지고 있지만, 連席會議는 民意의 代表者들이 직접 參加하기 때문에 民族의 意思를 보다 가깝게 收斂할 수 있다는 論駁할 수 없는 正當性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p> <p>또 代表會談이라는 것은 몇몇 사람만 마주</p>

우 리 측	北 측
<p>國會會談으로 統一해서 부르고 거기에 대해서 名稱을 가지고 이以上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p> <p>代表會談이다, 連席會議다, 이렇게 하지 말고 國會會談 이렇게 해서 수시 討議形態를 選擇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다만 우리로서 最上의 方法으로 생각하는 것은 代議會談이다, 代表會談이다, 이런 代議政治의 原則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임.</p> <p style="text-align: right;">(2 - 基調 - 15)</p>	<p>왔고 왔다갔다 하는 消極的인 形式이라면, 連席會議는 國會議員 全員이 참가하고 오가는 아주 積極的인 形式으로서 그 테두리 안에서 雙方 國會 政治人들이 자유롭게 接觸하고 交流할 수 있다는 이런 우월성도 가지고 있는 것임.</p> <p>代表會談은 人民들의 意思를 폭넓게 收斂할 수 없는 점이 있지만, 連席會議는 거래의 意思를 최대한으로 집대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協商形式이라고 말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2 - 基調 - 27)</p>
<p>代表會談을 連席會議다 代表會談이다, 이렇게 말로써 할 것이 아니라 効率的인 成果를 얻기 위해서 國會會談이다.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이 잘되면 貴側의 立場도 反映시킬 수 있는 方法임.</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17)</p>	
<p>우리 서로 20名정도 모여서 만장일치의 共通된 結論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전체 合同會議에서 만세 부르고 박수치는 이런 기회도 가질 수 있는게 아닌가? 다만 나중에 부</p>	<p>代表會談에 대해서 修正提議하신건데 代表會議의 性格만 維持된다면 名稱은 國會會談으로 하자는 것인가?</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20)</p>

우 리 側	北 側
<p>은全體合同會議, 南北韓國會가合同會議하는데滿場一致로採擇하는議案을제공하는그러한토의를代表會談에서,國會會談에서하자는것임.</p>	<p>오늘貴側의새로운提案은結局連席會議는그저날라가버리는거고代表會談은結局하자表現上다른거는있지만은다른게전혀없다고생각함.</p>
<p>(2 - 討議 - 18~19)</p> <p>國會會談을하는데代表會談이다,連席會議다하는이름은이以上더討論말고效果的인合意案을만들어서雙方各國會에서이를통과시키자,그國會에서通過시킨그다음에必要하면같이모여서서로再確認하는그런形式을가지는것임.</p>	<p>우선性格自體를連席會議로하는가代表會談으로하는가?性格自體를代表會談으로固着시키는데대해서는우리가거기에贊成할수없음.</p> <p>그리고이제앞으로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는그러한連席會議에서그것을追認한다고하면그런追認은별로必要가없다고생각함.그야말로그거는아주複雜한段階다.本會議에서本連席會議에서이런問題를우리가한번에處理하며는되는거지구태여代表會談을열고다시또앞으로連席會議에서이거를追認한다,또連席會議한다는擔保도없음.</p>
<p>(2 - 討議 - 22)</p> <p>오래전부터貴側에서連席會議를하자이렇게말했는데,우리側에서왜이問題에대해서代表會談形式으로,代表會議形式으로하는것이效果的이고能率的이다라고한것은本質問題討議가아닌豫備接觸에서조차도이렇게意見을合致시키기가매우어려운터에이本質問題를論議하자는데約900餘名の양측國會議員이모여이야기가되겠는가하는것임.</p>	<p>(2 - 討議 - 37)</p> <p>會議形式問題는무엇과관련되었느냐하면根本적으로北과南의關係를지금이상으로 전환하려하는가,안하는가?</p> <p>또對決로부터和解로넘는가,分裂로부터</p>

우 리 側	北 側
<p>(2 - 討議 - 47)</p> <p>이러한 會議에 무언가를 生産하고 또 創造하기 위한 그런 會議라는 것은 代表들이 우선 모여가지고 意見을 收斂해가지고, 代表들이 모인 會談에서 서로 合意를 하고 또 각각 다시 國會에 報告해서 承認도 받고, 그리고 또 平讓이든 合同으로 또 모여서 우리 좋은 成果에 대해서 形式이 追認이 된다. 뭐가 된다 이런 말 떠나서 한번 모여서 確認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절차도 믿을 수 있는 것을 代表團 會議에서 한번 議論해 보자 이런 말 아닌가? 이렇게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實質的인 問題를 討議하고, 效果的이고, 또 회의도 能率的으로 運營하는 것은 이 길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會談形式에 대해서는 뭔가 生産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의한 代表會談을 꼭 貴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統一로 전환하는가, 民族對決로부터 民族和解로 넘자고 하는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原則的인 문제와 연관되는 문제라고 생각함.</p> <p>우리가 論하는 것은 다 統一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가장 效果的으로 집대성 하느냐 이 問題에서 國會會談 形式問題도 관련된 問題임.</p>
<p>(2 - 討議 - 47 ~ 48)</p> <p>連席會議를 통해 가지고는 不可侵問題라든가 올림픽問題라든가 이런 問題를 生産적으로 創出할 수가 없음. 連席會議는 안됨.</p>	<p>(2 - 討議 - 49)</p> <p>全 民族의 意思를 代辯해서 民族의 代表들이 모여서 重大한 問題를 討議할 수 있는 問題를 連席會議에서는 못한다, 不可能하다,</p>

우 리 側	北 側
<p>(2 - 討議 - 52)</p> <p>連席會議 이것은 죽어도 양보 못한다. 이것은 50年 傳統이고 우리의 最高決定이다 이러면 討議가 안됨.</p>	<p>이렇게 斷言하면 안됨.</p> <p>(2 - 討議 - 52)</p>
<p>(2 - 討議 - 89)</p> <p>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또 그러면 어떻게 얘기가 안됨. 필요성을 認定한 적이 없음. 會議錄에도 發言에도 新聞紙上에도 없을 것임. 그런데 자꾸 그랬다고 하는건 말도 안됨.</p>	<p>우리는 지금 제일 難問題로 되고 있는會議形式問題와 關係해서 지난번 相逢때 北南國會連席會議의 必要性을 認定한 朴浚圭 首席代表선생과 다른 代表들의 발언에 유의하고 있음.</p>
<p>(3 - 討議 - 30~31)</p> <p>連席會議란 말이 貴側의 辭典에 있는 解釋하고 우리側 辭典에 있는 解釋하고 많이 다름. 이것은 40年의 分斷이 가져온 것으로 우리側의 連席會議라는 것은 例를 들면國會 商工委員會와 農水産委員會가 連席해서 會議을 하며 또 政府와 政黨間에도 連席會議를 함.</p> <p>1,000名이나 900名이 모여서 한 會議는 한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음. 이것은 서울은</p>	<p>이러한 사실은 會議形式問題에 대한 貴側의 立場이 우리側 제안에 접근하고 있다는것을 示唆해주는 긍정적인 사태진전이라고 생각함. 議題問題에서도 雙方의 意見이 상당히 접근해서 合意한 可能性이 있지 않겠는가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음.</p> <p>(3 - 基調 - 14)</p> <p>討議하려는 問題의 深度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고 그 內容이 深刻하면 할수록 적은 人員보다 많은 人員이 參加해서 지혜를 모으</p>

우 리 側	北 側
<p>동장에서 모이는 群衆大會임. (3 - 基調 - 23)</p> <p>多衆이 參與하는 會議, 이것이 貴側이 말하는 連席會議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連席會議란 것은 同等한 代表權을 가진, 즉 人口 10 萬을 代表한다든지, 權限이 같다든지 이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大體의 경우는 多數 決 없이 討論하는 場이 連席會議임.</p> <p>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連席會議인데, 貴側이 지금까지 40 年 동안 해온 連席會議는 요즘 내가 며칠동안 研究했는데 多數가 參加하는 群衆集會 形式의 會議, 이것이 連席會議임.</p> <p>그래서 앞으로 우리 南쪽에서는 그것을 連席會議라고 하지 않고 多衆會議라고 하겠음. 그래야 混同이 안생김. (3 - 基調 - 23~ 24)</p>	<p>고, 힘을 합쳐야 빠른 시일안에 좋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否定할 수 없는 理致임.</p> <p>人員이 적으면 모이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問題를 解決하는데서는 時間이 더 걸릴 수도 있고 解決策을 찾지 못할 수도 있음. (3 - 基調 - 16)</p> <p>지난번 相逢때 貴側이 會議形式問題와 관련해서 내놓은 이른바 修正案이라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처음에 貴側이 내놓았던 것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실제로 問題를 풀기위한 것이 아니라 輿論앞에 修正案을 내놓았다는 인상이나 주기 위한 宣傳的 目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임.</p>
<p>지난번에 貴側에서 一千名이 모여 양쪽의 다섯사람씩 다시 共同運營委員會를 만들어가지고 이 열사람들이 代表로 나와서 議題別로 심도있게 깊이있게 이렇게 妥協을 해서 全體</p>	<p>貴側의 말대로 代表會談이라고도 하지말고 連席會議라고도 하지말고, 막연하게 國會會談이라고 해 놓으면, 그것이 도대체 國會會議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p> <p>그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會議形式問題를 討議하지 말자는 것이고 따라서 실제로 그 어떤 國會間 對話도 하지 않으려는 立場이라고밖에</p>

우 리 側	北 側
<p>會議가 되었든지 連席會議가 되었든지 合同會議가 되었든지 採擇하는게 生産的이고 効率的인 會談方法인데, 왜 南側에서는 말 안듣느냐고 이렇게 分明히 말했음. 이 다섯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共同運營委員會 만든다는 것 自體가 代表性을 認定하는 것임.</p> <p>(3 - 討議 - 38)</p>	<p>보지 않을 수 없음.</p> <p>(3 - 基調 - 16)</p> <p>알찬 열매는 고사하고 오히려 對決에 이용되었던 지난날의 對話方式과 대담하게 결별하고 北과 南의 政治人들이 새출발을 하자면 少數의 特定한 代表들만 參加하는 소극적인 協商方式 대신 多數의 廣範한 사람이 參加하는 폭넓고 적극적인 對話形式을 수저없이 擇하여야 할 것임.</p> <p>그러자면 두말할 것은 없이 國會連席會議方式을 擇해야 할 것임. 여기에 대해서는 貴側의 여러 政黨들과 많은 國會議員들도 認定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음.</p> <p>(3 - 基調 - 17)</p>
<p>우리들 299名 굉장히 바쁨. 1年内내 會議를 열어야 되고 그런 바쁜 처지인데, 또 5名씩 共同運營委員會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첫번째 모여가지고 妥協 또는 解決이 되거나 作品이 나올 수 없으며 몇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임.</p>	<p>그쪽 國會가 90日하는데 남쪽에서 하는일이 바쁘다해서 民族의 運命問題를 뒤로 미룬다는 것은 論理가 不當하고 姿勢가 되어있지 않음.</p> <p>남쪽에서 할 일이 많다해도 덮어놓고 일단 民族의 運命과 관련되는 문제를 解決하는데</p>

우 리 側	北 側
<p>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全部 以北가고 全部 以南에 내려 오고 할 수 없는 것임.</p> <p>(3 - 討議 - 38)</p>	<p>우선 나와야 하고 거기에 時間을 두어야 되지 바쁘다는 건 말이 안됨.</p> <p>(3 - 討議 - 44)</p>
<p>赤十字會談같은 것도 우리 代表者 보내서 하는 것임. 離散家族들이 千萬이 같이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님.</p>	<p>그쪽 論理대로 한다면야 다섯명이 앉아서 하면 效率的으로 되었겠고 또 生産物이 있어야겠는데, 17年동안 다섯명이나 여섯명 가지고 했지만 무슨 緩和나 和解나 團합을 가져온게 없음.</p>
<p>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반드시 全體 國民, 全體 住民들의 意思를 收斂할 수 있는 그런 會談의 方式이라고 그런다면 不可侵問題가 되었든지, 不可侵宣言이 되었든지, 南北交流問題가 되었든지, 여러분들 側과 우리 側의 懸案問題, 緊張을 緩和시키고 우리 서로 싸움하지 않고 統一의 基盤造成을 하고 이러한 모든 問題들을 6千萬 모든 國民들한테, 住民들한테 國民投票를 하여 물어 볼 수도 있다는 이러한 論理도 成立이 될 수 있음.</p> <p>(3 - 討議 - 39, 48)</p>	<p>문제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님. 政策方向해서 새로운 立場과 姿勢를 가지는게 문제이지 숫자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님.</p> <p>(3 - 討議 - 42)</p>
<p>왜 代表性이 問題가 되냐면 最高人民會議가 5萬名, 3萬名을 代表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 다만, 그쪽 體制問題를 가지고 말은 안하겠습니 다만 代表해 가지고 온 것임.</p>	<p>6千萬이 발동해서 우리가 나라의 統一 이룩해야 되는데, 불과 900名도 안되는 選拔된 政治人들이 모여앉는 정도야 이 民族和解에 하나의 집대성의 尺度인 것임. 정말로 民族大和解의 길로 나가자고 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함.</p> <p>(3 - 討議 - 42~43)</p> <p>連席會議 自體, 北南國會議員들이 한자리</p>

우 리 측	北 측
<p>그래서 最高人民會議 代表 그것하고 우리 쪽 代表들과 같이 하자 그러는데, 南北韓의 人口가 4千萬, 6千萬 하나까 南北間에는 人口差가 많음.</p>	<p>에 모인다는, 連席한다는 自體가 議題, 全民族構成員의 生存과 關聯되는, 그러한 問題와 關聯된 매개인이 제각기 소속하는 構成員들이 代表性을 가지고 있고, 代表性에서 發言할 수 있음.</p>
<p>國際議會聯盟에서는 南北韓의 投票權이 差異가 있는데 왜 投票數의 차이가 있느냐면 各國의 人口比例에 따라서 投票數가 差가 있음 (3 - 討議 - 54)</p>	<p>이 連席會議 自體가 代表性的의 原理를 混淆하게 具現하고 있으므로 北南關係에서의 代表性的의 原理를 具現한 連席會議가 더 좋지 않은가 난 이렇게 생각함. 北南關係에서의 代表들을 뽑는 그 代表性的의 原理는 필연코 우리가 여기서 마주앉는 것처럼 對決關係를 띠지 않을 수 없지만 國會連席會議같은 이 代表性的의 原理에서 모여 앉는다는 것은 對決關係가 없어짐.</p>
<p>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論議를 하면서 한가지 느낀 것은 정말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民族의 念願을 담아서 이렇게 모여 있는 이 會談場所에서, 참 失禮의 말씀인데 貴側에서 解放後 一貫되게 主張하시는 連席會議形式, 이거 정말 변하지 않았음.</p>	<p>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北南側은 代表했다는 이런 利害關係가 아니라 이 地域人民들의 生存과 關聯되는 問題니까 함께 마주앉아 討論하면 이런 對決不信부터 없어짐.</p>
<p>48年度에 있었던 金九先生이 갔을 當時에 그 會談形式, 그와 類似한 內容의 形式을 지금까지 主張하시는데, 심지어는 85年度에야까 金先生 말씀하신대로 最善策은 아니지만 次善策을 摸索하기 위해 11名씩 代表會談을 하자 이렇게 했던 善意조차도 다시 되돌려 놓았음.</p>	<p>(3 - 討議 - 52~53) 朴浚圭先生께서 連席會議가 듣는 것도 처음이고 辭典에도 없다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 이 連席會議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들었</p>
<p>(3 - 討議 - 64)</p>	

우 리 側	北 側
<p>자꾸 貴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民族이 摸索하는 獨特한 方式, 이것을 자꾸 主張하시는데 남들이 한 일이라든지 잘된 것은 따라가는게 順序임. 길을 놓고 아직도 可能性 與否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그러한 길을 찾아나가며 만들어 나갈 필요는 없음.</p>	<p>을 때 진짜 首席代表께서 이 連席會議를 是非하기 위해 하는 말씀인지, 反對하기 위한 말씀인지, 反對하기 위한 反對인지 선 그 意圖를 잘 모르겠음.</p>
<p>(3 - 討議 - 64)</p>	<p>李漢東議員께서도 南鮮國會에서 分科委員會 互相間에 連席會議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 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朴浚圭先生께서는 여러번 國會議員을 하셨는데도 連席會議를 처음 듣는다고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실 수 있는지 모르겠음.</p>
<p>貴側에서도 85 年度에 이 問題를 解決할 때 이 全體 連席會議라는게 不便한게 事實이다, 不便을 덜기 위해 次善을 擇한다, 이런 말을 했음.</p>	<p>現實的으로 南朝鮮의 野黨들이 連席會議를 했다는 걸 우리 最近에도 많이 듣고 있음.</p>
<p>最善을 追求하다 結局 안되며는 次善의 길이라도 가는게 民主主義의 本質임.</p>	<p>(3 - 討議 - 59)</p>
<p>(3 - 討議 - 64)</p>	<p>1948 年度 南北連席會議에 대해서 말한다면 朴浚圭先生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도대체 뭘 解決했느냐? 結局 失敗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시면 안됨.</p>
	<p>그건 北의 共產主義者와 南의 民族主義者들간의 聯合에 아주 貴重한 模範이라고 말할 수 있음.</p> <p>여기에 金九·金奎植先生 以下 愛國的인 이런 분들이 다 參加하셨음.</p>

우 리 側	北 側
	<p>이 南北連席會議는 분명히 우리나라 統一 運動史에서 빛나는 자리를 앞으로도 繼續 차지하고 우리에게 重要한 이런 教訓을 주리라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3 - 討議 - 59~60)</p> <p>赤十字 人道主義問題도 代表會談에서 이걸 다 討議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離散家族 千萬이 다 모여서 하자고 합니까? 그것은 離散家族을 代表할 수 있는 그런 代議制機關이 없다 그말임.</p> <p>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서슴없이 代表會談으로 해야 함.</p> <p style="text-align: right;">(3 - 討議 - 61)</p> <p>우리는 물론 여러분들이 南朝鮮 國會에서 南朝鮮 國民들의 要求를 反映하리라고 생각함. 그러나 결코 여러분들이 國會밖의 소리를 다 受容한다고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음.</p> <p>지금 國會에서는 우리에게 보내는 決議文을 採擇했음. 우리 北朝鮮 選手들 南朝鮮에서 하는 올림픽에 參加해달라, 이거 滿場一致로 決議案을 採擇했음. 그러나 南朝鮮 現實은 共同主</p>

우 리 側	北 側
	<p>催를 主張하는 사람들이 많음. 南朝鮮 國會 가 이것을 代辯할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3 - 討議 - 62)</p> <p>現實的으로 지금 南朝鮮에서는 政黨·團體 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各界各層 人民 들 속에서 各樣各色의 統一主張들을 들고나오 고 있고, 그들 자체가 北南對話에 대한 特定 한 階層의 獨占을 反對하면서 統一問題 解決 에 자기들의 意思를 直接 反映하기 위해서, 北 과의 對話에 參加할 것을 그 어느때 보다도 強 力하게 主張해 나르고 있음.</p> <p>北과 南의 國會 政治인들이 協商을 하자고 하는 마당에서 우리들은 各界各層 人民들의 이러한 主張과 要求를 無視하지 말아야 하고 될수록 그것을 최대한으로 集大成할 수 있는 協商方式을 摸索해야 하는 것임.</p> <p>現時期 北과 南의 各界各層 人民들의 意思 와 念願을 충분히 集大成할 수 있는 最小限의 協商方式은 두말할 것도 없이 人民들로부터 選 舉를 받은 雙方의 國會議員들 全員이 參加하 는 同時에 그리고 다른 政黨·團體 代表들하 고 各界 人士들이 參加하는 國會連席會議를</p>

우 리 측	北 측
	<p>進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p> <p>(4 - 基調 - 20)</p> <p>雙方의 國會議員들과 다른 政黨·團體 代表들, 各界 人士들이 다 같이 參加하는 北南 國會連席會議가 열리면 民族의 重大事를 解決하는데 各界各層 人民들의 意思를 훌륭히 集大成할 수 있고, 虛心坦懷한 協議를 통해서 가장 合理的인 解決方途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北과 南의 政治人들의 接觸과 交流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民族的 和解와 團合의 새로운 轉機를 얻어 놓게 될 것은 疑心할 바 없음.</p> <p>(4 - 基調 - 20)</p> <p>우리 政治人들이 말로만 緊張緩和에 대해서 운운하면서 緊張緩和을 위한 實質的인 措置를 取하지 못해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戰爭이 터진다면 民族和解와 團合, 對話, 統一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우리 民族은 돌이킬 수 없는 慘禍를 피할 길이 없게 되고, 國土는 廢墟로 될 것임.</p> <p>우리 政治人들은 이러한 悲劇的인 事態를 보고만 있을 수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p>

우 리 側	北 側
	<p>리나라에서 戰爭이 터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임. 그러자면 우리側이 貴側에 보낸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草案을 協議・解決하는 길 밖에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4 - 基調 - 21~22)</p> <p>貴側은 會議形式과 關聯해서 많은 사람들이 參加하는 것은 複雜하기 때문에 效率性を 높일 수 없다는 단 하나의 구실로 우리 國會連席會議의 提案을 무작정 反對하고 있음.</p> <p>우리는 會議形式을 選擇하면서 複雜性和 效率性에 대해서도 考慮해야 하겠지만 보다 重要的 것은 各界各層 群衆의 意思를 正確히 反映할 수 있는 가장 合理的인 形式을 擇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p> <p>여러 사람이 參加하면 複雜하고 몇 사람이 모여 앉으면 能率的으로 協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主張임.</p> <p>몇 사람이 모여 앉는다 해도 서로 立場이 다르면 아무리 討議 한다고 해도 옳은 對策을 찾지 못하고 甲論乙駁을 하면서 時間을 限定없이 끌게 될 것임.</p> <p>여기에 대해서는 過去 對話經驗이 實證해</p>

우 리 側	北 側
<p>우리 民族内部의 問題니까 우리 獨特한 方式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지금도 效果的인 方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效果的인 그 方法의 內容은 實務次元에서 나중에 運營節次에다 말기자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重要的 會談形式의 性格上의 本質問題임.</p> <p>(4 - 討議 - 47)</p>	<p>출 뿐만 아니라 이번 우리들의 相逢過程이 또 한 雄辯으로 實證해 주고 있는 것임.</p> <p>(4 - 基調 - 23~24)</p> <p>問題는 參加者들이 眞正으로 上程된 問題를 解決하려는 立場에 서는가, 아니면 時間이나 끝면서 解決을 回避하는가 하는데 있지 결코 効率性에 問題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임.</p> <p>會議形式을 몇 사람이 參加하는 代表會談으로 하자고 하는 貴側 主張은 民族의 中대사를 協議·解決하는데 多數의 意見이 反映되는 것을 막자는 것으로 밖에 달리는 볼 수 없음.</p> <p>(4 - 基調 - 24)</p> <p>그리고 貴側은 우리 連席會議提議와 關聯해서 그러한 會議는 世界 어디에서도 해 본 적이 없다는 구실을 들고 反對해 나서고 있음.</p> <p>이거 역시 아무런 妥當性도 없는 것임. 우린 그 어떤 다른 나라의 問題가 아니라 바로 우리 民族 内部問題를 풀기 위해서 會議를 하자는 것임.</p> <p>따라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해 보았는가 해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前面에 提起할 必</p>

우 리 側	北 側
	<p>要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임.</p> <p>우리나라의 統一問題 자체가 지금까지 世界 다른 나라에 있어 본적이 없는 特殊한 問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한 經驗을 機械的으로 따르며, 따르려 한다면 聯合會議形式을 選擇할 수 없음.</p> <p>우린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든 그것을 教條的으로 따를 必要가 없고 우리 民族 內部問題를 푸는데 適合하고 利로운 形式이라면 주저없이 그것을 選擇해야 하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4 - 基調 - 24)</p> <p>더우기 看過할 수 없는 것은 國會議員들이 바쁘게 어찌든 全員이 北과 南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會議를 하겠는가 하면서 連席會議를 貴側이 反對하고 있는 事實임.</p> <p>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하는 것 보다 雙方 國會議員들에게 더 緊要하고 重大한 問題는 없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4 - 基調 - 25)</p> <p>北南國會들 사이 協商은 北南國會議員들이 同席하는 合同會議로 함.</p>

우 리 側	北 側
<p>그쪽에서 299名, 655名 全員으로 構成하는 連席會議를 主張했었고, 議決方法은 그때도 議決을 할 때에는 양쪽이 同數가 參席하는 그러한 狀況에서 議決을 하면된다고 했고 共同運營委員會도 그때 이미 그 連席會議 內容中에 包含되어 있었음. 그렇게 볼때 當初 提案한 連席會議를 合同會議라고 두字만 바꾼것 以外에는 本質的인 內容에서 크게 差異가 없음.</p> <p>(4 - 討議 - 36, 42)</p>	<p>國會議席을 가지고 있지 않는 政黨・團體 代表들과 各界 人士들을 北南國會合同會議에 參加시키는 問題는 保留하고 本會議에 가서 協議함.</p> <p>(4 - 基調 - 28)</p> <p>오늘 우리들이 提案한 것은 「連席會議」 그 名稱을 「合同會議」로 바꿀 뿐 아니라 그 構成人員 內容에서도 國會議員들만 參加하고 政黨・團體, 個別人士들의 參加는 이걸 保留하고 本會議에 가서 協議한다는 것임.</p> <p>이러니까 相當한 差異임. 이걸 큰 讓步임.</p> <p>(4 - 討議 - 36, 74)</p>
<p>여기서 이것을 매듭짓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實質的인 意味에서는 되풀이 되지만 政黨 社會團體 그 問題를 保留하는 것 以外에는 貴側에서 새로 提議하신 內容이 名稱變更 以外에는 큰 調整을 안한 것 아니냐, 이것을 제가 確認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함.</p> <p>(4 - 討議 - 47)</p>	<p>先生들은 合同會議 形式自體를 合意하고 그 實務的 問題를 協議하자는 그런 方向으로 協議에 應해 줘야지, 國會連席會議 修正인가, 本質과 같다, 왜 이렇게 자기네 立場에서만 問題를 解明하는지 알 수 없음.</p> <p>우리의 提案이 先生들 意見의 重要한 한 部分을 참작했으며, 局面을 打開하기 위한 案</p>

우 리 側	北 側
<p>오늘 代案으로서 政黨·社會團體와 各界人 士들이 參席하는 것은 排除를 하고 『國會議 員들끼리 만나자』하는 것은 發展的인 提案 으로 받아들일것음.</p> <p>내 個人意思로서는 아주 發展的인 意思다, 그건 뒤늦게나마 貴側에서 政黨·社會團體, 國會議員 全員이 參席하는 連席會議 그런 形 式가지고는 民族의 生存權과 緊張緩和와 信 賴回復, 民族의 同質性, 統一이라는 이 方向 으로 가는데 深度있게 效率的으로 討議·協 議하기 어렵다는 것을 늦게나마 認定해 주셨 다는 點에서 고맙게 여김.</p> <p style="text-align: right;">(4 - 討議 - 37)</p> <p>貴側에서 提案한 問題를 내 個人的으로는 發展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 見解는 서 로 讓步만 하면 妥協할 수 있는 길이 可能性 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4 - 討議 - 72)</p>	<p>으로서 提起되었다고 認定하면 그 각도에서 좀 더 誠意껏 協議를 해야 됨.</p> <p style="text-align: right;">(4 - 討議 - 43)</p> <p>民族의 運命問題를 論하는데 國會議員들만 모여서 하기 보다 政黨·團體 參加시켜서, 國會밖에 있는 政黨·團體들 個別的 人士들 의 意思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國會안에서 우 리 듣는것, 그것도 아주 좋음. 그집에선 지금 도 變함 없음.</p> <p>우리가 새 提案을 내놓게 된것은 貴側이 우 리 이런 合理的인 提案을 줄곧 받아들이지 않 고 고집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 은 提案은 合理的이며 정당한 것이지만 問題 를 解決하기 위해서 打開策으로 大幅 讓步해 서 이런 案 내놓은 것임. 이거 明白히 함.</p> <p style="text-align: right;">(4 - 討議 - 39)</p>

우 리 측	北 側
<p>지금까지 主張해 오던 國會議席을안가진 政黨・社會團體 그리고 各界人士를 꼭 貴側에서 主張하는 北南連席會議에 參與를 시켜야 되겠다 했던 立場을 바꿔가지고 政黨・社會團體代表와 各界人士를 參與시키는 問題는 本會議에 가서 論議를 하기로 하고 留保를 한다, 그것은 暫定的으로 그런 代案을 提示한 것으로 우리가 評價를 해야 되겠음.</p>	
<p>(4 - 討議 - 45 ~ 46)</p>	
<p>政黨・社會團體 代表를 參與시키는 問題는 일단 保留하고, 그것은 本 合同會議가 열렸을 때 거기서 討議해서 決定한다는 그러한 趣旨지요?</p>	<p>本會議에 가서 본다, 그말임.</p>
<p>(4 - 討議 - 41)</p>	<p>(4 - 討議 - 41)</p>
<p>政黨・社會團體 人士問題를 本會議에서 協議한다는 것은 이번에 本會議 議題에서 빼기를 바람.</p>	
<p>이 問題는 꼭 하고 싶으면 以北의 政黨・社會團體하고 以南의 政黨・社會團體하고 다른 「채널」을 通해서 協議하도록 하고 이번 國會 本會談에서는 이것을 本會談 議題로 넣지</p>	

우 리 側	北 側
<p>말라는 것임. (4 - 討議 - 73)</p> <p>지난번에 連席會議 提案을 했을 때 그 內容으로 提議한 資格審査委員會라는 것은 아주 없 어지는 것인지? (4 - 討議 - 41)</p> <p>그런데 그것과 關聯해서 한가지 分明하게 말 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시면서 同時에 共同 資格審査委員會 3人씩을 두자 이렇게 했던 것 을 그냥 놔 둔다하는 것은, 첫째 저로서는 잘 理解가 안감.</p> <p>왜 그러냐하면 먼저 團長先生께서 애초에 原案을 내놓으실 때는 그 參與시키는 그 사람 들의 資格審査를 中心으로 해서 그런 機構를 두자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存置를 시켜놓 자 하는 것은 本質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 까 우리側 李漢東 議長께서 얘기하신대로 實 質的인 內容에 있어서는 그 問題를 結末을 안 짓고 넘어가는 結果가 된다는 것을 저는 確 認하고 싶음. (4 - 討議 - 46)</p>	<p>그건 살아있는 것임. (4 - 討議 - 41)</p>

우 리 側	北 側
<p>資格審査委員會는 서로 없는데 낫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貴側의 人民會議 代議員 名簿나 우리 名簿나 이거 참 流動的임. 그러니까 그런 것 일일이 시작하면 서로가 안 믿는 것이 됨.</p> <p>(4 - 討議 - 48)</p> <p>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들의 立場은 國會會談으로서 20名 代表로 하는 것이 우리들의 立場인데 기왕에 이런 案을 提示했으면 이 全體會議가 꼭 모여야 하는 것인지, 여기서 숫자를 代表性을 認定해서 몇사람 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代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 본 것임.</p> <p>全部를 否定的으로 全面 拒否하는 그런 立場은 아니라는 것임.</p> <p>(4 - 討議 - 44)</p>	
<p>20名의 代表者會議에서 모든 議案과 運營內容에 合意를 보면 우리는 그 結果를 追加적으로 承認하는 合同會議를 일 수 있는데 贊成함.</p> <p>그 合同會議는 어떤 경우라도 雙方의 立場을 表示하는 滿場一致制가 되어야 하며 多數</p>	<p>合同會議 運營節次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問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論議하자는 것은 먼저 그쪽에서 계속 20名 代表者會議를 고집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이래도 우리의 이러한 誠實한 姿勢를 보여서 政黨・團體를 參加하는 問題는 우리가 保留</p>

우 리 측	北 측
<p>決은 없음. 그렇게 答을 하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을 것임.</p> <p>形式을 떠난 合同會議에 贊成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答은 形式을 規定하지 않고는 答을 못함.</p> <p>그러나 우리는 滿場一致의 合同會議는 나중에 追加的으로 認定하는 의미에서 贊成하고 提案해 놓았음.</p> <p style="text-align: right;">(4 - 討議 - 57)</p>	<p>하는 立場을 表明하면서 合同會議를 하자는 이 提案에 贊成을 하는가?</p> <p>우선 이게 먼저 合意가 되고 만약에 이것이 合意되면 그 다음에 우리 節次上 問題, 運營上 問題, 이게 多數決로 해야 되는가 무슨 뭐 어떻게 하는가 이런 問題, 資格審査委員會를 두는가 안두는가, 이 問題는 우리가 또 다음에도 討議할 節次가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4 - 討議 - 56)</p>
<p>合同會談를 열어가지고 이 民族 內部問題를 表決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合意된 事項을 만장일치로 採擇하게 하기 위해서 그 以前에 하나의 前置하는 形式으로서 우리側의 代表 20名 그리고 貴側에서 내는 代表 20名이 모이자는 것임.</p> <p>거기에서 정말 이 民族問題를 全體會議에 가서 曰可曰否를 하고, 表決을 하고 아까 李漢東 議長 말씀대로, 49對51이나 등등 그런 문제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兩側의 同數 20名씩이 모여서 그 代表들이 충분한, 역시 政治에는 現實問題도 있는 거니까, 여러가지를 서로간에 合意點을 발견해 가지고 완전히</p>	

합
의
가
서
거
치
지
않
는
것
이
기
때
문
에
합
의
된
事
項
을
만
장
일
치
로
採
擇
하
게
하
기
위
스
터
서
그
이
전
에
하
나
의
前
置
하
는
形
式
으
로
서
우
리
측
의
代
表
20
名
그
리
고
貴
측
에
서
내
는
代
表
20
名
이
모
이
자
는
것
임
.

합
의
된
事
項
을
만
장
일
치
로
採
擇
하
게
하
기
위
스
터
서
그
이
전
에
하
나
의
前
置
하
는
形
式
으
로
서
우
리
측
의
代
表
20
名
그
리
고
貴
측
에
서
내
는
代
表
20
名
이
모
이
자
는
것
임
.

거
기
에
서
정
말
이
民
族
問
題
를
全
體
會
議
에
가
서
曰
可
曰
否
를
하
고
表
決
을
하
고
아
까
李
漢
東
議
長
말
씀
대
로
49
對
51
이
나
등
등
그
런
문
제
를
피
하
게
하
기
위
스
터
서
미
리
兩
側
의
同
數
20
名
씩
이
모
여
서
그
代
表
들
이
충
분
한
역
시
政
治
에
는
現
實
問
題
도
있
는
거
니
까
여
러
가
지
를
서
로
간
에
合
意
點
을
발
견
해
가
지
고
완
전
히

우 리 側	北 側
<p> 합意된것을 가지고 그 다음번에 合同會議에 가서 滿場一致로 確認하고 追認하는 節次를 거치자 하는 내용임. </p> <p> 지금 우리 首席代表께서 運營委員 11名도 좋다, 20名이라도 좋다, 하신 얘기는 그러 한 性格의 合同會議 以前에 우리가 合意點을 발견하는 그러한 會談, 國會會談을 意味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代表의 한 사람 으로서 貴側에 얘기함. </p> <p style="text-align: center;">(4 - 討議 - 58 ~ 59)</p> <p> 合同會議의 內容에 관해서 즉 說明을 하면 서 構成은 南北國會議員 全員인 南의 299名 北의 655名 全員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금까 지 連席會議의 內容으로 주장했던 政黨·社會 團體의 參與問題는 本會議에서 協議·決定하 도록 한다고 保留할 것을 말했음. </p> <p> 그리고 議決方法은 多數決의 原理를 그대로 連席會議의 內容으로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말 을 오늘 했고, 그 외에 무슨 共同委員會 運營 問題, 資格審査委員會를 두어서 運營해야 된 다는 문제, 이렇게 얘기한 내용을 가만히 들 어보면 修正案이라고 하면서도, 連席會議의 本 </p>	

우 리 側	北 側
<p>質的인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라 包裝만 바꿨지 알맹이는 결국 그대로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4 - 討議 - 65)</p> <p>千名갖고는 안된다는 얘기를 그만큼 알아듣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繼續 主張하시면 進一步가 안됨.</p> <p>國會會談으로 하되 우리들이 主張했던 20名에서 조금 숫자를 늘이는 方向으로 우리 습意點을 導出해 보자 이렇게 豫備接觸을 進行시키면 좋다는 것임. 그렇지 않고는 妥協이 안됨.</p> <p style="text-align: center;">(4 - 討議 - 74)</p> <p>政黨·社會團體 各界人士를 排除한다는 그러한 基本 밑에서 貴側에서는 954名이 모이는 合同會議가 되었든지 連席會議가 되었든지 多衆이 모이는 그 모임을 繼續해서 主張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도 節對的인 不變의, 貴側의 會談形式의 方針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우리 側에서 含縮性있게 國會會談이 되었든지 合同會議가 되었든지 連席會議가 되었</p>	

우 리 側	北 側
<p>든지 양쪽 國會가 만나는 形式을 多少 含縮性 있게 提案했을 때는 여러분도 그 分野에서 受容할 수 있는 用意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이 節對值냐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 짚은 이야기 하여 주실 必要가 있음.</p> <p>(4 - 討議 - 95)</p>	
<p>20 名에 대해서는 含縮性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20 名에 대해서는 含縮性이 있다고 했음.</p> <p>(4 - 討議 - 97)</p>	<p>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案을 내놓으시라는 말임.</p> <p>(4 - 討議 - 97)</p>
<p>여러분들이 전혀 變更할 수 없는 基本立場이 있다고 한다면 내놓아 봤자 소용이 없는 것임.</p> <p>(4 - 討議 - 97)</p>	<p>그렇지 않음. 원래대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런 案을 提起했음.</p> <p>(4 - 討議 - 97)</p>
<p>連席會議 方式은 南北關係 現實을 비추어보거나 會談의 效率性과 生産性問題 등을 考慮할 때 合理的인 會談形式이라고 볼 수 없음.</p> <p>(5 - 基調 - 28)</p> <p>南北 國會會談은 「개회모임」과 「議題討</p>	<p>連席會議나 合同會議가 「複雜」하고 「效率性」이 없다고 하면서 代表會談形式의 國會會談만을 주장하는 것은 대결의 관념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생각함.</p> <p>連席會議나 合同會議가 「複雜」하고 「效率性」이 없다는 주장의 바탕에는 서로 다른</p>

우 리 측	北 側
<p>議를 위한 代表會議」, 「폐회모임」順으로 進行함.</p> <p>먼저 우리가 南北國會會談을 「개회모임」과 「議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談」, 「폐회모임」順으로 進行하고 개·폐회모임은 南北國會合同會議 形式으로 全員이 參席하도록 하고 議題討議는 代表會談 形式으로 進行하자고 하는 것은 會談의 效率性和 生産性を 提高하면서 同時에 南北關係의 現實을 함께 考慮한 것으로서 國會會談의 參加者 數를 많이 늘리는 貴側 主張도 反映시킨 會談形式이라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5 - 基調 - 30)</p> <p>形式問題는 그런 友好的인 交換 또 決意를 다지는 그런 會議는 全員이 모여서 合同會議를 해도 좋으나 實質的인 議題는 나중에 代表會談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음. 數에 대해서는 우리가 提案을 안했음. 適正한 數의, 相互 合意할 수 있는 數로 代表會談을 開會모임 후에 계속하자 이런 얘김.</p> <p style="text-align: center;">(5 - 基調 - 34)</p>	<p>制度에서 살고있고 서로 다른 사상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見解나 立場에 놓여있음.</p> <p>北과 南의 國會議員 900 명이나 1천명이 모이는 것이 대표 몇사람 마주앉는 것에 비해 다소 번거로울지는 몰라도 결코 國會連席會議나 國會合同會議를 그만두고 代表會談을 해야 한다는 타당한 근거로는 될 수 없음.</p> <p>그것이 다름아닌 對決의 觀念이며 時代錯誤的인 思考方式임.</p> <p>비록 思想과 制度는 달라도 민족적 理念을 전면내 내세우고 民族的 共通性에 기초하여 힘과 지혜를 모으면 民族的 和解와 團合, 統一을 위하여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해놓을 수 있음.</p> <p>사실 오늘 우리나라의 現實的 條件에서 國會合同會議가 실현되어 雙方國會議員 全원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그 자체가 民族的 和解와 團合의 廣場으로 될 것이며 정치인들의 지혜를 집대성하여 나라의 平和와 平和統一의 새 국면을 열어놓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음.</p> <p>그럼에도 불구하고 連席會議나 合同會議는 열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複雜」하고 「實効性」이 없다고 하면서 무턱대고 배척하면</p>

우 리 側	北 側
<p>過去의 國會會談처럼 雙務會談을 하자는 이 前提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됨. 거기서 1/3로 줄이고 반으로 줄이고, 이게 어디 客觀性이 있는 얘기인가? 이게 꼭 過去에 우리 南韓에서 南北韓 總選舉를 人口比例로 하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p> <p>(5 - 討議 - 43)</p>	<p>우리는 相逢을 진전시켜 나갈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언젠가도 민족적으로 和解하고 團合하지 못하게 될 것임.</p> <p>(5 - 基調 - 16 ~ 17)</p> <p>우리는 貴側이 여러 기회에 國會合同會議의 必要性을 인정한 바 있고 또 國會本會談 參加人員數를 늘릴 의사도 표시한 사실을 고려하면서 國會會談을 國會合同會議로 하되 參加人員數를 大幅 縮小하여 北側은 최고인민회의 전체 代議員數의 3分の1로, 南側은 전체 國會議員數의 절반으로 각각 縮小하여 參加할 것을 提案함.</p> <p>(5 - 基調 - 20 ~ 21)</p> <p>基本 核이 없음. 核이란게 뭔가 하면, 不可侵問題를 비롯해서 上程된 問題討議에 北과 南의 國會議員들이 상당히 參加해서 民族問題를 論하는데 直接 寄與할 수 있게, 상당한 國會議員들이 參加해서 이렇게 된게 이게 核인데, 여기에서는 開·閉會式은 全體가 한다, 議題討議는 代表會談에서 한다, 이러니까 開·閉會式이란 들어보면 그시 하나의 行</p>

우 리 側	北 側
	<p>事인.</p> <p>이미 決定하고 協議되고 合意된 걸, 그쪽 애 기대로 하면 共同聲明이 아니고 共同合意文件임. 그런 걸 그저 確認하는 것이 전부임.</p> <p>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參加하고 全員이 參加했다고 해서 國會議員 全體의 意思가 거기에 反映되는 것도 아니고, 民意를 廣範圍하게 收斂한다는 意味에서도 그게 不足點이 있고 弱點이 있다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5 - 討議 - 37 ~ 38)</p> <p>우리는 連席會議를 이렇게 行事로 하자는 것이 아님. 이 連席會議를 통해서 우리 國會議員들이 廣範圍하게 國論을 討論하자는 것임.</p> <p>어째서 양쪽 國會議員들 全員이 參加하는 것은 좋다고 하면서 全體가 開會・閉會에는 參加하는 것을 認定하면서 왜 이 問題討議에 만은 國會議員의 參加를 그렇게 制限하셨는가? 이것 自體가 一貫性없는 變則的인 會談 運營方式이라고 나는 생각함.</p> <p>어디 會議를 하면서 途中에 진짜 討論을 할 때는 다 빠지고 그런 것이 어디 있는가? 기왕 양쪽 國會議員들이 開會・閉會도 다 參加하</p>

우 리 側	北 側
	<p>는 것이 좋다고 하고 北에도 다 오겠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기왕이면 이 討論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다 參加해야 함.</p> <p>우리가 무슨 連席會議을 行事로 하자는 것인가? 계속 이렇게 되니까 連席會議와 代表會談이라는 이런 對峙狀態는 本質적으로 解消될 수 없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5 - 討議 - 54)</p> <p>合同會議을 한다해서 어느 一方의 主張이나 이걸 調整함이 없이 그저 議程을 세기하고 討論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多數決을 해서 強壓적으로 一方的으로 먹이겠다는 方法은 아님.</p> <p>충분한 協議, 말하자면 그쪽 國會形式과 비슷하게 하자는 것임. 例하면 議程定立도 내놓고 會議運營도 누가 責任지고 하는 것도 그쪽 方式대로 하자는 것이요, 意見相馳가 되는 問題는 충분히 討論해서, 意見相馳는 小範圍에서 幹事會議라든지 우리가 내놓은 共同運營委員會라든지 여기서 壓縮하고 調整하고 또 필요하다면 政黨代表들 나와서 또 協議하고 調整하고, 또 필요하다면 文書作成起</p>

우 리 側	北 側
	<p>草委員會 같은데서 協議하고 調整하고, 北과 南의 各黨 代表들 다 만나가지고, 이 정도면 大體的으로 意思가 定立됐다 할 때 그것을 可決에 붙인다든지 이런 方式으로 해서 적어도 절대 다수 議員들이 合意基礎해서 運營하자는 것임.</p> <p>그러니까 무슨 效率이라는 見地에서 말하면 貴側 國會나 合同 會議나 같음. 「開·閉 會모임」이라는 것과 우리가 「合同會議」라는 것과 지금 差異는 어디 있는가?</p> <p>우리가 말하는 合同會議는 그래도 北과 南의 政治人들이 다 發言權도 行使하고 可決에도 參加하고, 말하자면 問題解決의 直接 主人으로서 參加하자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5 - 討議 - 49~50)</p>

4. 本會談 進行方式

가. 南北國會合同會議 (開·閉會모임)

우 리 측	北 側
<p>「開會모임」과 「閉會모임」은 南北國會議員 全員이 參加하는 合同會議 形式으로 하고 議題討議는 代表會談形式으로 進行함.</p> <p>「開會모임」에서는 準備接觸에서 合意한 諸般事項을 確認하고 議題討議를 위해 各其 選定한 代表를 紹介하며 雙方 國會議長이 開會演說을 함.</p> <p>「開會모임」은 準備接觸 終了後 1個月 以內에 平壤에서 開催함. 사정이 許諾하지 않을 때는 서울에서 해도 무방함.</p> <p style="text-align: center;">(5 - 基調 - 29)</p> <p>「閉會모임」은 「議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談」에서 合意된 共同決議文을 確認·採擇하며, 「議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談」이 終了된 後 1個月 以內에 서울에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平壤에서 開催함.</p> <p>개·폐회모임에는 南北國會議員 全員이 參加하는 合同會議 形式으로 運營하며 이 자리에 나온 雙方 國會議員들 사이에 서로 人事와 歡談을 나누고 따뜻한 同胞의 情을 나누면서 歷史的인 南北國會會談의 開幕과 그 成功的 完遂를 祝賀할 수 있을 것임.</p>	

우 리 側	北 側
<p>이것은 우리 政治人들을 바라보는 거레에 게 기쁨과 希望을 주고 南北關係 改善에도 肯定的 影響을 미칠 것이며, 특히 「개회모임」은 議題討議에 좋은 氛圍氣와 環境을 提供하게 될 것임.</p> <p>(5 - 基調 - 30 ~ 31)</p> <p>「開會모임」을 열어 準備接觸에서 合意한 諸般事項을 確認하고 議題討議를 위해 각기 選定한 代表를 紹介하며 雙方이 開會演說과 重鎮들의 祝賀演說을 交換하는 한편, 「閉會모임」에서는 「議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談」에서 合意된 共同決議文을 確認・採擇하게 되면 온 民族의 祝福속에서 南北의 國會議員 全員이 參加하는 가운데 南北 國會會談의 始作과 끝을 훌륭하게 粧飾하게 될 것임. 이것 역시 또한 貴側의 南北 國會會談은 全員이 參席하는 것이 좋다는 意見을 우리가 대폭 受容한 것임.</p> <p>「開會모임」과 「閉會모임」이 서울과 平壤에서 각각 進行되면 우선 會議에 參加한 雙方 國會議員들 사이에 서로 人事와 同胞의 情을 나누면서 南北國會會談의 歷史</p>	<p>板門店相逢의 膠着狀態를 打開하고 새 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劃期的인 修正案을 내놓는 바임.</p> <p>1. 會議形式</p> <p>① 北南國會會議는 開幕會議와 基本問題 討議를 위한 會議, 閉幕會議로 함.</p> <p>② 開幕會議와 閉幕會議는 北南國會議員 全원이 參加하는 合同會議로 함.</p> <p>③ 基本問題 討議를 위한 會議는 雙方에서 각기 100명의 代表들이 參加하는 代表會議로 함.</p> <p>④ 開幕會議는 板門店 國會議員 相逢이 끝난 후 1개월안에 平壤에서 召集함.</p> <p>(6 - 基調 - 29)</p>

우 리 側	北 側
<p>的 開幕과 成功的 完遂를 함께 祝賀할 수 있을 것임.</p> <p>뿐만 아니라 이는 分斷史上 처음으로 南北政治人들 사이에 폭넓은 交流의 先例를 남게 되는 것으로서 政治人들이 앞장서서 相互 往來의 길을 트고 南北關係를 改善하는 데에도 커다란 寄與를 하게 될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6 - 基調 - 16)</p> <p>「開會모임」과 「閉會모임」은 南北의 國會議員 全員이 參加하는 合同會議 形式으로 함.</p> <p>「開會모임」에서는 準備接觸에서 雙方이 合意한 諸般事項을 確認하고 議題討議를 위해 各其 選定한 代表를 紹介하며 雙方 國會議長의 開會演說과 各黨을 代表하는 國會議員들의 祝賀演說을 交換함.</p> <p>「閉會모임」에서는 「代表會談」에서 合意・採擇된 「共同合意文」을 確認・公表하며 雙方 國會議長의 閉會演說과 各黨을 代表하는 國會議員들의 祝賀演說을 交換함.</p> <p style="text-align: center;">(7 - 基調 - 34 ~ 35)</p>	<p>閉幕會議는 基本問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議가 끝난후 1個月안에 召集함.</p> <p>開幕會議에서는 板門店 國會議員相逢에서 合意된 問題들을 確認하며 基本問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議에 破견할 雙方代表들의 名單을 發表함.</p> <p style="text-align: right;">(6 - 基調 - 30)</p>

나. 議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談 (基本問題 討議를 위한 代表會議)

우 리 측	北 側
<p>「議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談」에서는 상 정된 議題를 討議, 雙方合意에 따라 南北國 會會談 議題를 포괄하는 共同決議文을 作 成함.</p> <p>「議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談」의 代表數 는 雙方이 合意하는 適正 數로 하고 서울 과 平壤에서 번갈아 會議를 開催함.</p> <p>「개회모임」直後 「議題討議를 위한 第 1次 代表會談」을 開催함.</p> <p style="text-align: right;">(5 - 基調 - 29)</p> <p>「議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談」을 갖게 될 경우, 그것은 兩側이 眞摯한 態度로 議題를 深度있게 協議・妥協할 수 있는 機會를 提 供해 줄 뿐만 아니라 雙務會談에 의한 合 意制인 만큼 거기서 이룩된 合意事項을「폐 회모임」에서 滿場一致로 確認・採擇하는 데는 아무런 問題도 없을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5 - 基調 - 31)</p> <p>代表會談을 주장하는 南側의 主張에 대해 서 그것을 가능한 한 受容하면서 表現을 代 表會議라고 한 배경을 말할 때 이런 民族</p>	<p>基本問題討議를 위한 會議는 雙方에서 각 기 100名의 代表들이 참가하는 代表會議 로 함.</p> <p style="text-align: right;">(6 - 基調 - 29)</p> <p>民族問題를 다루는 것이고 民族의 運命 과 관련된 問題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雙方 雙務會談 形式은 그만두자,</p>

우 리 側	北 側
<p>問題나 統一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雙務會談 方式으로 하는 것 보다는 會議形式으로 하는 것이 더 民族의 念願에 副應하는 方法이 아니냐, 그런 말을 했음.</p> <p>그래서 결국 本質적으로 볼 때 오늘 提議한 代表會議라는게 어디까지나 本質에 있어서는 會議임.</p> <p>그렇기 때문에 執行部를 두자, 運營委員會를 별도로 두자, 논리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음.</p> <p>執行部 問題가 왜 나오는가 하면, 會議體니까 會議體를 움직일려면 우선 司會를 보는 사람을 議長이라고 하건 뭐라고 表現하든 간에 또 그 사람이 有故가 있으면 누가 代理할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執行部라는 것이 필요한 것임.</p> <p>또 會議體이기 때문에 會議體를 運營하기 위한 節次問題 등 사소한 문제를 雙方이 協議・決定하기 위한 共同運營委員會라는 건 꼭 있어야 될 것임.</p> <p>그렇게 볼 때 이 代表會議도 會議體로서 운영이 됨. (6 - 討議 - 52 ~ 53)</p>	<p>그래서 代表會議라고 해서 人員 縮小해서 各其 100名으로 나와가지고 國會議員 全員이 같은 權限과 資格을 가지고 連坐해서 말하자면 會議를 하는 方式으로 하지 首席代表를 中心으로 하는 雙務會談 그렇게는 하지말자는 것임.</p> <p>그리고 그 代表會議에서 왜 「代表」라고 했느냐 할 때는 그쪽에서 299名 다는 아니고 그 중 一部니까 代表로 했고, 우리 655名이 다는 參加 못하고 100名이 參加하니까 代表라고 했음.</p> <p>그리고 왜 「會議」라고 했느냐 하면 雙方 雙務的인 會談이 아니고 하나의 連坐하는 그런 會議다. 그래서 代表會議라고 이렇게 命名했음.</p> <p>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代表會談」 이런 것은 그 內容에 包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理解하면 되지 않는가? 이걸 무슨 뜻인가 하면 가령 平壤이면 平壤에서 이제 200名이 參加하는 代表會議를 한다고 할 때 그 代表會議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대로 自由롭게 合意도 하고, 우리 北의 政黨들은 또 北의 政黨들</p>

우 리 側	北 側
	<p>끼리 合意・協議하고…… 이래 그것을 南에서 오신 代表들이 合意된 意思를 가지고 그 會議에 臨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雙務的인 이런 協商方式은 그 안에 다 包含되어 있다. 그건 자연히 그렇게 될 것 같음. 그것도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한다면 막을 수도 없음.</p> <p>그러니까 民族問題를 놓고 論하는 무슨 赤十字會談하고 다르고 經濟會談하고 다르다 이것임. 이 國會會談이요 國會 本然의 運營方式을 살리자, 國會 本然의 運營을 살려서 이런 方式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임.</p> <p style="text-align: right;">(6 - 討議 - 39 ~ 40)</p> <p>開幕會議는 會議로 하고, 基本問題 討議는 會談으로 하고 다시 終結에 가서 會議로 하고, 會議로 했다가 會談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 變則的임.</p> <p>이걸 會議로 一貫시킬 수 없는가? 그래서 우리는 代表會議로 하자는 것임.</p> <p>그렇다면 貴側에서 얘기하는 20名 정도의 代表會談을 하는데 요란하게 무슨 開幕</p>

우 리 側	北 側
<p>代表會議하고 代表會談하고 어떻게 다른가? (6 - 討議 - 70)</p> <p>우리 首席代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本質에 있어서 거의 近接을 했으면 表現이 무슨 問題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p>	<p>會議라는 게 필요있는가? 그래도 100名 정도의 代表會議를 한다면 開幕會議가 意義가 있고 閉幕會議도 意義가 있음. (6 - 討議 - 48)</p> <p>代表會議와 代表會談 차이인데 그거 아까 說明해 드렸는데, 적어도 雙務會談式으로는 하지 말자는 것임. 形式上 首席代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對坐하는 형태로는 하지말자. 形式은 그저 國會會議 壓縮版이다. 南에서 하는 國會의 壓縮版이요 우리 最高人民會議하는 壓縮版이다. 이렇게 理解하면 되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執行部를 協議・調整機構로 거기다 얹혀 놓았다 뿐이다, 그런 差異가 있을 뿐임. 對坐하는게 아니라 連坐하는 것임. (6 - 討議 - 73)</p> <p>雙務會談 形式도 그 내부에 介在되어 있는 것임. 이런 形式을 우리가 代表會議라 하는데</p>

우 리 側	北 側
<p>지마는, 이것을 代表會談으로 이름을 붙일 거냐 代表會議로 할거냐 하는데 따라서 약간 內容이 달라짐.</p> <p>會談으로 하면 執行部라는 것은 必要없는거고 共同運營委員會도 必要없는거고 雙方이 司會하는 그런 負擔도 必要없는 거고 한데, 會議體로 할 때는 그렇게 전부 또 들어가야 됨.</p> <p>그런것에 대해서 어느 意味에서는 가장 지금 本質面에, 基本的인 面에 대해서 생각이나 立場이 어느 의미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임.</p>	<p>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主張해온 連席會議 완 본질적으로 다름.</p> <p>지금까지 南北連席會議, 北南連席會議를 우리가 主張하고, 合同會議를 우리가 主張하고, 合同會議를 主張해온 것은 무엇이나?</p> <p>北의 最高人民會議가 特定한 問題, 不可侵의 問題를 上程시켜서 北에서 最高人民會議를 하는 마당에 南의 國會議員들이 連席한다, 그런 意味에서 連席會議라고 했음.</p> <p>그러나 이걸 그렇게 아니고, 北에서 하는 무슨 代表會議에 南의 國會代表들이 參加하는게 아니라 같은 同格의 資格을 가지고 새롭게 모여 앉는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지금까지 우리 主張하던 連席會議나 合同會議하고도 形式이 다름.</p>
<p>(6 - 討議 - 85)</p>	<p>(6 - 討議 - 74)</p>
<p>南北國會會談에서 雙方이 討議하고자 하는 議題들, 즉 南北赤十字會談・南北經濟會談의 再開問題를 포함한 南北間의 多角的인 交流・協力問題, 南北不可侵宣言問題, 南北頂上會談 開催問題는 사실상 南과 北사이 에 協議・解決하자는 雙務的 內容으로서,</p>	<p>基本問題討議를 代表會議形式으로 하는가 아니면 代表會談形式으로 하는가 하는 問題를 決定함에 있어서 어떤 形式이 民族的 團合을 圖謀하는데 有利하겠는가 하는것을 위주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인정함.</p> <p>우리가 누누이 強調한 바와같이 雙方은</p>

우 리 側	北 側
<p>그 밑바닥에는 相互 現實認定과 尊重의 精神이 깔려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임.</p> <p>또한 같은 理念과 體制下에서는 會議方式의 모임이 生産的일 수 있으나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고 있는 狀況에서 雙方의 代表가 會議方式을 통해 生産的인 結果를 얻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며 아직까지 그같은 先例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결코 看過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함.</p> <p>우리는 第6次 接觸에서 「議題討議를 위한 모임」에 參加할 代表數를 50 : 50으로 合意한 것 自體가 南北關係 現實에 대한 相互 認定을 바탕으로 한 雙務的 會談關係를 反映한 것이라고 理解하고 있음.</p> <p>以上과 같은 理由로 나는 「議題討議를 위한 모임」을 雙務會談의 性格을 갖는「代表會談」으로 하는 것이 合理的이고 現實的인 方式이라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7 - 基調 - 30 ~ 31)</p> <p>「代表會談」은 雙方에서 各其 50 名의 代表가 參加하는 雙務會談 形式으로 함.</p> <p>「代表會談」은 雙方 合意制로 運營하며</p>	<p>北이나, 南이나 하는 觀念보다는 團合을 實現하고 統一을 이룩해야 할 하나의 民族이라는 생각을 앞세워야 함. 北과 南이라는 觀念을 떠나 하나의 民族이라는 立場에서 볼 때 雙方會談形式의 代表會談보다 代表會議形式이 優越하다는것은 더 論議할 필요도 없을 것임.</p> <p>우리가 代表會議를 하자고 하는것은 國會의 固有한 會議運營方式을 統一問題, 民族問題를 論議하는 마당에서도 그대로 살리자는 것임.</p> <p>代表會議問題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言及하고 싶은것은 貴側이 거기에 理解와 共感을 표시하면서도 그것이 앞으로 北南對話에서 하나의 前例로 되지 않겠는가 하고 憂慮하고 있는데 그 問題에 대하여 말한다면 모든 北南對話들을 다 會議形式으로 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됨.</p> <p style="text-align: right;">(7 - 基調 - 19 ~ 20)</p>

우 리 側	北 側
<p>表決은 하지 않음.</p> <p>(7 - 基調 - 34 ~ 35)</p> <p>貴側은 「會談」形式이 對決을 조장한다고 말하지만 結果를 生産的으로 生産해내자는 意味에서는 역시 會談形式으로 가지고 나가서 진지하게 討議하는 것이 生産的이고 또 效果的이고 時間도 節約할 수 있음.</p> <p>(7 - 討議 - 54)</p> <p>會談이나 會議냐가 基本原則임. 이 原則이 定해져야 細部事項이 나오는 것임. 執行部하고 共同運營委員會는 合意를 했으니 까 이대로 우리가 合意事項으로 할 것을 分明히 明示를 했음.</p> <p>會談과 會議는 다르며 이건 原則임. 會談이 될 때와 會議가 될 때는 具體的인 內容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임. 基本原則은 合意보지 않았음.</p> <p>다만 會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執行部와 共同運營委員會를 두고 共同議長制로 한다는 것은 合意된 事項임.</p> <p>(7 - 討議 - 64 ~ 65)</p>	<p>貴側은 우리 民族問題를 解決하고 統一問題를 解決하고 平和問題를 解決하는데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 때문에 이 會議形式도 代表會談으로 해야지 代表會議로는 할 수 없다는 이런 論理展開를 하는데 이것은 民族問題 解決에 대한 思考方式이 잘못된 것임.</p> <p>(7 - 討議 - 44)</p> <p>雙務會談에서야 首席代表가 있어서 무슨 紛爭問題가지고 首席代表가 오손도손 저녁에 가서 만난다든가 하면 되는 것이고 必要하면 連絡員이나 하나 中間에 놓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또 무슨 執行部가 있고 運營委員會가 있는가?</p> <p>우리가 지난번에 長時間에 걸쳐서 解釋 事業 했음. 「執行部」는 「代表會議」안에 있는 機構라는 것, 「雙務會談」의 機構가 아니라는 것, 또 「共同運營委員會」도 代表會議 안에 있는 機構라는 것, 雙務</p>

우 리 側	北 側
<p>貴側은 代表會談을 하는 것이 서로 맞서 는 것이고 對決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民族의 念願에 合致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對決이 아니고 서로 自己가 代表하고 있는 地域의, 우리 民族의 一部分과 또 이 地域의 特殊한 體制를 代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對決일 수도 없고 또 對坐일 수도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7 - 討議 - 70)</p>	<p>會談에는 存在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등 다 合意하고 理解했음.</p> <p style="text-align: right;">(7 - 討議 - 46)</p> <p>우리가 代表會議를 하면 貴側에서 마치 무슨 함정인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執行部라는것을 만들어가지고 紛爭問題들을 協議하자는 것임.</p> <p>또 可決方式에서 多數決이라는게 좋지않다해서 그것도 合意制로 다 받아들였고, 이 러면 이 代表會議 안에서 連坐하는 形式이기는 하지만 雙務會談 形式도 그 안에 內包되어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7 - 討議 - 48)</p>
<p>지난번 6次接觸이 끝난 후 전금철團長께서 記者會見 하시는 것을 내가 좀 보았 음.</p> <p>그때도 전금철 團長께서 記者들 앞에서 명백히 얘기를 했음. 代表會議로 할 것인가 代表會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合意를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을 했음.</p> <p style="text-align: right;">(7 - 討議 - 74)</p>	<p>이 形式은 國會本然의 運營方式임. 우리 最高人民會議도 그렇게 運營하고 對坐하는 形式이 없음. 그쪽 國會도 對坐가 아님. 이것을 합쳐서 그냥 連坐하는 形式, 國會本然의 運營方式으로 하자는 것임. 國會에 司會者가 있어가지고 執行하고, 各自가 나 와 政黨出身이 다 나와 發言하고 見解를 다</p>

우 리 側	北 側
<p>貴側은 우리側더러 지난번에 完全合意했던 事項들에 대해서 完全히 번복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側은 國會會議를 前提로 해서 거기서 代表者들을 다섯사람씩 열사람, 이렇게 執行部를 構成을 해 가지고 雙務的인 完全 合意制로, 또 거기다가 全體 國會會議에서는 確認하고 採擇하는 式이라면 참 좋은 案이겠다, 그 案은 돌아가서 이 다음 會議때 가지고 나오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지 合意한 것 아무 것도 없음.</p> <p>우리가 檢討하고 分析해 본 結果 그러한 「스타일」보다는 「會談」이 좋겠다는 우리 意志를 表明한 것임.</p> <p>그런데 그것을 一方的으로 顛覆했다는 얘기는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임.</p> <p style="text-align: center;">(7 - 討議 - 83 ~ 84)</p> <p>北쪽과 南쪽이 戰爭하지 말자, 侵略하지 말자, 干涉하지 말자, 또 南北韓間에 經濟</p>	<p>피력하는 이러한 方式임.</p> <p style="text-align: right;">(7 - 討議 - 49)</p> <p>貴側은 6次會談에서 代表會議 基本方式에 대해서 問議하면서 執行委員會와 運營委員會에 대해서 理解를 표시했음.</p> <p>그 다음에 可決方式에 대해서도 合意制에 意見이 도달하면서 이것이 代表會議이기 때문에 특히 必要하다는데 理解를 표시했음.</p> <p>다만 이것이 前例가 될까봐 우려하기 때문에 가서 研究해 오겠다고 했음.</p> <p style="text-align: right;">(7 - 討議 - 56)</p> <p>6次會議를 할 때 會議形式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의견을 가진 代表가 漢東先生임. 漢東先生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代表會談이 아니고 代表會議니까, 代表會議는 本質에 있어서 會議니까, 그렇기 때문에 執行部를 두는 것이고 그리고 運營委員會를 두자는 것은 論理上으로 대단히 맞다고 했음.</p> <p>率鎬先生도 뭐라고 그랬는가하면 會議</p>

우 리 側	北 側
<p>的인, 赤十字的인 또는 離散家族을 위한 交流를 하자 라는 議題는 雙務的 會談을 意味하는 것임.</p>	<p>「스타일」은 대단히 좋은데, 200 명이 많기 때문에 좀 줄일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休息을 한 다음에 다시 해서 50 명으로 줄였음.</p>
<p>이러한 問題는 會談을 통해서 解決될 問題지 不可侵問題를 어떻게 會議體를 構成해 가지고 거기서 論議하자는 이야기인가?</p>	<p>(7 - 討議 - 65 ~ 66)</p>
<p>現實的으로 北과 南이 다른 體制下에서 現存하고 있음. 여러분과 우리가 對等한 立場에서 50 對 50 , 다시 말해 1對1의 位置에서 會議를 하자, 會議構成員도 1對1의 原則에 의해 가지고 50 對 50 으로 構成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對等한 位置이며 그래서 會談의 形式이어야 됨.</p>	<p>南이건 北이건 우기기전에 民族 共同의 成員임. 우리는 이 立場에 서자는 것임. 이것이 우리가 會議形式으로 하자는 趣旨임.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째서 우리 한 집안의 大事를 論議하는데 친척끼리 두패로 갈라서 論議하는가 그것임.</p>
<p>(7 - 討議 - 93 ~ 94)</p>	<p>우리는 벌써 聯合會議, 連席會議에서부터 오늘 代表會議로 後退를 했음. 그러나 貴側에서는 會談形式 問題에 대해서는 一步의 讓步도 없음.</p> <p>(7 - 討議 - 72)</p>
	<p>會議形式問題에 관해 지난번 合意된 事項을 우리가 뒤집어 엮는다든지 그래서 새로 出發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것을 받아들이든지 이렇게 돼야 됨.</p> <p>(7 - 討議 - 75)</p>

다. 執行部(幹事會談)

우 리 측	北 側
<p>지금 같으면 各 政黨代表들로 하여금 執行部를 構成하겠다는 構想이신데, 이 執行部를 兩側에서 대략 몇 사람으로 생각하는가?</p> <p>(6 - 討議 - 37)</p>	<p>基本問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議에서는 各 政黨 代表들로 執行部를 構成하며 代表會議에서 提起되는 意見相異는 執行部에서 協議 調整함.</p> <p>(6 - 基調 - 30)</p> <p>代表會議라든가 이런 것 해서 한 100名 쯤 모여 앉으면 뭐 多衆會議다 效率的이 못된다 이런 얘기도 되기 때문에 그 會議를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해서 「執行部」를 各 政黨代表들로 構成하자. 물론 그 執行部에 議長도 들어가 있지요, 雙方 議長도 들어가 있음.</p> <p>그래서 司會는 議長이 하도록 하고, 共同 議長이 나와서…… 그리고 執行部를 構成해서 그 紛爭問題들, 意見合意되지 못한 것들을 執行部에서 調整하고 協議하고 하자.</p> <p>(6 - 基調 - 35 ~ 36)</p> <p>우리가 基本으로 念頭に 둔 것은 그저 各 政黨에서 代表 한사람씩을 念頭に 두고 있는데, 큰 政黨 같은데는 조금 伸縮性있게 뭐 한 두어명 더 둘 수 있다고 생각함.</p>

우 리 側	北 側
<p>전단장께서 執行部가 各 黨의 代表들로 構成되어서 問題가 되는 것을 討議하고 이것을 代表會議에 넘기면 滿場一致로 可決될 것이다 그랬음.</p> <p>그런데 거기에 대해 나는 아주 本質적으로 疑問이 있는 것이, 貴側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걸쳐 主張하신 可能的 多數가 모여서 이 民族問題를 討議하자 그랬음.</p>	<p>(6 - 討議 - 37)</p> <p>執行部가 政黨代表들로 構成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意見紛爭問題는 討論하는 過程에서 提起된 紛爭問題는 執行部에서 協議하고 休息을 宣布하고 協議하고 合意함.</p> <p>가령 滿場一致로 執行部에서 最終合意 봤다고 하자. 그건 아무래도 全體會議에 通過를 시켜야 되니까. 이 執行部에서 滿場一致로 이렇게 意見合意를 보고 그 內容을 宣布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태반의 경우에 滿場一致로 通過되리라고 봄.</p> <p>(6 - 討議 - 43)</p> <p>民族問題라는 것을 討議하는데 그 討議에 參加하는 분들은 우선 多數가 參加하여 討議하자는 것임.</p> <p>代表會議 基本方式은 全體가 같은 資格을 가지고 同等한 資格을 가지고 參加해서 民族의 運命하고 관련된 問題를 集中的으로 廣範圍하게 幅넓게 깊이있게 討論하자, 그것이 基本方式임.</p>

우 리 側	北 側
<p>그러면 執行部에서 討議한 것을 우리가 主張한대로 南쪽 國會議員 全員, 北쪽 國會議員 全員이 모인 閉會모임에서 滿場一致로 可決하면 그것이 보다 多數가 參與하고 양쪽 議員이 모이는 것이시, 이게 뭐 또 100 名씩 모이자는 것이냐? 그것이 理解가 안감.</p> <p style="text-align: center;">(6 - 討議 - 44 ~ 45)</p>	<p>거기에서 紛爭問題들을 解決하는 方式으로써 執行部에서 協議・調整하는 것임. 그래서 基本方式은 이대까지나 多數가 모여서 655 名, 299 名 다 모이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못하시겠다니까 이 정도만이라도 모이어서 그래도 多數意見의 形式으로 運營해보자는 것임.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紛爭問題들을 效率的으로 結束시키기 위한 方法으로서 執行部를 構成해서 處理하자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6 - 討議 - 45)</p>
<p>代表會議를 하면서 議長을 包含해 가지고 예컨대 各黨의 代表라든지 會議에서 異見이 있는 것을 말하자면 協議・調整하기 위해서 執行部를 構成한다고 그랬는데, 이 執行部의 構成에 대해서 貴側에서 생각하시는 意見이 무엇인지 그리고 意見相異에 대해서 協議・調整하는 것이 執行部에서 兩側代表가 完全合意를 하는 形式으로 끌고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는 意見만 交換하고 代表會議, 本會議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로 되는 것인지? 그러한 면을 좀 알았으면 좋겠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會議의 進行을 首席代表와 비슷한 代表를 두지 않고 그냥 모임形態로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p>	<p>運營委員會와 代表會議 問題 이걸 어디까지나 會議임. 會議니까 執行部가 있어야 된다는 말임.</p> <p>그런데 執行部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됨. 그래서 우리는 眞摯한 토론끝에 선생들이 提起했던 의견들을 참작해서 各黨 代表들로서, 各黨에서 여러사람이 나오니까, 그중에서 各各 한두名씩 指定代表를 냄.</p> <p style="text-align: center;">(6 - 討議 - 50 ~ 51)</p>

우 리 側	北 側
<p>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런 側面을 묻고 싶음.</p> <p>(6 - 討議 - 68 ~ 69)</p>	
<p>執行部는 結論的으로 各 政黨代表가 한 명씩은 최소한도 들어간다는 것이지만 南北이 同數가 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겠는가?</p> <p>(6 - 討議 - 74 ~ 75)</p>	<p>同數로 하면 더욱 좋음.</p> <p>이 執行部는 야가 말씀드린 것처럼, 會議過程에서 提起된 意見相異들을 주로 기거서 協議하고 調整하는 使命을 遂行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執行部 役割임.</p> <p>(6 - 討議 - 75)</p>
<p>執行部는 雙方 각기 5名의 代表로 構成함.</p> <p>『執行部』는 『代表會談』의 委任에 의해 『代表會談』에서 提起되는 意見差異를 協議・調整하고 雙方 合意에 따라 『共同合意文』 草案을 作成함.</p> <p>(7 - 基調 - 34 ~ 35)</p>	

라. 共同運營委員會

우 리 側	北 側
<p>會談의 效率的 運營을 위해 雙方 5 名의 代表로 幹事會議, 貴側에서 말하는 共同運營委員會를 構成·運營함.</p>	<p>連席會議의 원활한 運營을 위하여 雙方에서 각각 5 名으로 구성되는 共同運營委員會를 조직함.</p>
(1 - 基調 - 27)	(1 - 基調 - 22)
	<p>全體會議를 運營하는 連席會議에서 共同運營委員會 必要에 따라 全體會議에서 論議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걸려있는걸 共同委員會에서 다시 좁히고 共同委員會에서 좁혀진 문제를 다시 내놓기도 하고, 互相 이렇게 한다면 效率的으로 運營할 수 있음.</p> <p>이건 常識으로 되어 있으며 效率的으로 運營하는 方式이란 말인데 이런 實務的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난관을 조성하지 말아야 함.</p> <p style="text-align: right;">(3 - 討議 - 44 ~ 45)</p>
<p>合同會議의 構成, 이것을 더 具體的으로 이렇게 壓縮해가지고 우리가 討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왕에 北側에서 國會議員들 우리끼리 만나자 또 運營에서는 5 對 5 로 해가지고 共同運營會를 構成해서 進行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基本的</p>	<p>共同委員會에 대한 問題는 이 앞서 理解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連席會議와 別途의 어떤 機構로 저희들 생각하는건 아니고 그건 그저 말하자면 國會運營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實務, 하나의 組織임.</p> <p style="text-align: right;">(4 - 討議 - 39)</p>

우 리 側	北 側
<p>인, 基調的인 것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貴側에서 먼저 提案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全團長의 見解를 좀 듣고싶은 그런 立場임.</p> <p>(4 - 討議 - 38)</p>	
<p>幹事會議과 같은 것이군요?</p> <p>(4 - 討議 - 39)</p>	<p>예. 그쪽에서 제기한 幹事會議와 비슷한게 아닌가 생각함. 全體會議을 하다가 또 거기서 論議된 問題들을 매듭짓기 위해서, 意思를 모으기 위해서 다시 小範圍에서 協議한다든지 小範圍에서 協議된 것을 全體에 提起한다든가 하는 具體的인 것을 더 研究해서 實務團에서 協議・解決하자는 것이고 아직 共同委員會 使命, 機能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없음.</p> <p>(4 - 討議 - 39 ~ 40)</p>
<p>또 한가지, 거기에 運營會議가 다섯명인데 이것을 각자 11名으로 해서 그러니까 22名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準備會談, 運營會談 다 해가지고, 좋게 文案을 다 만들어 가지고, 다 모인데 가서 滿場一致로 박수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봄.</p>	<p>共同運營委員會라는 것은 어떤 代表權을 가진 機構가 아님. 連席會議 안의 補助機關이란 말임.</p> <p>(4 - 討議 - 51)</p> <p>代表會議의 圓滑한 운영을 위하여 雙方</p>

우 리 側	北 側
<p>또 議題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案件을 갖다가 하나하나 問題를 運營委員會라 해서 그것을 5名, 5名 할 것이 아니라, 11名으로 해서 먼저 平壤에서 하든지, 서울에서 하든지 이렇게 會談을 한번해서, 모두가 모였을 때 合意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로 할 수 없겠는가, 이것이 質問임.</p> <p>(4 - 討議 - 48 ~ 49)</p>	<p>에서 各各 5名으로 構成되는 共同運營委員會를 조직함.</p> <p>(6 - 基調 - 30)</p>
<p>내가 말하는 運營會議가 뭐냐하면 兩側의 雙方 代表가 모여가지고 어떤 議案을 가지고 合意를 作成해서 滿場一致로 合同會議에서 贊成하도록 내놓는 그것을 만드는 會議임.</p> <p>(4 - 討議 - 71)</p>	
<p>執行部를 두고 또 共同運營委員會를 運營하고 그것 상당부분 機能이 중복되지 않을까?</p> <p>그러니까 執行部라는 것은 各 政黨의 代表들로 議長을 包含해서 執行部를 構成하게 되면 共同運營委員會가 해야 될 일 정도는 그게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p>	<p>共同委員會는 實務 일꾼들로 할 것이고 執行部는 그게 다 代表者級 되는 분들이 있어야 있는데 거기에서 뭐 運營委員會라는 細部的인 것을 討議할 수야 없음.</p> <p>(6 - 討議 - 44)</p> <p>共同運營委員會는 議事日程, 會議를 어떻</p>

우 리 측	北 側
<p>(6 - 討議 - 44)</p> <p>政黨代表들로 構成된 執行部가 있고 또 運營을 위해 各各 共同運營委員會를 둔다는 것은 會議을 運營함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可能性이 있음.</p>	<p>계 運營하겠는가, 討論은 어느 政黨에 먼저 시키겠는가, 그 다음에 合意書 採擇은 어떤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등을 協議하는 기구로서, 말하자면 運營分科나 같음.</p> <p>(6 - 討議 - 51)</p>
<p>(6 - 討議 - 45)</p> <p>共同運營委員會에 關한 그 構成과 機能에 대해서는 아무런 異意가 없음.</p>	<p>몇시부터 몇시까지는 休息하고,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討論會하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文件 採擇하고, 그 會議運營과 關聯된 問題를 實務적으로 協議하는 機構다. 그런 差異를 두자는 것임.</p>
<p>(6 - 討議 - 77)</p>	<p>分明히 그건 어차피 실무일꾼들이 나서서 그런 連絡事業을 해야 될 것으로 봄.</p> <p>이런 差異를 두는 것임.</p> <p>(6 - 討議 - 76)</p>
<p>共同運營委員會는 雙方 각기 5名의 代表로 構成함.</p> <p>「共同運營委員會」는 議事日程 作成 등 會談運營과 關聯된 實務問題를 다룸.</p> <p>(7 - 基調 - 34 ~ 35)</p>	

5. 代表團 構成

우 리 측	北 측
<p>南北國會會談의 代表團은 雙方 各其 20 名의 代表와 40 名의 支援人員 및 50 名의 取材記者로 構成하며, 首席代表는 議長이 指名하는 重鎮議員으로 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27)</p>	<p>連席會議에는 雙方 國會議員 全員과 雙方에서 各各 國會議員이 없는 政黨, 團體들의 代表와 各界人士 50 名씩 參加함.</p> <p>隨員은 各各 20 名으로 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21)</p>
<p>南北國會會談에 政黨·社會團體 代表들과 各界人士들을 參加시키는 問題에 關해서는 國會會談의 性格上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함.</p> <p>貴側에서 50 名이라고 했는데 우리 大韓民國의 國會議員들은 雙方 住民의 代表인 同時에 各 政黨의 代表인 만큼 여기에 政黨·社會團體 代表 및 個別人士를 別途로 參席시킬 必要가 없다고 봄.</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28)</p>	<p>連席會議 참가자들에 대한 資格審査는 雙方에서 各各 3 名으로 구성되는 共同資格審査委員會에서 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22)</p>
	<p>우리는 北南 國會連席會議에 되도록이면 많은 人員이 參加해서 최대한의 民主主義를 발양시키는 것이 分裂된 우리나라 統一問題를 해결하는 가장 직접하고 아주 현실적이고 能率적인 解決策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봄.</p>

우 리 側	北 側
<p>5名 내지 6名을 생각하는데, 貴側에서 또 適正하지 않다고 하면 또 議論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5 - 討議 - 37)</p> <p>20名은 全體가 안 모였을 경우 20名이고 이제는 전부가 가지 않는가? 다 와가지고 開會式하고, 基調演說 다 하고 그 다음에 具體的으로 議題에 대해서 서로 討議하고 審議하는 그 代表數가 5名 또는 6名이라는 얘기임.</p> <p style="text-align: right;">(5 - 討議 - 37)</p>	<p>그런 見地에서 우리는 北南 國會連席會議에 政黨・團體, 各界人士들까지 參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임. 政黨, 團體 및 各界人士들을 參加시키는 것은 國會議席을 가지지 못한 이런 階層들의 意思도 集大成하는데서 아주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할수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2 - 基調 - 28)</p> <p>代表會談 形式을 主張하는데 그 適正數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인가?</p> <p style="text-align: right;">(5 - 討議 - 36)</p> <p>앞서 20名씩 하기로 했었잖았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5 - 討議 - 37)</p>

우 리 측	北 側
<p>20名도 좋고 30名도 좋음. (5 - 討議 - 38)</p> <p>「議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談」에 參加하는 適正 數의 代表라는 것은 貴側의 中央放送과 「로동신문」에서 몇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5名을 생각하는 것은 아님.</p> <p>그때에도 굳이 꼭 숫자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하면 꼬리를 잡힐 염려가 있으니 5名부터 20名까지, 30名까지 다 좋다는 것임.</p> <p>그래서 5名만 잡아가지고 貴側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適正數라는 것은 貴側의 意見을 들어보고 伸縮性있는 수효를 말하는 것임. 그러나 오늘 편이상 各其 20名内外 즉 南北이 합해서 40名内外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側 意見임. 이것은 우리가 兩側에서 수의해서 調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함.</p> <p>이같은 우리側의 提議는 會談의 效率성과</p>	<p>代表會談을 20名으로 하자 했다가 이제는 開閉式을 全體가 參加하니까 代表會談을 5名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20名에서 더 後退한 感이 있음. (5 - 討議 - 38)</p> <p>南北國會代表會議의 參加數를 大幅 줄여서 雙方에서 各各 50名으로 할 것을 다시 提議함.</p> <p>우리가 오늘 또 다시 北南國會代表會議 參加數를 대폭 줄여서 各各 50名으로 할 데 대한 劃期的인 修正案을 내놓은 것은 어떻게 하나 우리 相逢을 빨리 結束짓고 基本問題 討議를 위한 國會 本會議를 마련해서 民族의 運命과 관련된 緊張緩和, 戰爭防止問題를 早速히 해결하고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에 有利한 局面을 열어 나가려는 一念으로부터 출발한 아주 성실하고도 진지한 對策이라고 생각함. (6 - 討議 - 62 ~ 63)</p>

우 리 側	北 側
<p>生産性を 保障하는 同時に 南北關係의 現實을 아울러 考慮한 것으로서 國會會談의 參加者 數를 늘리자는 貴側의 主張도 反映한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6 - 基調 - 15 ~ 16)</p> <p>숫자 問題는 굳이 50 名이 좋다고 하시면 좋음.</p> <p style="text-align: center;">(6 - 基調 - 77)</p> <p>『開會모임』, 『代表會談』, 『閉會모임』에 參加하기 위해 相對側 地域을 訪問하는 代表團은 150 名 內外의 支援人員과 200 名 內外의 記者를 同行토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7 - 基調 - 36)</p>	

6. 會談運營節次

가. 合意方式 (合意制 · 多數決)

우 리 側	北 側
<p>國會代表會談에서 우리가 滿場一致로 合意 · 採擇해서 각 國會에 돌아가서, 最高人民會議에 돌아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 代表會談에서 결론을 내렸으니까 國會에서 滿場一致로 통과시킵시다, 最高人民會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킵시다, 이렇게 하여 政府에 移送할 것은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자 이런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1 - 討議 - 40)</p>	<p>討論은 民主主義 原則에 따라 모든 會議 參席者들이 자유롭게 하되 討論者數는 北과 南에서 同數로 함.</p> <p>토의된 議案에 대한 可決은 舉手 또는 投票의 方法으로 하며 過半數 以上の 찬성으로 결정함.</p> <p>議決에 참가하는 國會議員數는 北과 南에서 同數로 하며 會議 議長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음.</p> <p>표결결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共同計算委員會를 구성하고 共同計算委員會는 北과 南에서 각각 5 名씩으로 구성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23)</p>

우 리 側	北 側
<p>우리 生存하고 관계되는 이 큰 문제를 完全 合意制로 해야 決定된 狀況에서 이복이나 우리나라 승복을 하는 것임.</p> <p>51 對 49 로 表決하자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1 - 討議 - 60)</p>	
<p>北側은 人民共和國 社會主義 憲法에 의해 最高人民會議가 만들어 졌고, 우리는 우리 6 共和國 새 憲法에 의해 國會가 만들어졌음.</p> <p>別個의 憲法에 의해 만들어진 두개의 國會가 한 자리에 모여서 共通 議題를 놓고 多數決의 原理에 의해 共通意思를 創出해 내는 것이 政治現實的으로 불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57)</p>	<p>體制를 달리한 대표들이 모여서 連席會議같은 것을 하면 어떻게 合意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貴側 論理임.</p> <p>그게 體制優位論임. 그건 덮어두어야 함. 설사 意見差異가 있다고 해도, 南朝鮮 國會안에서 論爭보다도 더 自律的으로 運營할 수 있는 方法論도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62)</p>
<p>우리들이 그저께 2 次 接觸에서 修正案으로 提議했던 骨字가 어디까지나 南北國회의 代表들이 雙方이 平壤이 되었든지 서울이 되었는지 한번 만나 가지고 심도있게 豫備接觸에서 採擇된 議題들을 놓고 討議하되 거기서는 어디까지나 合意制로 함.</p>	

우 리 側	北 側
<p>表決로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임.</p> <p>雙方間에 讓步할 것 讓步하고 主張할 것 主張해 가지고 完全合議制로 採擇된 最大公約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든지 여러분들이 오시든지 천여명에 가까운 우리 國會議員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合同會議에서 이걸 確認하는, 또 우리는 돌아와 가지고 國會에서 어느 경우는 承認을 말는다든지 이러한 節次를 밟아가지고 1次는 國會의 基本的인 代議政治에 입각한 立場에서 形式을 갖춘다음에 合同會議에서 確認을 하고 萬歲부르는 이러한 形式으로 밀고 나가야겠다는 것이 우리의 立場임.</p> <p>(3 - 討議 - 37)</p>	
<p>事實은 雙方會談이 됩니까? 民衆大會가 됩니까? 雙方이 合意본 것은, 完全히 合意본 것은 採擇하느냐, 아니면 多數決로 해서 어떻게 群衆大會 形式으로 하느냐, 어느 쪽입니까?</p> <p>(4 - 討議 - 33)</p>	<p>저희들이 일단 提起한 것은 맞인가, 多數決로 하자는 것임. 合意書草案에 提起했음. 그거야 뭐 民主主義의 가장 普遍的 原則이니까 좋은 것임.</p> <p>問題는 그 原則을 어떻게 活用하는가 하는데서 여러가지 伸縮性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함. 어떻게 活用하겠냐 하는 것은 그런 方法은 우리 實務的으로 協議하는 것</p>

우 리 側	北 側
<p>그것이 여기에서 討論이 되어야 됨. 여기가 節次問題 討議하는 곳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國會議員들이 代表하는 所謂 人口와 北側이 代表하는 人口數가 서로 다름.</p> <p>그래서 1對1로 다같은 選舉區를 가진 사람이 한다면 多數決도 있을 수 있는데, 代表하는 有權者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多數決로 하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고 또한 過去의 우리의 南北間의 關係로 보아서 雙方性이 있어야 됨. 양쪽의 立場을 다 代表하는 것 이런것을 우리는 既定事實로 보고 있음.</p> <p>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畧意書안에 分明히 包畧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알아야 됨. 한 두개 政黨에서 그점을 相當히 憂慮하고 있는 데가 있음. 그래서 알고가는게 우리로서는 討論하기가 낫겠다는 생각임.</p> <p>(4 - 討議 - 34)</p>	<p>이 좋겠음. 畧意書 討論할 때도 있을 것이고 節次問題 討論할 때도 있을 것임.</p> <p>(4 - 討議 - 33 ~ 34)</p>

우 리 側	北 側
<p>合同會議를 運營하는데 多數決이 適用되 나 안되냐, 滿場一致制냐 하는 이것을 이 決定에 분명히 받고 넘어가야 됨.</p> <p>雙方會議냐 아니면 3千萬, 4千萬, 2千 萬이 모인 그러한 多數決會議냐, 그렇게 4 千萬, 2千萬이 모이게 되면 南쪽이 代表數 가 배나 되어야 함.</p> <p>그런 복잡한 問題가 있으니까 이렇게 雙 方會議로 하자는 意見임. 그리고 만약 多 數決이라는 말이 있고 滿場一致制 아니라 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으면 우리 南쪽의 政黨에서는 절대로 合意 못봄.</p> <p style="text-align: center;">(4 - 討議 - 48)</p>	
<p>民族問題를 어떻게 表決하자는 겁니까? 49%對 51%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承服 할 수도 우리들이 承服할 수도 없는 것임.</p> <p>절대 合意制로 해야 됨. 그러니 이 두 가지, 全體 모이는 것 안되고, 表決 안되는 것, 이런 基本的인 視角에서 새出發을 해 야 됨.</p> <p style="text-align: center;">(4 - 討議 - 54)</p>	<p>자꾸 表決이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 면 그쪽 國會에서는 어떻게 해서 表決이 됩니까?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p> <p style="text-align: right;">(4 - 討議 - 54)</p>

우 리 側	北 側
<p>우리는 代表性이 다 비슷함.</p> <p>우리는 4千萬의 299名이고, 거기는 2千萬의 655名인데 어떻게 同等한 資格으로 1對1 表決을 하는가?</p> <p>(4 - 討議 - 54)</p>	<p>表決問題를 合理的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調整機構도 봐 두자는 얘기임.</p> <p>(4 - 討議 - 55)</p>
<p>어차피 表決에는 同數로 參與하겠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書信에서 밝혀진 바 있음.</p> <p>가령 表決過程에서 저희들이 299名이니까 여러분들이 299에서 우리들 쪽에서 여러분들에 同調하는 勢力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票가 가리라고 期待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期待하기 어려울 것임.</p> <p>萬의 一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幻想임. 이것을 分明히 말씀드리고 싶음.</p>	<p>거기에 앞서서 먼저 奉鎬先生이 原則的인 問題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게 있음.</p> <p>우리가 表決問題를 가지고 그쪽에 무슨 몇사람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幻想이라든가 등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입장은 민족문제를 어느쪽의 한두사람 가지고 안함.</p> <p>(4 - 討議 - 99)</p>
<p>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51對49라는 것이 피차가 承服하기 어려운 것임.</p> <p>票가지고 對決이 안됨. 票가지고 對決할 수 있는 論理가 成立한다고 한다면 全體國民들의 國民投票라는 論理도 成立이 된다는 事實을 여러분들이 記憶을 해야 됨.</p> <p>(4 - 討議 - 96)</p>	

우 리 側	北 側
<p>貴側이 억지소리를 하니가 그런 것임. 어떻게 民族問題가 표결로 되는 것인지 알수 없음.</p> <p>(4 - 討議 - 99)</p>	<p>말 잘못했음. 그 말에 대해서 責任져야 함.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對話 相對方을 어떻게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음. 우리가 어떻게 그쪽 瓦解하고 國論을 分裂하고 그렇게 하는가?</p> <p>(4 - 討議 - 99 ~ 100)</p>
<p>어떻게 民族問題를 表決로 한다는 것인가? 잘 알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는가?</p> <p>(4 - 討議 - 100)</p>	<p>우리가 多數決의 問題를 왜 提起하는가? 처음에 얘기했음. 民主主義의 普遍的 原理이기 때문에 提起했음. 아주 原則的인 問題 얘기했음.</p> <p>(4 - 討議 - 100)</p>
<p>貴側 人員數 3분의 1, 218名과 우리 150名인데 合同會議라는 것이 多數決로 하는 會議인가?</p> <p>50표 差로, 100표 差로 決定난다고, 南北問題가 表決로 解決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음. 서로 마음을 털어 놓고 討論하고 和解하고 이런 가운데 어떤 結論이 나와 南北問題가 解決되지 않겠나 생각함.</p> <p>(5 - 討議 - 23)</p>	<p>多數決로 말인가? 會議形式을 먼저 決定하면 뒤따라 運營問題와 實務節次問題이니가 능히 좋게 解決될 수 있을 것임.</p> <p>만장일치냐, 무슨 多數決이냐, 하는 것은 간단한 절차문제임.</p> <p>節次問題를 討論하면서 討論을 해도 充分히 討論할 수 있음.</p> <p>(5 - 討議 - 24)</p>

우 리 側	北 側
<p>議題로 選擇되는 問題를 討論한 후 그 議題에 대해서 相反되었을 경우 表決을 하자는 것인가?</p> <p>最終적인 決定權은 누구에게 있는가?</p> <p>그러면 表決 안하는 것인가?</p> <p>다행히 피차 양쪽에서 立場 表明을 하고 討論을 해서 理由없다, 北側 提案이 좋습니다 또 南側 提案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雙方 千名이 모인데서 異議가 없을 경우에는 滿場一致로 採擇이 되지만 事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설령 거기에서 피차 相反된 見解가 나왔을 경우에는 表決을 안하고, 가령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小委員會라든가 運營委員會로 넘길 경우에는 그것까지 諒解가 된 것인가?</p> <p>民族問題를, 統一問題를 어떻게 表決에 붙인다는 것인가? 合意를 해야 함. 合意해 가지고 單一案으로 導出해 가지고 採擇하는 것 아닌가?</p>	<p>意見에 合致가 다되면 表決에 들어가지만 紛爭問題가 있어 合意못되는 問題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 機構들에서 協議・調整함. 幹事會議 같은데서 協議・調整하면 됨. 거기 國會運營하는거나 같음. 이제와 같이 討論한다, 그속에서 여러가지 意見이 提起되어서 意見이 相馳되는 그런 問題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말하는 幹事會議 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運營委員會라든지 또 그 밖에 非公式的으로 政黨끼리도 모여 앉아서 소범위에서 協議도 하고 調整하고 意見이 相馳되는 것을 간격을 좁히고, 文件委員會에서도 그 간격을 좁히고 이렇게 해서 대체로 어느 方向에서 意見・見解가 一致되었다고 할 때에는 表決에 부친다는 것임.</p> <p>貴側에서 主張하는 滿場一致 可決의 原則도 表決임.</p> <p style="text-align: right;">(5 - 討議 - 58 ~ 60)</p>
<p style="text-align: center;">(5 - 討議 - 58 ~ 60)</p>	<p>運營方法의 問題는 우리가 協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過半數 運營問題를 提起했는데, 可決問題 예를 들면 過半數가 아니면 一致合意제도</p>

우 리 側	北 側
	<p>있잖은가? 예를 들면 「Consensus」 이런 方法도, 또 滿場一致도 있잖은가? 그런 것 을 놓고 어느 것이 좋은가는 協議하자는 事임.</p> <p>우리가 過半數를 提起한 것은 民主主義 의 一般的·普遍的인 原則이기 때문에 提起 했음. 그러나 民族問題를 놓고 그쪽의 어 떤 野黨議員 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共通點 을 하나 찾아서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님.</p> <p style="text-align: right;">(5 - 討議 - 60 ~ 61)</p> <p>代表會議에서 基本問題에 대한 最終合意 는 一致合意方式으로 함.</p> <p>一致合意에서는 極少數가 反對하고 絕對 多數가 贊成하는 境遇 合意하는 것으로 인 정함.</p> <p>閉幕會議에서는 代表會議에서 작성한 共 同合意書를 박수로 確認함.</p> <p>우리는 國會會議 運營節次問題에서도 貴 側의 主張을 심중히 고려하여 最終合意를 多數決方式으로부터 絕對多數의 贊成을 念 頭に 둔 一致合意制로 修正하였음.</p> <p style="text-align: right;">(6 - 基調 - 30 ~ 31)</p>

우 리 側	北 側
<p>代表會議에서 基本問題에 대한 最終合意는 一致合意方式으로 한다는 새 用語를 오늘 쓰셨는데, 一致合意라는 뜻에 대한 說明은 『極少數가 反對하고 絶對多數가 贊成하는 경우에는 合意한 것으로 보는 合意方式이 一致合意方式이다』 이렇게 說明을 하였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p>	<p>여기 「一致合意制」라고 하는 것은 滿場一致하고 조금 差異를 두자는 것임.</p> <p>가령 滿場一致라면 어떤 또 폐단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아 民族의 運命과 관련된 분이 200名이 모였는데 199名은 贊成人데 한 사람이 어떤 政治的 動機로 또는 어떤 動機로 해서 反對한다면 이 한사람 때문에 通過되지 못한다는 問題임. 이걸 또 非民主主義的임.</p>
<p>(6 - 討議 - 39)</p>	<p>그래 民族의 運命을 놓고 한사람 反對를 해서 民族의 運命을 희롱하는 것으로 됨. 그래서 그 滿場一致라는 것을 조금 변형시켜서 一致合意制로 하자. 一致合意制案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滿場一致로 通過되면 더욱 좋다. 그러나 極少數 人員이 反對하고 絶對多數 人員이 贊成했을 때도 一致合意制로 通過된 걸로 하자.</p>
<p>一致合意方式으로 하되 極少數의 反對는 이를 合意된 것으로 본다는 말씀은 우리가 會議를, 특히 우리가 會議를 많이 해보지 않았는가? 그래 이것은 必要없는 얘기나 그</p>	<p>(6 - 討議 - 40 ~ 41)</p> <p>그런데 그게 다 변형되어서 다른데 國際會議들에서는 이제와 같이 絶對多數 合意制方式으로 一致合意制方式이 絶對多數合意制로 변형된 이런 國際會議가 또 적지않게</p>

우 리 측	北 側
<p>런 얘기임.</p> <p>그런 論理는 있을 수 없음. 왜냐하면 한 두 사람은 우리 多數가 얼마든지 說得시킬 수 있음. 누가 보더라도 民族의 問題는 一致合意制로 하는 原則에 입각해서 해야지 한들 反對하는 것은 우리 양쪽이 얼마든지 說得할 수 있고 도출해낼 수 있음. 이것은 뭐 우려할 必要도 없는 事項을 굳이 넣어 놓은것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6 - 討議 - 46)</p> <p>一致合意制라는 것은 물론 數를 헤아리는 多數決方式은 아니로되 어디까지나 이것은 個別的 意思를 集計하는 方式임.</p> <p>그런 意味에서 이건 全員 一致合意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側面에서 좀 더 우리가 理解할 수 있게끔 說明을 해주었으면 좋겠음.</p> <p style="text-align: center;">(6 - 討議 - 49 ~ 50)</p> <p>會談이 아닌 會議方式을 취할 때에 극소 수가 반대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물어볼려면 投票라는 절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擧手가</p>	<p>있는 것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6 - 討議 - 42)</p> <p>우리는 100名 중에서 40名 정도 반대했다든가 그럴 경우도 通過시키지 말자는 생각임.</p>

우 리 側	北 側
<p>되었든 뭐가 되었든 意思表示을 받지 않고 는 그걸 確認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것 을 確認하는 方法은 어떻게 하는가? (6 - 討議 - 59)</p>	<p>極少數라 하면 그 보다 훨씬 작은 숫자 를 임무에 둔 것임. (6 - 討議 - 60)</p>
<p>一致合意制라고 하지 말고 그저 合意制 라고 하는 것이 좋겠음. 執行部에서 協議・調整한다는 말하고 代 表會議에서 一致合意制한다는 말하고 整理 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 協議・調整한다고 하고 거기에 가 서 極少數 反對가 있을 경우에 안된다는 것 은 앞뒤 말이 맞지 않음. (6 - 討議 - 66)</p>	
<p>執行部에서 協議・調整한다고 해놓고 또 全體代表會議에서 一致合意制를 한다고 하 니 왜 그런 差異가 나는가? (6 - 討議 - 66)</p>	
<p>그 前에 執行部の 決定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6 - 討議 - 72)</p>	<p>執行部 成員들의 完全 合意를 보아야 될 것임. 그건 民族問題인데 어느 政黨이 하나 反</p>

우 리 側	北 側
<p>우리는 「議題討議를 위한 모임」이 雙方 各 50 名씩 都合 100 名이 모이는 자리라는 점을 留意하면서 이를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해 「代表會談」에서는 雙方 首席 代表의 責任下에 討議를 進行하고, 「代表會談」의 委任에 의해 雙方 各 5 名의 代表들로 構成되는 「執行部」에서 意見差異를 協議・調整한 후 雙方 合意에 따라 共</p>	<p>對하는 격이 되는데 그 政黨을 내놓고 또 可決에 부칠 수 없지 않겠는가? (6 - 討議 - 72)</p> <p>代表會議가 最終結論權을 가졌는데, 이제 執行部에서 論議된 것은 內的合意이니까, 內的合意 그걸로써 結論權을 줄 수 없지 않 는가?</p> <p>그래서 그걸 그저 이렇게 우리 滿場一致로 合意했다고 全體會議에 確認을 시키는 工程을 거치면 되는 것이 아닌가.</p> <p>그래서 이거는 대체로 滿場一致로 된다고 저희들은 確信함. (6 - 討議 - 72 ~ 73)</p>

우 리 側	北 側
<p data-bbox="257 340 1076 584">同合意文을 作成하여, 이를 「代表會談」에 서 確認・通過시키는 方法으로 運營하면 되 리라고 봄.</p> <p data-bbox="738 632 1065 681">(7 - 基調 - 31)</p>	

나. 合意書 (共同決議文 · 共同宣言文)

우 리 側	北 側
<p>南北國會會談의 合意事項은 共同合意文으로 採擇하여 發表함.</p> <p style="text-align: center;">(1 - 基調 - 27)</p> <p>최종합의서는 어디서 文案을 最終적으로 草案을 하느냐? 共同委員會가 할 수도 있고 執行部가 할 수도 있겠음.</p> <p>그래서 그 案을 代表會議에서 採擇을 해야 될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6 - 討議 - 53)</p> <p>共同合意書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起草를 하는지?</p> <p>執行部가 최고 權限을 가진다니까 執行部에서 合意가 되는데에 따라서, 委任에 따라서 함.</p> <p style="text-align: center;">(6 - 討議 - 78)</p> <p>「 執行部 」에서 作成한 「 共同合意文 」을 「 代表會談 」에서 確認 · 採擇함.</p> <p style="text-align: center;">(7 - 基調 - 35)</p>	<p>文件作成 그루빠가 나와야 됨.</p> <p>執行部에서 調整된 意見을 받아서 委任하는 方案을 누가 쓰면 됨.</p> <p style="text-align: right;">(6 - 討議 - 78)</p>

다. 共同議長制

우 리 側	北 側
<p>개·폐회모임은 共同議長制로 進行하며 招請側의 國會議長이 會議의 司會를 맡음.</p> <p style="text-align: right;">(5 - 基調 - 30)</p> <p>「開會모임」과 「閉會모임」은 共同議長制로 하고 司會는 번갈아 함.</p> <p>「代表會談」과 「執行部」는 雙方 首席代表가 會談을 共同主宰하고 「共同運營委員會」는 雙方 首席代表가 指名하는 代表가 共同主宰함.</p> <p style="text-align: right;">(7 - 基調 - 36)</p>	<p>會議執行은 北과 南의 國會議長들을 共同議長으로하여 平壤에서 會議를 할 때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議長이 하고 서울에서 會議를 할 때는 大韓民國 國會議長이 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22)</p> <p>開幕會議와 閉幕會議는 北과 南의 共同議長制로 運營하며 司會는 번갈아 함.</p> <p style="text-align: right;">(6 - 基調 - 31)</p>

라. 開·閉會모임演說

우 리 側	北 側
<p>基調演說 兩側 議長이 하고 또 兩側에서 有力한 人士들이 나와서 演說 서너사람 또 하고, 이래가지고 그 무드가 기분이 統一을 向해서 平和를 向해서 不可侵을 向해서 團結이 된 다음에 代表會談을 開催하는 것이 좋겠음.</p>	
(5- 討議 -43)	
	<p>開幕會議에서는 雙方國會議長이 開幕演說을 하며 國會議席을 가지고 있는 北과 南의 各 政黨 代表들과 個別人士들이 祝賀演說을 함.</p>
	(6 - 基調 - 30)
	<p>閉幕會議에서는 國會議席을 가지고 있는 北과 南의 各 政黨 代表들과 個別人士들이 祝賀演說을 하며 雙方 國會議長이 閉幕演說을 함.</p>
	(6 - 基調 - 31)
<p>個別人士 演說이 있는데, 個別人士는 어디 執行部에서 나중에 定하는가?</p>	<p>運營委員會에서 選擇을 하게 될 것임. 運營委員會에서 토론해 가지고 議長한테 提起해서 議長하고 다 合意된 基礎위에서 選定함.</p>
(6 - 討議 - 70)	
	(6 - 討議 - 70)

우 리 側	北 側
<p data-bbox="251 376 1059 521">國會議員들의 모임인데 個別人士 代表 演說이 꼭 必要한 것인가?</p> <p data-bbox="716 571 1048 618">(6 - 討議 - 70)</p>	<p data-bbox="1094 376 1902 717">個別人士로서 例하면 그쪽은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그쪽은 無所屬으로서 國會議員 그런분 祝賀演說을 하고 싶다면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p> <p data-bbox="1563 767 1895 814">(6 - 討議 - 70)</p>

마. 會談開催 時期 및 場所 (서울 · 平壤)

우 리 측	北 측
<p>第 1 次 南北國會會談은 8 月中 平壤에서, 第 2 次 會談은 10 月中 서울에서 開催함. 相對側地域 滯留期間은 3 泊 4 日로 함. (1 - 基調 - 27)</p>	<p>連席會議는 平壤과 서울에서 번갈아 하며 第 1 次 連席會議는 平壤에서 개최함. 第 1 次 連席會議는 1988 年 8 月 26 日에 하며 會議期間은 4 泊 5 日로 함. (1 - 基調 - 21)</p>
<p>緊急議題로 올림픽問題 하나만을 다룬 本 會談을 8 月 29 日 平壤에서 開催할 것을 正式 提議함. (2 - 討議 - 81)</p>	<p>우리가 提起한 第 1 次 北南國會連席會議 를 8 月 26 日 平壤에서 開催하자는데 協의 하면 됨. 올림픽問題가 緊急問題라는 것 은 우리도 더 잘알고 있으며 또 여기에 날 자를 늦추고 招請問題만 討論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一方的임. (2 - 討議 - 85)</p>
<p>인락을 해주시면 豫備會談에 서울도 좋고, 우리가 平壤에 가도 좋음. 연락이 안오면 과거대로 하고 연락이 있 으면 서울하고 平壤하고 우리끼리라도 왔 다갔다 하는 것이 좋겠음. (5 - 歡談 - 13)</p>	<p>여기서 빨리 結束해야 됨. 서울 · 평양은 이제 本會談을 해야 됨. (5 - 歡談 - 14)</p> <p>基本問題討議를 위한 第 1 次 代表會議는 開幕會議以後 1 個月안에 서울에서 하며 다</p>

우 리 측	北 側
<p>「開會모임」은 板門店 準備接觸 終了後 1個月內에 平壤에서 開催함.</p> <p>「代表會談」은 「開會모임」以後 1個月內에 서울에서 第1次 會談을 開催하고 그 後 1個月內에 平壤에서 第2次會談을 開催하며 第3次會談부터는 1個月을 週期로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開催함.</p> <p>「閉會모임」은 「代表會談」 終了後 1個月內에 서울에서 開催함.</p> <p>(7 - 基調 - 35)</p>	<p>음반 會議부터는 1個月을 週期로 하여 平壤과 서울에서 잇바꾸어 함.</p> <p>(6 - 討議 - 30)</p>

바. 其他 運營節次問題

우 리 측	北 側
<p>《 運營節次 一般 》</p> <p>南北往來節次, 身邊安全保障, 板門店 通過節次, 滯留 및 會談日程, 標識, 裝備 및 所持品, 交通·通信 및 連絡, 會談場施設, 會議記錄, 會議公開與否, 會談進行方式, 會談場外 活動, 各種 便宜提供 및 기타 諸般 實務節次問題 등에 대해서는 과거 南北往來의 先例를 準用하되 이에 따른 具體的 問題는 雙方에서 實務代表 1名씩을 選定, 協議·決定토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1 - 基調 - 27)</p>	<p>《 板門店 通過節次 》</p> <p>雙方은 各各 連席會議에 참가한 國會議員들과 다른 政黨, 團體 代表 및 各界人士들, 隨員 및 記者들의 姓名, 性別, 직위를 밝히고 사진이 첨가된 名單을 매차 상대측 지역에 들어오기 3日前에 상대측에 넘겨줌.</p> <p>連席會議와 관련하여 상대측 지역에 가는 인원들은 자기측 國會나 國會議長이 발급한 信任狀 또는 身分證明書를 휴대함.</p> <p>雙方 人員들의 軍事分界線 通過地點은 板門店 軍事分界線上에 있는 人員接受側의 관할 건물로 함.</p>
<p>南北往來節次, 身邊安全保障, 板門店 通過節次, 滯留 및 會談日程, 標識, 裝備 및 所持品, 交通, 通信 및 連絡, 會談場外 活動, 각종 便宜提供 및 기타 諸般 實務節次 問題 등에 대해서는 과거 南北往來의 先例를 準用하되 이에 따른 具體的 問題는 雙方에서 實務代表 1名씩을 選定하여 協議·決定토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7 - 基調 - 36)</p>	<p>雙方 來往者들은 板門店 軍事分界線을 넘어선 때로부터 자기측 지역에 돌아올 때까지 상대측의 案内와 秩序에 따름.</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21)</p> <p>《 身邊安全保障 》</p> <p>雙方은 상대측 인원들이 자기측 지역에 滯留하는 기간 그들의 身邊安全과 不可侵權을 책임적으로 保障함.</p> <p>身邊安全과 不可侵權을 담보하기 위하여</p>

우 리 측	北 측
<p>《會議公開 與否》</p> <p>「開・閉會모임」과 「代表會談」은 公開를 原則으로 하며 「執行部」와 「共同運營委員會」의 會談은 非公開로 할 수 있음.</p> <p>(7 - 基調 - 36)</p> <p>《取材活動》</p> <p>南北國會會談을 위한 南北往來에 있어 言論의 自由로운 取材活動을 保障함.</p> <p>(7 - 基調 - 36)</p> <p>《滯留期間》</p> <p>「開會모임」, 「代表會談」, 「閉會모임」의 相對側 滯留期間은 4泊 5일로 함.</p> <p>(7 - 基調 - 36)</p>	<p>該當機關은 公式聲明을 발표하고 聲明 文本을 상대측에 넘겨줌.</p> <p>(1 - 基調 - 22)</p> <p>《便宜保障》</p> <p>連席會議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에 滯留하는 인원들의 交通 및 通信 手段과 宿食을 비롯한 일체 便宜는 主催側에서 保障함.</p> <p>(1 - 基調 - 22)</p> <p>《會議公開與否 및 議案上程 報告》</p> <p>連席會議는 公開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非公開로도 할 수 있음.</p> <p>議程에 대한 報告 또는 議案은 北과 南에서 각각 提起할 수 있으며 雙方 國會에 망라된 政黨別로도 提起할 수 있음.</p> <p>(1 - 基調 - 22)</p> <p>《會議記錄》</p> <p>記錄은 녹음과 녹화, 속기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會議 主催側은 상대측에 필요한 녹음중계선을 보장함.</p> <p>(1 - 基調 - 23)</p>

〈附 錄〉

雙方提案 및 合意書(案)

1. 우리側

가. 南北國會會談 開催에 관한 合意書 案 (第7次 準備接觸)

大韓民國 國會 代表團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 代表團은 1988年 8月 19일부터 1988年 12月 29日 사이에 板門店の 平和의 집과 統一閣에서 도합 일곱차례에 걸쳐 南北國會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準備接觸을 갖고 南北國會會談의 開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1. 議題 및 會談形式

가. 南北國會會談의 議題는 다음의 3個項으로 한다.

- ① 南北赤十字會談・南北經濟會談의 再開問題를 포함한 南北間의 多角的인 交流・協力 問題
- ② 南北不可侵宣言 問題
- ③ 南北頂上會談 開催問題

나. 南北國會會談은 「開會모임」, 「議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談」(이하 「代表會談」이라 함), 「閉會모임」順으로 進行한다.

다. 「開會모임」과 「閉會모임」은 南北의 國會議員 全員이 參加하는 合同會議 形式으로 한다.

라. 「代表會談」은 雙方에서 各其 50名의 代表가 參加하는 雙務會談 形式으로 하며, 雙方 各其 5名의 代表로 構成되는 「執行部」와 雙方 各其 5名의 代表로 構成되는 「共同運營委員會」를 둔다.

2. 會談運營 節次

가. 南北國會會談은 相互 尊重 및 不干涉, 相互 衡平의 原則 등에 따라 相互主義로 運

營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나. 「開會모임」은 板門店 準備接觸 終了後 1個月內에 平壤에서 開催한다.

다. 「開會모임」에서는 準備接觸에서 雙方이 合意한 諸般事項을 確認하고 議題討議를 위해 各其 選定한 代表를 紹介하며 雙方 國會議長의 開會演說과 各黨을 代表하는 國會議員들의 祝賀演說을 交換한다.

라. 「代表會談」은 「開會모임」以後 1個月內에 서울에서 第1次 會談을 開催하고 그 後 1個月內에 平壤에서 第2次會談을 開催하며 第3次會談 부터는 1個月을 週期로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開催한다.

마. 「代表會談」은 雙方 合意制로 運營하며 表決은 하지 않는다.

바. 「執行部」는 「代表會談」의 委任에 의해 「代表會談」에서 提起되는 意見差異를 協議・調整하고 雙方 合意에 따라 「共同合意文」 草案을 作成한다.

사. 「執行部」에서 作成한 「共同合意文」은 「代表會談」에서 確認・採擇한다.

아. 「共同運營委員會」는 議事日程 作成 등 會談運營과 關聯된 實務問題를 다룬다.

자. 「閉會모임」은 「代表會談」 終了後 1個月內에 서울에서 開催한다.

차. 「閉會모임」에서는 「代表會談」에서 合意・採擇된 「共同合意文」을 確認・公表하며 雙方 國會議長의 閉會演說과 各黨을 代表하는 國會議員들의 祝賀演說을 交換한다.

3. 其他 進行節次

가. 「開會모임」과 「閉會모임」은 共同議長制로 하고 司會는 번갈아 한다.

나. 「代表會談」과 「執行部」는 雙方 首席代表가 會談을 共同主宰하고 「共同運營委員會」는 雙方 首席代表가 指名하는 代表가 共同主宰한다.

다. 「開・閉會모임」과 「代表會談」은 公開를 原則으로 하며 「執行部」와 「共同運營委員會」의 會談은 非公開로 할 수 있다.

- 라. 南北國會會談을 위한 南北往來에 있어 言論의 自由로운 取材活動을 保障한다.
- 마. 「開會모임」, 「代表會談」, 「閉會모임」의 相對側 滯留期間은 4泊 5日로 한다.
- 바. 「開會모임」, 「代表會談」, 「閉會모임」에 參加하기 위해 相對側 地域을 訪問하는 代表團은 150名 内外의 支援人員과 200名 内外의 記者를 同行토록 한다.
- 사. 南北往來節次, 身邊安全保障, 板門店 通過節次, 滯留 및 會談日程, 標識, 裝備 및 所持品, 交通, 通信 및 連絡, 會談場外 活動, 각종 便宜提供 및 기타 諸般實務節次 問題 등에 대해서는 과거 南北往來의 先例를 準用하되 이에 따른 具體的 問題는 雙方에서 實務代表 1名씩을 選定하여 協議・決定토록 한다.

2. 北側

가. 北南國會連席會議 召集 및 運營과 關聯한 合意書 草案 (第1次 準備接觸)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과 大韓民國 國會는 北과 南사이의 緊張狀態를 완화하고 平和를 보장하며 民族的 團合을 도모하고 나라의 統一을 촉진하려는 念願으로부터 출발하여 北南國會連席會議 (이하 連席會議로 함)를 召集하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1988年 8月 19日 板門店 《統一閣》에서 連席會議를 準備하기 위한 北南國會議員들의 相逢을 가지었다.

北南國會議員들의 相逢에서는 連席會議 召集 및 運營과 關聯한 실무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한다.

1. 連席會議 議題

連席會議 議題는 北南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發表하는 問題, 第24次 올림픽競技大會問題로 하며 그밖에 나라의 緊張狀態를 완화하고 平和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南側이 提起하는 問題도 議題로 한다.

2. 連席會議 場所

連席會議는 平壤과 서울에서 번갈아 하며 第1次 連席會議는 平壤에서 개최한다.

3. 連席會議 參加對象과 人員

連席會議에는 雙方 國會議員 全員과 雙方에서 各各 國會議員이 없는 政黨, 團體들의 代表와 各界人士 50名씩 參加한다.

隨員은 各各 20名으로 한다.

4. 第1次 連席會議 날자 및 會議期間

第1次 連席會議는 1988年 8月 26日에 하며 會議期間은 4泊 5日로 한다.

5. 板門店 軍事分界線 通過節次

- ① 雙方은 各各 連席會議에 참가할 國會議員들과 다른 政黨, 團體 代表 및 各界人士들, 隨員 및 記者들의 姓名, 性別, 職위를 밝히고 사진이 첨가된 名單을 매차 상대측 지역에 들어오기 3日前에 상대측에 넘겨준다.
- ② 連席會議와 관련하여 상대측 지역에 가는 인원들은 자기측 國會나 國會議長이 발급한 信任狀 또는 身分證明書を 휴대한다.
- ③ 雙方 人員들의 軍事分界線 通過地點은 板門店 軍事分界線上에 있는 人員接受側의 관할 건물로 한다.
- ④ 雙方 往來者들은 板門店 軍事分界線을 넘어선 때로부터 자기측 지역에 돌아올 때까지 상대측의 案内와 秩序에 따른다.

6. 身邊安全保障

- (1) 雙方은 상대측 인원들이 자기측 지역에 滯留하는 기간 그들의 身邊安全과 不可侵權을 책임적으로 保障한다.
- (2) 身邊安全과 不可侵權을 담보하기 위하여 該當機關은 公式聲明을 발표하고 聲明 文

本을 상대측에 넘겨준다.

7. 便宜保障

連席會議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에 滯留하는 인원들의 交通 및 通信 手段과 宿食을 비롯한 일세 便宜는 主催側에서 保障한다.

8. 國會連席會議 運營節次

- ① 連席會議는 公開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非公開로도 할 수 있다.
- ② 連席會議 참가자들에 대한 資格審査는 雙方에서 각각 3名으로 구성되는 共同資格審査委員會에서 한다.
- ③ 連席會議의 원활한 運營을 위하여 雙方에서 각각 5名으로 구성되는 共同運營委員會를 조직한다.
- ④ 會議執行은 北과 南의 國會議長들을 共同議長으로하여 平壤에서 會議를 할 때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議長이 하고 서울에서 會議를 할 때는 大韓民國 國會議長이 한다.
- ⑤ 議程에 대한 報告 또는 議案은 北과 南에서 각각 提起할 수 있으며 雙方 國會에 망라된 政黨別로도 提起할 수 있다.
- ⑥ 討論은 民主主義 原則에 따라 모든 會議 參席者들이 자유롭게 하되 討論者數는 北과 南에서 同數로 한다.
- ⑦ 토의된 議案에 대한 可決은 舉手 또는 投票의 方法으로 하며 過半數 以上の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⑧ 議決에 참가하는 國會議員數는 北과 南에서 同數로 하며 會議 議長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다.
- ⑨ 表결결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共同計算委員會를 구성한다. 共同計算委員會는 北과 南에서 각각 5名씩으로 구성한다.

9. 會議記錄은 녹음과 녹화, 속기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會議 主催側은 상대측에 필
요한 녹음중계선을 보장한다.
10. 이밖에 提起되는 問題들을 회의개막전에 雙方實務者들 사이에서 協議決定한다.

北南國會連席會議 準備를 위한 北南國會議員들의

相 逢

北側代表團 團長 전남철 南側代表團 首席代表 朴浚圭

1988年 8月 19日

板 門 店

나. 修正案(第6次 準備接觸)

1. 會議形式

- ① 北南國會會議는 開幕會議와 基本問題討議를 위한 會議, 閉幕會議로 한다.
- ② 開幕會議와 閉幕會議는 北南國會議員 全원이 참가하는 合同會議로 한다.
- ③ 基本問題討議를 위한 會議는 雙方에서 각기 100 명의 代表들이 참가하는 代表會議로 한다.
- ④ 開幕會議는 板門店 國會議員相逢이 끝난 후 1개월안에 平壤에서 召集한다.
- ⑤ 基本問題討議를 위한 第1次 代表會議는 開幕會議以後 1個月안에 서울에서 하며 다음번 會議부터는 1個月을 週기로 하여 平壤과 서울에서 엇바꾸어 한다.
- ⑥ 閉幕會議는 基本問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議가 끝난후 1個月안에 召集한다.

2. 會議運營節次

- ① 開幕會議와 閉幕會議는 北과 南의 共同議長制로 運營하며 司會는 번갈아 한다.
- ② 開幕會議에서는 雙方國會議長이 開幕演說을 하며 國會議席을 가지고 있는 北과 南의

- 各政黨代表들과 個別人士들이 祝賀演說을 한다.
- ③ 開幕會議에서는 板門店 國會議員相逢에서 合意된 問題들을 確認하며 基本問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議에 과건할 雙方代表들의 名單을 發表한다.
- ④ 基本問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議에서는 各政黨代表들로 執行部를 構成한다.
代表會議에서 提起되는 意見相異는 執行部에서 協議調整한다.
- ⑤ 代表會議의 圓滑한 운영을 위하여 雙方에서 各各 5名으로 構成되는 共同運營委員會를 조직한다.
- ⑥ 基本問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議에서는 合意된 問題들을 共同合意書로 작성한다.
- ⑦ 代表會議에서 基本問題에 대한 最終合意는 一致合意方式으로 한다.
一致合意에서는 極少數가 反對하고 絶對多數가 贊成하는 境遇 合意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⑧ 閉幕會議에서는 代表會議에서 작성한 共同合意書를 박수로 確認한다.
- ⑨ 閉幕會議에서는 國會議席을 가지고 있는 北과 南의 各政黨代表들과 個別人士들이 祝賀演說을 하며 雙方 國會議長이 閉幕演說을 한다.